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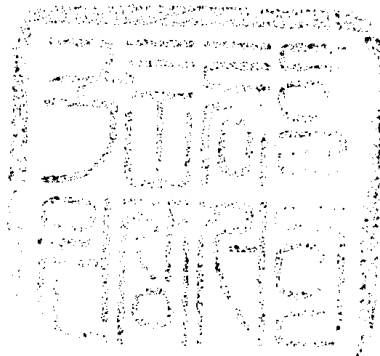
3255

334.3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南北韓靑少年의 問題와 展望

—Problems and Proposals for the Youths  
in South and North Korea—



448255  
334.3  
" 3255"

刊行責任 呂錫昊 (政策企劃室 補佐官)

*Handwritten signature*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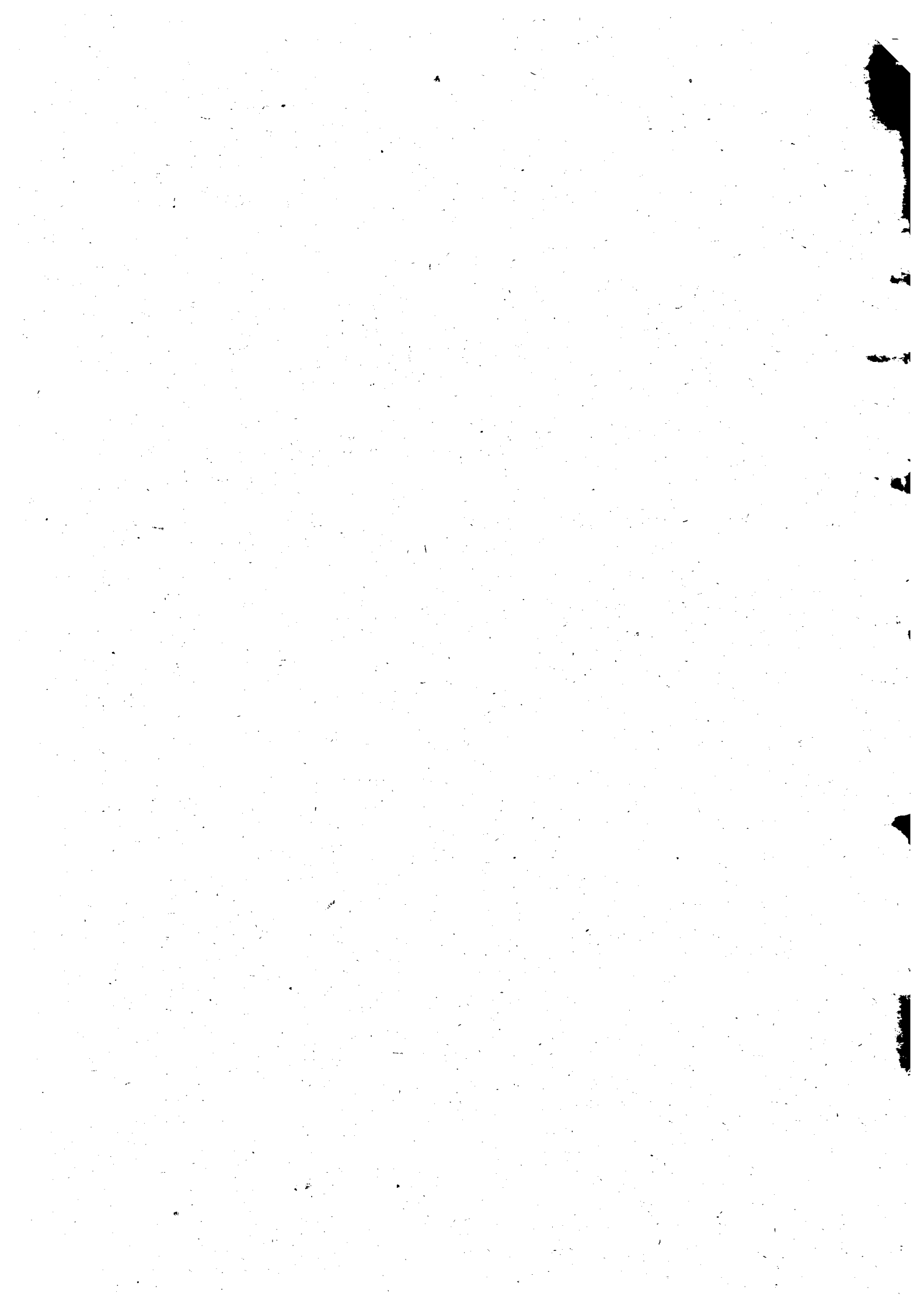
南北韓青少年的 統一觀 比較..... 3  
74123

南北韓青少年的 社會化過程 比較..... 61  
74123

青少年에 對한 南北韓教育政策 比較..... 113  
74123

分断國의 青少年教育政策 比較..... 179  
74123

統一後繼世代로서 的 南北韓青少年的 諸問題와 展望..... 245  
74123



# 南北韓青少年的 統一觀比較

研究執筆責任 張 日 祚

(略歷) 韓神大學 卒業  
延世大學院 哲學科 卒業  
獨逸 且吾大學 哲學科 研究  
現 韓神大 教授



## 要 約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을 각기 實態的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는 이때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러한 研究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問題들을 綜合的으로 분석하고, 評價하고, 整理하므로써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비판적으로 檢討해 보려고 한다.

이 問題를 둘러싼 이때까지의 研究는 대개 靜態的이고, 부분적이며 分析的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나는 여기서 이 問題를 動態的이고, 全體的이며, 綜合的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이라는 이 問題 자체가 오늘날 南北韓 分단문제에 包含되는 하나의 작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또한 언제나 全體的인 맥락 안에서 파악되어야 할 問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全体性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全體的 接近을 나는 여기서 이데올로기 비판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方法的인 눈으로 볼 때; 南北韓 靑少年은 물론 우리들의 統一觀은 대체로 統一觀 그 자체가 혼자서 單獨으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經濟, 政治·文化等 우리의 삶의 全體的인 유기적 相關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상관관계에서 靑少年 統一觀 形成에 작용하는 요소는 우선 이미 既成世代가 가지고 있는 統一觀이 있고, 그 다음은 靑少年 自身들이 독자적으로 擧得하는 자기 세대의 統一意識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韓半島의 社會·經濟·政治·

文化를 둘러싼 國際的 상황이 있다. 이러한 複合的 요소들이 靑少年들의 統一觀을 만드는 데, 北韓에서는 閉鎖된 체제가 戰爭을 통한 共産化統一觀을 만들어 내고, 南韓에서는 개방된 체제가 平和的인 自由民主統一觀을 指向하고 있다. 그리고 第三世界의 新民族主義가 오늘날 韓半島의 젊은이들, 특히 南韓 靑소년들의 統一觀에 심각한 影響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新民族主義의 影響은 現存하는 南北韓 기존 통일觀에 대하여 다 같이 비판적인 性格을 띠므로써, 既存 지배세력들이 내세우는 統一觀에 대한 위협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을것 같다. 그런 意味에서 새로운 감각을 갖는 젊은 世代는 그들의 독자적인 統一觀으로써 기존하는 統一觀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비판의 武器로 삼으려고 한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世代 사이의 政治理念的 葛藤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이때까지의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研究에서 우리는 매우 重要的 몇 가지 事實들을 볼 수 있다.

첫째로, 統一問題에 대한 教育의 範圍와 要綱이 一般學校教育過程의 次元에서 國民政治教育의 次元으로까지 擴大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統一教育이 우리들의 삶 의 총체적인 過程과 範圍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問題로서 새롭게 認識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둘째로 靑少年들의 통일觀의 問題는 그들 세대만의 单独的인 문제 가 아니라, 全体國民的 次元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靑소년 統一觀의 問題를 그와 關聯된 삶 의 보편적이고 全體的인 問題들과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셋째로, 靑少年의 統一觀問題가 全体国民的 次元의 문제와의 상관관계에서 보아야 하드시 韓半島 統一問題는 第3世界와의 關係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第3世界가 第3의 이데올로기의 기반과 源泉으로서 양극적으로 葛藤하는 世界問題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데 어떤 展望을 주드시 韓半島의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도 어떤 새로운 展望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展望에서 南北韓 靑소년의 새로운 統一觀 形成을 위한 理念的 方向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次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社会·經濟에 있어서 福祉社会의 實現을 위한 平等의 範疇를 積極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난의 악순환에서 人間을 解放하는 共產主義와 가장 힘있게 대결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로, 政治的 民主主義를 實現해야 한다. 이것이 權力の 독점적 남용의 惡循環에서 人間을 解放하는 길이다.

셋째로, 民族的 精神·文化에 있어서 世界開放性을 수용하고 그 生産的 價値를 認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만 오늘날 民族的 正體性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人間과 自然의 平和的 共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産業化를 통한 공해의 惡循環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惡條件과 삶의 고달픔 때문에 생기는 삶의 無의미성의 중독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 특히 現代와 같은 産業社会의 機械化된 삶이나 또는 독재적이고 抑壓的인 政治的 삶에 있어서 삶 그 自体의 無意味性的 中독에 걸리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解放하려면 우리는 宗教를 가져야 한다. 自己自身을 能動的으로 내어 줌으로써, 그것으로 부터 새로운 삶의 意味를 獲得하는 힘을 갖도록하는 것이 바로 宗教의 힘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世界觀이 앞으로 우리시대의 思想을 支配하고 유도할 方向이라고 展望되기 때문에 이것이 未來의 靑少年들의 統一觀을 源泉的으로 決定할 조건들이라고 보고, 이러한 全體的이고 근원적인 展望에서 南北韓 靑소년들의 統一觀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靑少年 世代의 통일관은 비록 그것이 그들 世代의 매우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北韓 靑소년의 統一觀은 마침내 韓國民族의 全体性和 일상성의 歷史的 흐름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意味에서 그것은 單純한 南北韓의 見解差異나 靑소년세대의 獨점물이 아닌 우리民族全體的 歷史的 存在와 歷史的 삶의 問題로까지 심화해서 認識되어야 하는 問題인 것이다.



目 次

I . 課題의 問題性.....11

II . 이때까지의 調査研究에 나타난 統一觀 實態의  
分析과 整理 ..... 22

III . 統一問題의 中心要素의 批判的 解析..... 32

IV . 새로운 統一觀 形成을 위한 理念的 提案 ..... 42



## I . 課題의 問題性

南北韓 靑少年 統一觀 問題가 기성세대의 統一觀과 臫 수 없는 解析學的인 순환구조 關係에 놓여 있다는 것은 知識社會學的인 眼目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認定할 수 있는 일이다. 知識社會學的의 깊고 어려운 뿌리로 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도 없이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의 前理解 (Vorverständnis)라는 概念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日常的인 理解의 構成과 形成은 아무렇게나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앞서서 形成되어 있는 일정한 이해들의 認識論的이고 解析學的인 제약과 相關關係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본다. 1) 그러므로 젊은세대의 어떤 觀念이나 理念이 그보다 앞서 걸어진 기성세대의 觀念과 理念에 直接·間接으로 臫 수 없는 認識論的이고 解析學的인 순환구조 關係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매우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未來 靑少年世대의 새로운 統一觀이 기성세대의 이미 形成된 統一觀과 不可分의 解析學的 순환구조 關係에 놓여 있다는 말하자면 모든 形成되고 있는 새로운 理解의 前構造的 성격에 관한 問題다. 모든 새로운 知識과 이해는 반드시 이미 既存하는 지식과 이해를 보수적으로 繼承하거나 아니면 批判적으로 극복함으로써 形成되기 때문에 未來 靑少年世대의 統一觀 形成問題를 일단 社會意識의 순환구조라는 側面에서 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서 形成되는 未來 靑少年世대의 새로운 統一觀은 기성세대의 既存하는 統一觀을 수정없이 그대로 답습했거나,

아니면 全面的으로 大幅 수정했거나 간에 그것이 기성세대와는 일단 다른 새로운 세대의 자기 독자적인 社会意識의 표출이라는 点에서 강한 이데올로기적 性格을 가진다. 이데올로기란 개인이나 集團에 있어서 그들의 內面的 意識을 歷史現實 文化·政治·社会的 形式과 性格으로 表現하므로써 그러한 意識을 表現한 主体들의 主義와 主張이 뚜렷이 드러내어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란 그것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表現하고 그들의 正体を 밝히는 社会的 言語일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써 그들을 理解할 수 있는 구호(Parole)이기도 하다. 2) 그러므로 기성세대의 그것과 일단 區別되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統一觀은 그 自体가 그것으로써 그들의 統一 問題에 對한 이데올로기를 表現하고 그것으로써 그들의 統一意志를 알 수 있는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統一이데올로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靑少年 세대의 독자적인 統一이데올로기로서의 統一觀은 그들 세대의 독자적인 것이라는 点에서 그것 자체대로의 이데올로기적 價値評價를 必要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리고 또 하나의 問題는 靑少年세대의 독자적 統一觀이 어떤 이데올로기적 性格의 것이거나 그것이 장차 닥아올 未來의 統一問題를 左右間 決定할 主役들의 것이라는 点에서 重要視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未來의 問題로서의 統一問題가 기성세대에 依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고 있는 젊은 세대의 統一이데올로기에 의해서 左右될 것이라는 데는 疑問의 餘地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統一이데올로기가 어떤 內容의 것인지는 아직도 決定되지 않은 開放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未來 靑少年 세대의 統一이데올로기 앞에서 希

望과 좌절, 확신과 모험,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이율배반적으로 얽혀  
막히고 괴로운 곤혹을 느낀다.

장차 올 未來 靑少年 세대의 統一이데올로기 問題의 性格이 知識  
社會學的으로 볼 때 이와같이 기성세대와의 解析學的인 순환구조관계  
에 있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 세대의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적 性  
格을 가지며, 그들이 未來의 統一問題를 피할 수 없이 전담해서 추  
체적으로 處理해야 할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性  
格을 가지는 問題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미치는 影響의 변수가 매  
우 複合的이고 多樣하기 때문에 이 南北韓 靑少年 統一觀 問題의 인  
식과 접근에 있어서는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方式이 뒷받  
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問題에 대한 이렇게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要請은 이 問題를  
둘러싼 問題狀況의 本質이 靜態的이고, 圖式的이며, 分析的인 實證的 調  
査方式들만으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운 動的이고 不規則的이며, 複合的인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本質上 기성세대와의 解析學  
的 순환구조 關係에 놓여 있는 靑少年 세대의 새로운 統一觀은 그  
解析學的인 前構造의 파악에 있어서 靑少年 세대의 統一觀에 가장 근  
접해서 影響을 미치고 있는 直接性과 그 表面的 現象들의 分析만으  
로써는 充分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 未來靑少年 세대의 統  
一觀에 影響을 미치거나 변수로서 作用하는 中心要素들에 대한 構造  
主義的 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구조주의적 分析  
이란,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事實을 그것과 관련된 깊은 여러개의 원  
인과 구조적으로 심화·확대시킨 關係에서 파악하고, 걸어서 드

러난 事實을 은폐되어서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것들과의 구조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시 말하면 하나는 여럿과의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안으로 숨은 것과의 關係에서 그리고 部分은 全体와의 關係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태의 구조주의적 파악과 分析이란 어느 편이나하면 매우 靜態的이기 때문에 이 方法이 사태의 靜態的 全体性은 붙잡을 수 있겠지만 時間的으로 움직이며 흐르고 있는 歷史的 사태, 더구나 動態的인 社会意識의 파악을 위해서 적절한 方法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疑問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補充的 方法으로써 우리는 動態的 全体性을 파악하는 데 구조주의적 方法보다 더 적절한 辨證法的 方法을 생각하게 된다. 5) 그러므로 구조주의적 方法과 辨證法的 方法의 상호보충과 統合的 活用을 통해서라면 南北韓 청소년 세대의 統一觀問題를 더욱 명료하게 파악·分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方法論的 빛 안에서 보면 南北韓 青少年 세대의 統一觀의 解析學的 前構造는 청소년 세대의 統一觀을 둘러싼 우리 民族의 政治·社会意識과 文化의 傳統과 構造를 그 通時性和 同時代性에 있어서 거꾸로 소급해 가면서 파악·分析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기성세대의 이미 形成된 통일관은 물론, 그 뒤를 이을 오고있는 後繼世代的 개방성 속에 놓인 可能的 統一觀의 決定要因과 그 맥락을 明確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統一後繼世代的 統一觀의 그 前世代的 統一觀과의 關係는 물론 그들이 갖는 統一觀의 이데올로기적 性格의 認識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方法이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란 그 個人이나 集團의 正體를 드러내는 社會的 言語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正體를 알 수 있는 그들의 구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란 그것을 내세우는 주체의 가장 날카롭고 積極的인 자기주장의 性格을 갖는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南北한 靑少年 世대의 통일이데올로기에서 가장 날카롭고 積極的인 그들의 正體와 젊은 세대로서의 世代的 本質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靑少年 世대의 意識構造 形成이 그 前 기성세대의 意識構造와 不可分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 진다는 點에서는 前後 세대간의 意識形成의 解析學的 순환구조가 問題였으나, 未來 南北韓 靑少年 統一觀의 이데올로기적 側面에서는 靑少年 世대의 獨者的 自己主張이 문제가 된다.

한 個人이나 集團의 이데올로기적 자기주장은 온건하고 小極的인 多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과격하고 積極的인 少數에 의해서 主導된다. 이렇게 과격한 少數의 이데올로기 主導가 그 個人이나 集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形成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事實上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 절대다수의 숨은 意志와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겉으로 主張되는 이데올로기와 안으로 숨어서 은폐되어 있는 실제와의 이러한 거리와 차이를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虛偽的 性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6)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虛偽的 性格이야 말로 이데올로기의 本質이기도 한데, 이러한 虛偽的 性格을 통해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소극적이고 中立的인 多數의 意志를 과격하고 積極的인 이데올로기로 活性化하는 선동적인 힘을 갖는다. 그리고 이

러한 性格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는 그 集團의 全體的 意志를 이데올로기 그 자체속에 集中시키고 內面化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그 虛偽的 性格을 통해서 中立的이고 小極的인 多數의 意識을 克服하고 積極的으로 活性化할 뿐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主体를 包含한 同時代의 사람들에게 그 이데올로기가 상징하는 사태와 指向하는 目標에 대한 真理를 說得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갖는 또하나의 性格인데, 이 境遇 이데올로기는 곧 그것을 主張하는 사람들의 真理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南北韓 靑少年들의 統一觀과 같이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真理인 경우, 靑少年 세대의 真理로서의 이데올로기와 기성세대의 真理로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 세대의 真理는 바로 그 世代의 利益과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 있기 때문에 新舊세대간의 이데올로기적 葛藤은 다시 政治·社會·經濟的 問題들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世代間의 이데올로기적 葛藤에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主体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기성대의 그것보다 그 質에 있어서 發展的인 優越성을 가진다는데 연유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發展的 優越성이란 따지고 보면 사라져 가는 기성 세대의 것이 아니고 점차 나타나는 새로운 세대의 것이라는 매우 상대적 條件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가 빠뜨린 것에 대한 補充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質的인 優越성과 正當性을 하려고 한다. 이 境遇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單純히 기성 세대에 대한 批判的 극

복이라는 性格 以外에 그들의 동시대성이 추구하거나 指向하고 있는 보편적 이데올로기의 趨勢에서도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正当化할 수 있는 權利의 근거를 찾는다. 이것이 젊은 세대의 이데올로기에 正当性을 賦与하는 基礎的인 要因들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南北韓의 既存하는 양극적·보수적 統一理念 보다는 새로운 統合的·進歩的 統一理念에 의해서 南北한 靑少年들의 統一理念이 더 많이 主導된다고 보아야 한다. 7)

여기서 김상협은 새 統一概念의 정립을 위하여 그 概念을 어디에 다 設定할 것인가를 살피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境遇를 생각하고 있다. 8) 첫째로, 外勢에 의한 分斷 이전의 民族原型으로 復歸하자는 순정統一, 無條件 統一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以前時代'의 統一概念은 분단 이후에 嚴然히 展開된 27年の 歴史를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본다. 이미 굳어진 南北이 각기 양보할 수 없는 자기의 영역을 拋棄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상호 接近과 共存은 可能할는지 몰라도 統一合意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로, '以後時代'의 統一概念으로서 南北韓의 어느 한편이 主導權을 잡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統一을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것은 自力에 의한 것이거나 國際的 흥정에 依한 것이거나 간에 事實上 不可能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現狀고착을 바라는 四強이 狀況의 變動에서 오는 혼미와 복잡한 理解關係의 變化에 대해서 뚜렷한 展望을 내릴 수 없고, 또한 자칫하면 損害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以後의 以後時代'의 統一概念이다. 이것은 허허실실 東洋的 여백에 기대를 거

는 기습統一, 요행統一과 4강이 모두 분단상태 보다는 統一狀態로現狀을 變更하는 것이 4강의 理解葛藤과 긴장을 緩和하는 緩衝地帶로서 有利하다는 意見일치를 볼 때 있을 수 있는 中立 統一이며, 또한 南北韓이 각기 영역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묘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때 可能的 기적적인 統一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 역시 現實性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설혹 이루어 진다고 해도 南北各者의 영역이 消滅되지 않고 嚴存하는 이질체의 接合에 불과한 '모자이크'적인 不充分한 統一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무엇인가? 過去指向·現狀維持的인 統一概念에서 未來指向·歷史發展과 創造的인 統一概念으로 이질체의 接合이라는 統一概念에서 同質體의 單一構造的 統一概念으로 既存하는 異質性을 通合하는 再統一(Re-unification)에서 이러한 異質性을 止揚的으로 극복할 수 있는 第3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次元에서의 새로운 統一(New-unification)의 概念과 方向을 指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9) 그래서 이러한 統一의 概念과 方向은 옛 나라를 回復하는 것(Old-nation-building)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創造的으로 建設하는 것(New-nation-building)이며, 이러한 統一은 單純한 空間으로서 國土統一이 아니라, 葛藤 속에서 展開되어 오던 民族精神史의 發展的 統合으로서 認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統一後繼世代의 統一概念의 積極的인 內容은 '活力있는 自由 福祉社會'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0) 그러므로 結局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은 現存하는 기성 세대의 統一觀이 빠뜨리고 있는 弱點들을 극복하는 한편 南北韓이 각기 相對方을 同質的으로 흡수 統合할 수 있

는 새로운 發展의 이데올로기의 定立이라는 次元에서 問題性이 設定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南北韓의 靑少年 세대는 既存하는 기성 세대의 統一觀을 一部는 批判적으로 부정하고 一部는 다시 새로운 것을 創造적으로 補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그들 세대의 獨者的인 統一觀을 形成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에서 靑少年 세대는 기성 세대와의 이데올로기적 葛藤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오고있는 靑少年 세대의 統一觀은 南北韓의 기성 세대가 자기 相對方을 自己中心的으로 배제했던 배타적 統一觀으로 부터 相對方을 充分히 자기 속에다 受用할 수 있는 包括的 統一觀으로 轉換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김상협이 '自由 福祉社會'라는 概念에서 充分히 暗示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때까지 南北韓의 기성 세대는 個人의 自由를 위해서 福祉社會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福祉社會를 위해서 個人의 自由를 포기하는 이른바 黑白論理를 바탕으로 統一論을 展開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오고 있는 젊은 세대는 적어도 이러한 兩者択一의 黑白論理를 넘어서려 하고 있으며, '자유 福祉社會'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오고 있는 젊은 靑少年들의 民族統一觀을 위한 理念的 지침이 될 것이다. 그 理由는 個人의 自由와 社會的 平等을 통한 福祉社會의 建設이 오늘날 世界社會에 있어서 새로운 文化, 政治, 社會, 經濟의 理念으로서 正當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民族分斷 問題에 대한 南北韓 靑少年들의 統一觀은 이미 既存하는 기성세대와의 關係, 靑少年 세대의 自主的 意識 그리고 靑少年 세대의 '엘리트' 集團에 의한 主導에 의해서 形成·展開되는 한편, 그들의 統一觀이 안고 있는 理念的 質에 의해서 左右되는 것이

기 때문에 오고 있는 靑少年 世代의 統一觀이 어떻게 決定되느냐라는 問題는 매우 流動적이고 탄력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결코 이미 完 決된 性格으로 고착된 問題가 아니라 아직도 豊富한 可能性 속에서 창조적으로 展開되어 가야할 性格으로 개방되어 있는 問題라고 보겠다. 그런 意味에서 이 問題는 既存하는 지배세력에 의해서나 오고 있는 젊은 世代 自身에 의해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을 노리고 있는 자기 相對方에 의해서나 모두 政治的 관심이 集中하는 매우 政治的인 問題다. 특히 남북한 靑少年들이 統一問題를 놓고 기존 體制나 理念과 대결하려 할 때, 젊은 세대들만이 가지는 特有的 統一意識을 기성세대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 (Ideologie-Kritik)의 무기로 사용한다. 기성 세대도 靑少年들을 政治的으로 說得하고 지배하려 할 때는 그들의 理念을 批判의 무기로 사용하는 點에서는 서로 마찬가지로. 바로 이 點에서 統一觀 問題의 이데올로기 批判的이고 政治的인 性格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南北韓 靑少年 統一觀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接近은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方式으로써 이때까지 이루어진 靑少年 統一觀의 實態를 分析·整理해야 하며, 이렇게 分析·整理된 靑少年 統一觀의 中心요소를 이데올로기 批判的으로 解析해야 한다고 본다. 이데올로기 批判的 方法이란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意識을 일정한 社会集團的이고 社会階層的인 意識이라고 보고, 그러한 意識으로써 그와 葛藤하거나 對立하는 또하나의 다른 社会意識을 비판하는 方法을 말한다. 11) 靑少年들의 社会的意識, 특히 政治理念的 意識은 그들의 社会集團이나 社会階層과의 知識社会的의 關

聯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靑少年 統一觀의 批判은 이데올로기 비판적으로 檢討되어야 하고 統一觀의 形成은 社会·政治教育의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方式의 照明을 받으면서, 먼저 이때까지의 調査·研究에서 나타난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實態를 分析하고 整理하는 問題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 Ⅱ . 이때까지의 調査・研究에 나타난 統一觀 實態의 分析和 整理

이데올로기 批判이라는 方法의 눈으로 보면,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 問題는 社会・經濟・政治・文化 상호간의 動的이고 綜合的인 關係의 知識社会学的인 産物이기 때문에 좁은 意味의 統一觀 問題에 局限된・靜態的인 事實조사와 實証的인 統計研究만으로써는 그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問題가 된다고 보겠다. 知識社会学的으로 보면 南北韓 靑少年들의 統一觀은 결코 統一觀 그 자체만이 아니고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社会全体의 綜合的인 過程의 産物이다. 그러므로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은 그 밖의 다른 복수적이고 綜合的인 社会意識의 한 표출이며 특히 統一問題에 대한 南北韓 靑少年의 意識의 表現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와 研究의 이데올로기 비판적 問題性은 다음 課題에서 다시 檢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70年代에 (1970-1979) 주로 調査・研究된 南北韓 靑少年 統一觀을 먼저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整理해 보기로 한다.

70年代의 초반기에는 統一教育의 범위와 要綱에 대한 研究가 集中的으로 이루어 졌다. <sup>12)</sup> 그것은 1960年代 末에 国土統一院을 開院하고 (1969年 3월 1일) 統一教育의 方向設定이 重要한 当面課題가 되었던것 같고, 그러한 現實的인 要請 때문에 1970年代의 초반기에 이러한 統一教育要綱이 問題로서 다루어지고 作成되었다고 본다. 그 후 7·4 南北共同声明 (1972年 7월 4일)과 北韓이 이 精神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한 「7·4 南北共同声明」精神에의 복귀를



촉구하는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1973年 6월 23일)이 있는 다음, 이에 대한 大學生, 南北韓 靑少年, 住民들의 統一觀에 對한 調查와 研究가 있었다.<sup>13)</sup> 이것은 南北韓이 共同으로 한 聲明과 (7.4 南北共同聲明) 北韓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하여 本來의 共同聲明精神으로 돌아갈 것을 促求하는 宣言(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등에 對한 多角的이고 広範圍한 實態調查와 研究다.

「7.4 南北共同聲明」은 우리 政府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內外政勢의 성숙과 더불어 發表한 일련의 平和統一政策의 일환이다.<sup>14)</sup> 말하자면, 1970年 8月 15日에는 박정희 大統領이 光復節의 慶祝辭를 통하여 北韓에 대하여 戰爭逃奔 行爲와 무력적화통일야욕의 포기를 促求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踐한다면 南北韓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段階적으로 제거해 나갈 劃期的인 方案을 提示할 용의가 있음을 表明하면서 平和統一을 위한 '유엔'의 努力을 認定한다면 北韓의 '유엔' 參席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며, 南北韓의 어느 체제가 더 좋은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선의의 競爭에 나설것을 促求하는 「平和統一構想」을 內外에 宣言했고, 다음해인 1971年 8월에는 民族分斷의 고통을 인도적 境地에서 解決하기 爲한「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함으로써 南北韓間의 對決關係를 對話關係로 轉換시킬 劃期的인 措置를 단행했다. 이어서 1972年 7月 4日에 政府는 이 南北對話를 發판으로 하여 南北이 다같이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등 이른바 統一三原則에 입각하여 統一問題를 解決할 것을 全民族 앞에 嚴熟히 誓約하는 「南北共同聲明」을 誘導·發表하고 아울러

「南北調節委員會」를 開催시키는 데 成功했다. 그후 다시 1年後인 1973年 6月 23日에는 먼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民族의 至上課業임을 強調하면서 韓半島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南北韓이 상호 內政에 干涉하지 말것과 侵略을 하지 말것을 다짐하고 긴장緩和와 國際協助에 도움이 되고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도 반대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理念과 體制에 關係없이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共產圈을 포함한 모든 國家에게 상호문호의 開放을 천명했던 七個項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하여, 平和統一의 선행조건으로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具體化할 수 있는 조건을 밝혔으며, 1974年 1月 18日에는 南北韓의 平和定着을 위해서 새로운 協定이 必要하다면 南北韓이 서로 絶대로 侵犯하지 않겠다는 것을 萬天下에 約束하고, 서로 內政干涉을 하지말것, 그리고 어떤 境遇라도 休戰協定은 그 効力이 存続되어야 할 것등을 明示했던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을 제의함으로써 南北韓의 平和共存關係를 制度化할 수 있는 現實的 方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는 우리 韓國의 基本立場은 1974年 8月 15日 朴正熙 大統領이 다시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서 内外에 宣言한 「平和統一三大原則」에 集約的으로 表現되었다. (1) 不可侵協定締結을 통한 韓半島의 平和定着 (2) 南北對話의 성실한 進行과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을 통한 南北間의 상호문호개방 및 信賴의 回復 (3)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公正한 選舉管理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南北韓自由選舉에 따른 統一의 實現이 그것이다. 이 三段階 平和統一基本原則이야말로 韓半島 분단현

실 속에서 祖国을 平和的으로 統一시킬 수 있는 가장 現實的이며, 合理的인 統一方案이다. 이와같이 「7·4 南北共同声明」과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은 70年代에 우리 政府가 追求한 平和統一政策의 一環으로 이룩된 것이다.

여기에 이어 70年代의 중반기에는 科学的 統一論이 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分단國家의 統一問題에 대한 一般理論과 韓半島의 統一理論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15) 그리고 70年代의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 가면서 南北韓의 價值觀, 統一理論 및 目標등에 대한 比較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16) 이것은 南北韓 大學生과 靑少年이라는 特殊階層의 統一觀의 調査와 研究에서 한층 더 넓은 範圍로 擴大되고 깊이 深化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統一問題 研究의 이러한 發展的 展開는 當然히 그 다음에 國民의 統一意識제도에 관한 研究를 自然發生的으로 要請하고 있다. 17) 여기서 비로소 統一意識은 民族의 一般意識이나 '國家社會政策'과 不可分의 關係에서 認識되고 있다. 18) 統一意識을 이렇게 넓고 全體的인 맥락에서 인식하는 새로운 觀點이 나타난 후, 韓國靑少年들의 統一觀이 形成되는 過程的인 제기로서의 社會化(Socialization)問題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統一觀形成問題와의 關聯에서 매우 自然스러운 發展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靑少年의 統一觀이 韓國民族의 一般意識이나 國家社會政策과 보편적이고 全體的인 問題狀況의 맥락에 編入되어서 形成되고 있드시 韓國이라는 狀況은 다시 보다 큰 問題狀況으로서의 世界狀況 특히 第三世界와의 關係에서도 일단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19) 그것은 오늘날의 南北韓分斷도 新進제국주의 植民地에서 解放된 이러한 第3世

界的 狀況과 같은 세계사적 背景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分斷을 다시 統合하는 과정에서의 理念과 方法도 ‘안으로 自主, 밖으로 獨立’이라는 第3世界가 一般的으로 가는 方向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 分斷을 극복할 수 있는 統一의 理念도 結局은 오늘날 第3世界가 指向하는 新民族主義의 理念地平 안에서 어떤 展望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20)

이규호는 그의 冊에서 第3世界의 新民族主義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新民族主義는 發展된 産業社會에서는 이데올로기적 國際主義의 양분법을 초월하는 것을 뜻한다면, 第3世界의 國家들에서는 당위적 명제로서의 國際主義를 위해서 이성적 秩序를 確立하는 新民族主義에 의해서 왜곡된 國際的인 關係構造를 타파하고 스스로의 人間다운 生活을 보장하는 國家를 建設하므로써 이를 통해서 인류역사가 當面한 問題들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新民族主義의 敵은 國제주의가 아니고 오늘날의 당위적인 명제로서의 國際主義를 저해하는 國제주의 또는 新植民主義이다. 따라서 우리는 民族主義란 어떠한 形態에 있어든지 國제주의와 反對되는 것이라는 통속적인 判斷을 초월해야 되겠으며, 同時에 오늘날의 世界에 있어서는 國제주의는 어떠한 形態에 있어든지 바람직한 것이고 民族主義는 非時代的인 性格의 것이라는 先入觀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흔히 國제주의자들에 의해서 主入된 先入觀일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第3世界에 있어서의 新民族主義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新植民主義에 의해서 왜곡된 國際的인 關係구조를 타파하고 理性的인 秩序에 根拠한 호혜의 原則에 따르는 國際的인 상

호협력관계를 指向하고 있다. 따라서 第3世界에 있어서의 新民族主義는 國際社會에서 지배체제를 배제하고 협동체제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第3世界에서는 自我發見과 自己保存을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물론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의 兩面性은 新民族主義에도 해당된다. 新民族主義도 이데올로기라면 역시 경화되어서 부정적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可能性을 배제할 수가 없다. 第3世界의 國家들에 있어서의 新民族主義에도 兩面性이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21)

南北韓 靑少年의 통일관이 韓民族의 一般意識이나 國家社會政策과의 關係에서 形成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統一觀이 全體社會意識의 一部로서 形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論理에서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이 보다 더 큰 세계상황, 즉 第3世界의 新民族主義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특히 “新植民主義에 의해서 왜곡된 國際的인 關係構造를 타파하고 스스로 人間다운 삶을 보장하는 國家를 建設”한다는 點에 있어서나 “新民族主義의 적은 國策주의가 아니고 오늘날의 當위적인 명제로서의 國際主義를 저해하는 國策주의 또는 新植民主義”라는 點에 있어서나, “新民族主義는 이미 말한 바와같이 新植民主義에 依해서 왜곡된 國際的인 關係구조를 타파하고 理性的인 秩序에 근거한 互惠의 原則에 따르는 國際的인 상호협력관계를 指向”한다는 點에 있어서나 “그것은 第3世界에서는 自我發見과 自己保存을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點에 있어서 오늘날 한 民族國家안에서는 물론, 國際社會에 있어서 正義를 추구하는 젊은 靑少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國際主義의 양

분법을 초월" 해서 強力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의 統一觀에 대한 여러가지 調査와 研究의 發展的 展開에  
서 우리는 매우 重要한 몇가지 事實들을 發見하게 된다. 우선 統  
一問題에 對한 教育의 範圍와 要綱이 國民政治教育의 次元으로 까지  
擴大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규호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國  
民政治教育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생활共同體로서의 國家체제의 正  
당성에 대한 信念을 國民들 사이에 擴散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  
러가지 難關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國民들의 愛國心 忠誠心  
을 그들의 人間性 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國家의 체제가 제대로의 機  
能을 發揮하는데 必要한 國民의 지지기반을 굳히기 위한 教育" 22)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統一問題가 그만큼 總體的인 접근을 통해서  
비로소 解決될 수 있는 것이라는 問題性을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새  
로운 革命的인 轉換을 의미한다. 統一教育理念의 이러한 認識의 轉  
換에서 우리는 統一教育이 單純한 學校教育의 次元에만 머물 수 없  
고 보다 開放된 社會教育的 次元으로 까지 轉換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社會·經濟·政治·文化등등의 삶의 總체  
적인 次元이 바로 民族國家的인 問題의 하나로써 제기되어 있는 統  
一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가장 基礎的인 次元이라는 것이다. 이렇  
게 볼 때, 統一問題의 解決은 좁은 學校教育으로 부터 綜合的이고 總  
체적인 社會教育으로 單純한 政策問題로 부터 우리의 現實的인 삶전  
체의 問題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우리의 삶의 總체  
적인 過程과 지평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問題로서 새롭게 認  
識되었다.

그 다음 統一教育의 이러한 추세와 當然히 關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大學生과 靑少年들에게 靜態的으로 局限되어서 수동적이고 조심스럽게 診斷되었던 統一觀이 社會階層 前半에 걸쳐서 能動的으로 파악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더 積極的으로 啓導하는 方向으로 轉換해 갔다. 이것은 統一觀이나 統一問題가 결국 우리의 現實的인 삶의 총체적 과정과 지평의 問題라는 데서도 기인하거니와 北韓의 全面的인 통일공세에 對決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當然히 그렇게 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統一問題가 全體國民의 어떤 一部 階層의 關心과 獨單으로 獨占支配될 問題가 아니고 各界各層의 國民全體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支配될 問題인 것이며 따라서 政府의 統一政策도 國民全體를 對象으로 하는 총체적인 性格으로 展開되어야 하고, 國民全體의 國民的 統一觀에 의해서 뒷받침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政府는 國民全體에서 民族統一問題에 대한 社會·政治教育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實施하고, 그렇게해서 國民各者의 個人的이고 亂立된 狀態의 統一觀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計劃的으로 形成된 확고한 汎國民的 統一觀에 의해서 뒷받침 받아야 한다. 國民全體에게 民族統一問題에 대한 확고한 社會·政治教育을 實施하고 그렇게해서 다시 形成된 國民的 統一觀에 기반을 두고 統一問題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國民的 合意으로써 이루어진 統一觀과 統一政策이며 이와같이 國民的으로 合意된 統一觀이야말로 비로소 民族統一問題를 풀어나가는 주도적 노선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이때까지 어떤 특정 社會階層에만 局限되었던 統一觀 진단과 形成의 範圍와 기반이 國民全體에까지 擴大되고 개방되었음을 의미한다.

民族統一觀을 主導하거나 代表하는 階層이 特定한 階層에서 國民全體에게로 開放된 것은 同時에 一部 特定階層의 統一觀을 그만큼 相對化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렇게 輿論形成基盤을 特定階層에서 國民全體에게 開放하는 政策轉換은 統一問題를 爲한 輿論形成과 政治教育이 一部 特定階層에 閉鎖되어서는 안되고, 當然히 國民的 次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國民的이고 時代的인 要求를 反映하는 것이다.

끝으로, 統一問題가 學校教育에서 社會·政治教育으로, 特定階層의 統一觀에서 國民全體의 統一觀으로 轉換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젊은 知性人들과 大學生들은 韓國統一問題가 第3世界의 第3 이데올로기의 빛 안에서 照明될 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第3世界가 韓國問題에 미치는 影響은 單純한 經濟發展과 成長을 통한 우리民族内部의 社會·經濟的 自立意志 뿐만이 아니라, 東西 이데올로기의 그 어느 편에도 從屬的으로 依存하지 않는 第3世界의 國際政治的 獨自路線을 追求하도록하며, 精神·文化的으로 現代 產業主義의 技術工學에서도 도구적으로 退化해버린 것과는 다른 우리 民族固有의 主体的 精神·文化를 再建하도록 한다. 이러한 社會·經濟, 政治, 精神·文化全般에 걸친 自主的이고 独立的인 路線을 우리는 第3 이데올로기<sup>23)</sup> 또는 新民族主義라고<sup>24)</sup> 부르고자 한다. 第3 이데올로기나 新民族主義의 빛 안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南北統一觀이나 統一理念에 對한 總體的인 自己批判과 檢討를 要求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兩極化된 南北韓을 同時에 批判的으로 넘어서게



한다. 그만큼, 오늘날 靑少年들은 兩極化된 南北韓의 政治·統一理想을 마음 속에서 부터 거부하고 있으며, 國民들도 또한 우리의 現實을 說明하는 오랜 兩面的 黑白論理의 이데올로기적 抑壓과 暴力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開放된 사고가 可能的 多值的 變證법적 論理로 解放되고 싶어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 世代와 國民의 統一問題에 對한 이러한 새로운 감각 ( New sensibility )은 政治的 現實이라는 狀況의 拘束力과 이러한 狀況을 正當化하는 이데올로기적 固定觀念 때문에 國民的 感情의 생생하게 산 要求를 強制的으로 抑壓해 왔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自然發生的인 民族的 感情이 繼續해서 兩極的 정치신화 속에서 抑壓당하느냐, 아니면 兩極化된 정치신화가 이러한 산민족적 感情에 依해서 粉碎되느냐라는 韓 國民族의 이데올로기에 일대 轉換期的 危機가 닥아오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남은 길은 이러한 民族的 感情을 統制할 수 있는 보다 더 強力한 이데올로기적 獨制體制를 強化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民族的 感情을 進歩的이고 發展的으로 克復하는 方向에서 解消할 수 있는 한걸음 前進한 開放的 體制로 轉換하느냐의 問題가, 앞으로의 統一觀을 包含한 統一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본다.

### Ⅲ. 統一問題의 中心素要의 批判的 解析

그렇다면 여기서는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問題를 둘러싸고 南北韓 間에 서로 比較할 수 있는 側面들을 批判的으로 解析해 보기로 한다.

北韓 靑少年들의 統一觀은 共產主義的 社會·經濟構造, 政治體制, 精神·文化理念 등의 틀 안에서, 金日成 維一思想으로 思想的 武裝을 하고, 武力暴力革命의 解放戰爭 方式을 통하여, 南朝鮮을 赤化統一한다는 것으로 要約된다.<sup>25)</sup> 그런데 이러한 統一觀의 形成은 知識社會學的으로 볼 때, 北韓의 共產主義的 社會·經濟構造, 政治體制, 精神·文化理念이라는 삶의 총체적인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學校教育過程을 통하여 아직도 어린 柔軟한 靑少年들을 共產主義的 理想論에 젖은 당파적 人間으로 鑄造해 낸다. 그들의 統一觀도 바로 이러한 鑄造過程에서 確固不動하게 주입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形成된 統一觀의 實態는 이미 우리 國土統一院의 繼續的인 研究課題들을 통하여 多角的으로 把握分析·評價·認識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省略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觀을 形成시키는 教育實態는 重點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우선, 教育目標는 우리 南韓에 비하여 교조적으로 固定되고, 圖式化되어 있다.<sup>26)</sup> 그것은 “社會主義建設에 必要한 人間을 養成”하는 데 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唯物史觀

에 기초한 思考方式으로 共産党的 窮極的 目的達成에 必要한 共産主義的 世界觀과 知的·肉体的 能力을 所有한 者를 養成하는 目的的"이 있다. 그리고 北韓은 教育의 基本口號로 "多方面的으로 發展된 새로운 型의 人間을 創造"하자고 내세우고 있으며, 多方面的으로 發展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多角度로 利用價值가 있는 한가지 이상의 專門知識과 技術 또는 能力을 所有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새로운 人間型이란 唯物史觀에 튼튼히 서서 '個人은 全體를 爲하여'라는 口號 밑에 共産黨을 爲해서는 個人의 모든 高貴한 것을 서슴치 않고 犧牲할 줄 알며 恒常 共産黨의 決定과 指示를 생각과 行動의 基準으로 삼고 生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目標은 레닌의 "生活에서 遊離되고 政治에서 遊離된 學校란 虛偽이며 偽善이다…… 教育은 이데올로기教育과 政治가 不可分的으로 統合"되어야 한다는 말에 가장 充實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教育政策을 보기로 한다.<sup>27)</sup> 北韓은 一般教育을 爲主로 하면서 그것에 基礎 技術教育과 思想教育을 配合하고, 教育과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을 全面的으로 發展된 새로운 型의 사람으로 準備시킨다. 知識習得을 爲한 一般教育만으로서는 後世들을 当面한 社會主義建設에 準備시킬 수 없어서, 現代的 技術을 習得시켜 共産主義社會에 쓸모있는 人間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經濟的 目的이 크게 作用하여 初級人力技術解決을 爲한 技術教育에 力點을 두어왔다. 그러나 1972年 부터는 思想

教育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그것은 北韓靑少年들이 이때까지 思想教育을 시켜왔음에도 不拘하고 (1)情緒教養과 文化一般에 對한 소양이 낮아 극단으로 나가는 조폭한 人間으로 成長되고 있다는 사실과, (2)出生以後 繼續하여 共產社會에서 生活하므로써 地主나 資本家에 對한 증오심은 교과서에서나 듣고 실감하지 못하여 階級意識이 흐려지고 있다는 事實과, (3)國際的 緊長緩化趨勢로 外國勢力에 對한 증오심이나 革命鬪爭의 가치인식에 對하여 頓化되어 간다는 事實에 立脚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教育은 나이 어릴 때부터 注入시키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하여 滿5歲의 幼稚院에서 부터 實施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政策下에서 北韓의 靑少年들은 모든 問題의 決定者를 自己自身으로 보지 않고 上部에서 決定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는 다만 追從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生覺하고 있다.

세째로, 教育體系는 一般教育體系와 特殊教育體系와 成人教育體系로 나누어지고 있다.<sup>28)</sup> 이러한 3次元의 教育體系를 通하여 幼稚院에서 最高學部에 까지 이르는 一般教育(15年間), 音樂·舞踊·造形·體育等の 特殊教育(8~10年間) 그리고 人民學校를 必하지 못한 成人들을 年齡의 制限없이 速成으로 가르치는 成人教育過程(2年間)이 있다.

네째로, 教育現況은 크게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으로 갈라서, 살펴볼 수 있다.<sup>29)</sup> 여기서 우리는 北韓靑少年들의 統一觀形成과 直接關係가 있다고 보는 側面들만 簡略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學校教育에서는 (1) 初等 및 中等教育에서 가르치는 教育內容이 問題라

고 본다. 教育內容은 ① 김일성 偶像, ② 社會主義 優越成 부식, ③ 階級意識 및 革命精神涵養, ④ 努力動員에의 誘導, ⑤ 反美·反日思想의 鼓吹等이라고 할 수 있다. (2) 高等教育에서는 ① 共產主義 理論에 基礎한 自然, 社會 및 思想發展의 合法則性을 가르치는 知能教育, ② 學生들로 하여금 共產黨에 忠誠心과 盲目的 態度를 갖게하는 思想教育, ③ 共產黨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體育教育, ④ 經濟建設에 이바지할 수 있는 技術教育等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서 特히 思想教育은 學生들로 하여금 共產黨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고 말하며, 行動하는 思考方式과 行動慣習으로 生活하게끔 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3) 學校에서의 團體生活을 들어야 할 것이다. 크게 나누면 少年團과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사로청)이 있다. 少年團(9~13세)은 人民學校 3學年에서 中學校 2學年까지에 該當한다. 少年團의 指導와 統制는 黨籍을 가진 黨員 가운데 特히 熱誠者를 골라서 郡(市)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이 選任한 者가 担当한다. 사로청(14~30세)은 中學校 3學年에서 大學生과 一般青年들로써 構成된다. 여기서도 ① 學生들에게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培養하고, ② 政治事業, 學習, 各種會議 其他 方法으로 學生들 속에 共產主義思想을 注入시키고, ③ 學生들의 規律狀態를 維持·強化하기 위한 統制를 가하고, ④ 各種 施設工事等 學生이 担当하는 勞力動員에서 主動力으로 組織·監督의 力割을 遂行하여 勞力을 統한 學生訓練에서 主体가 되며, ⑤ 學生들의 個人生活을 指導·統制한다. (4) 學生들의 社會主義義務勞動制가 있다. 이것은 學生들에게 勞動을

通하여 맹종심을 부식시키고, 共產主義의 세뇌공작을 하는 同時에 生産에 이바지 한다는 多目的을 가진 것이다. (5) 學生軍事訓練이 있다. 北韓의 學徒軍事訓練을 1948年 2月 8日 北韓共產軍 創黨日로부터 大學과 高級中學校에서 實施하게 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學徒軍事訓練은 勞農赤衛隊의 軍事的 편제를 그대로 採用하고 있으며, 學校全般에 關한 事項을 黨籍으로 統制하는데 寄與하고 있다. 그 다음, 社會教育에서는 成人教育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sup>30)</sup> 社會教育도 人格陶冶나 知識開發에 主眼點이 있는 것이 아니고, 金日成에게 盲從하고 勞動力搾取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것은 共產黨 中央委員會 선전선동부가 주관하며, 各種社會團體와 매스컴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北韓의 靑少年들을 빈틈없는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鑄造되게끔 教育을 받고 있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教育環境조차도 역시 共產主義的 教育體系 속에 組織·編入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教育過程 속에서 特히 北韓 靑少年들의 統一觀에 集中的인 影響을 주는 것이 思想教育인데, 이것은 一定한 變遷過程을 밟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31)</sup> 이를 테면, 愛國的 民主主義期(第1段階, 1945~1954), 階級 教養期(第2段階, 1954~1958), 共產主義 教養期(第3段階, 1958~1961), 唯一思想期(第4段階, 1961~오늘)가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을 爲한 思想教育은 金日成 唯一(主體)思想을 鼓吹하는 第4期의 精神的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이 의도하는

所謂 主体思想의 行動綱領은 ①政治·思想에서의 主体, ②經濟에서의 自立, ③国防에서의 自衛, ④外交에서의 自主라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sup>32)</sup> 오늘날 自由化물결의 世界趨勢속에서 이러한 唯一思想의 鼓吹는 北韓 靑少年들에게 일종의 思想的 要塞化体系를 構築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 偶像化 教養의 強調와 反復을 그 内容과 方法으로 하고 있다.<sup>33)</sup> 이렇게 볼때, 南韓의 精神教育이 多樣性과 開放性을 追求하는 데 비해서, 北韓은 오직 黨과 수령등의 單一性과 閉鎖性을 追求하고 있으며, 北韓 靑少年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 一般 住民들의 性格構造 조차도 集團指向 내지는 挑戰的 指向으로 形成·發展되어서, 結局에는 南韓에 對한 總괄적인 敵對感과 赤化統一意識으로 가득찬 結果가 되었다고 본다.<sup>34)</sup>

北韓 靑少年들의 이러한 思想教育은 學校의 團體生活을 통해서 다시 強調·反復되고 있고, 그 밖에 學生軍事訓練을 통하여 學校에 對한 黨的 統制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바와 같다. 이렇게 統制와 閉鎖 속에서 批判과 選擇없는 교조적 統一觀을 強制的으로 주입하는 教育環境과 그 안에서 형성된 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을 北韓의 社會·經濟, 政治·文化가 共產主義的 김일성 單一體制에 閉鎖되어있는 한은 그 存立이 可能하겠지만, 南韓과 같은 社會的 多樣性과 開放性에 接할 때는 그 單一性과 閉鎖性이 危機에 直面하게 된다. 그러므로 北韓의 劃一的인 閉鎖體制와 南韓의 多樣한 開放體制는 서로가 兩極的이며, 서로가 서로에 對해서 각기 強점이면서 동시에 弱点이다. 그래서 北韓의 體制가 統一問題를 오직 가

까운 将来에 戰爭方式으로 解決하려 할 때는, 그들의 長점이 有利하겠지만, 長期間에 걸친 平和的 方式으로 解決하려할 때는 그만큼 그들의 長점이 弱화되면서 相對的으로 無力하게 될 것이다. 北韓体制과 兩極的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南韓体制은 그런점에서 모두 北韓과는 정반대의 境遇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南韓은 어떻게 해서든지 戰爭方式을 막고 平和的 方式으로 統一問題를 解決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戰略과 戰術의 차이에서 南北은 각기 잠정적인 危機를 극복해 내어야 한다. 北韓은 南韓의 多樣성과 開放性을 바탕으로 하는 短期的 武力方式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南北韓의 統一問題는 그 밖의 体制外的 要素들의 相互複合作用에 依해서도 狀況變化가 일어난다. 東西이데올로기 狀況과 第3世界의 變化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는 南北韓 當국자들이 내세우는 統一論이 汎國民的이고 民族的인 輿論基盤 위에서 形成된 것이었을 境遇에는 問題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當局者 自身들이 政策的으로 내세우는 것일 경우, 그러한 當局者에 의한 政策的 統一論에 對해서 國民全體와 特히 未來世代로서의 靑少年 世代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問題가 있다. 統一論을 包含한 政策全般에 있어서 當局者가 國民全體로 부터 얼마만큼 信賴를 받고 있는가의 問題와 그들이 내세우는 統一論의 正當性 問題는 不可不의 比例關係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一致하지 않을 때, 統一論은 南北韓 當局의 각기 敵性的 性格을 國民의 政治的 의사를 彈壓하거나 歪曲하는 데 使用할



수 있는 充分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境遇, 南北韓 國民은 敵性國이 統一論을 包含한 이데올로기 全般을 肯定的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政策當局에 對한 不信을 表示하기 爲해서 統一論을 包含한 이데올로기問題를 이데올로기 批判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自己나라의 統一論과 이데올로기에 對한 이데올로기 批判은 公利敵行爲라는 黑白論理 때문에, 國民과 젊은 世代는 그 마음에 있어서 自己나라의 政策當局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런 事態는 北韓의 劃一的인 閉鎖體制에서 더욱 심각하겠고, 이보다는 多層的인 開放體制인 南韓에서는 훨씬 덜할 것이다. 閉鎖體制는 意思疎通을 抑壓하기 때문에 不滿을 內面化하고, 開放體制는 意思疎通을 開放하기 때문에 不滿을 밖으로 發散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第3世界가 韓國問題에 미치는 影響의 問題다. 第3世界의 新民族主義는 오늘날 韓國의 靑少年, 特히 現實에 민감하고 歷史意識이 강한 靑年學生들, 卽 輿論造成者들 (Opinion maker) 에게 강한 影響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集團活動에서의, 讀書內容, 讀書傾向 그리고 오늘날 韓國知識社會의 第3世界에 對한 認識이 現實政治에 對한 靑年學生들의 이데올로기 批判的 要求에 강한 影響을 주고 있다. 特히 第3世界의 이데올로기로서의 新民族主義의 肯定的인 側面이 강한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다.<sup>35)</sup> 그것은 社會·經濟的인 自立, 政治的 獨立 그리고 理念的인 獨自·自主路線의 追求라는 點에서 自己나라의 外

勢에의 依存이나 종속을 民族主義的으로 覺醒하기 시작한 發展途上 國家의 靑少年들과 젊은 知識人들에게 強한 說得力을 가지고 있다. 新民族主義의 이러한 肯定的인 側面의 追求는 同時에 이제까지 그것을 阻害해 왔던 不定的인 側面들에 對한 이데올로기批判을 同伴하기 때문에 先進工業·資本主義 國家들의 第3世界에 對한 社會·經濟, 政治, 文化的 지배와 여기에 對한 後進國들의 從屬의 諸問題가 새로운 世界史의 趨勢에 눈을 뜨기 시작한 第3世界 國家들의 이데올로기批判의 標的이 되고 있다.<sup>36)</sup> 오늘날 世界史의 이러한 趨勢는 韓半島 南北韓의 理念과 現實에도 直接 또는 間接으로 影響을 주고 있으며, 特히 韓國의 젊은 靑少年 世代의 韓國民族과 世界現實의 認識에 새로운 시각을 갖다주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새 現實認識의 態度和 觀點이 오늘날 韓國의 靑少年, 特히 靑年大學生들과 젊은 知識人들의 統一觀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적 中心概念은 民族主義(Nationalism)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現存하는 南北韓의 兩極的 現實에 對해서 總體的으로 批判的이면서 同時에 새로운 第3理念地平으로의 志向을 要求한다는 點에서, 思想의 自由가 北韓보다 開放되어 있는 南韓의 靑少年의 統一意識에 더 많은 影響을 주고 있으며, 이렇게 影響을 받는 靑少年들의 統一意識은 既存하는 統一理念에 對한 決定的인 새로운 變수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既存하는 統一理念과 심각한 갈등을 겪으리라는 點에서, 앞으로 統一觀을 둘러싼 지배체와 젊은 세대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緊長이 不可避하

고, 특히 南韓에 있어서 이러한 狀況을 더욱더 격화될 것이며, 이  
것이 問題의 核心이 될것이다. 이러한 問題性的 狀況을 展望하면  
서 새로운 統一觀 形成을 為한 몇가지 可能的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 IV. 새로운統一觀形成을 위한 理念的 提案

第3世界の 新民族主義가 가는 길에서 우리나라 南北韓의 未來世  
代인 靑少年의 統一觀이 照明을 받는다면, 第3世界の 이데올로기批  
判的 性格이 지니는 反美, 反資本, 反帝國主義라는 問題에서 우리南  
韓은 새로운 시련에 부딪치겠지만, 解放 以後 우리 南韓의 政治文  
化가 서방 自由民主主義의 世界圈에 編入되었던 만큼, 1945年 第  
2次 世界大戰 以後에 獨立한 新생 독립국가들 가운데서 美國이나  
서방先進國家들에게 植民地化되고 從屬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 韓國과는 그 식민지화의 歷史的 背  
景이 다르다. 말하자면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는 바로 이웃인 日  
本이었다는 점에서 서방先進國家들에게 지배된 나라들과는 背景을 달  
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民族의 歷史的 원수는 日本이기는 해  
도 결코 美國은 아니기 때문에, 서방先進國家들에게 억압받던 나라  
들의 反美主義가 우리나라의 第3世界的 이데올로기비판에 그대로 該  
당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東南亞의 先進工業國家로서 주변국  
가들을 식민지화한 日本은 그들의 資本으로써 暴力을 휘둘렀다.  
日本의 차관조건은 까다롭고, 이에 對해서 東南亞 國家들은 反發했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資本은 一方的으로 利益을 追求하는 論  
理와 性格을 가지고 있다.<sup>37)</sup> 그래서 우리 한반도 南北韓에 對  
해서 日本은 다같이 歷史적으로 우리를 식민지화한 제국주의국가지  
만, 남북이 분단된 이후 우리 南韓은 서방 自由·資本主義圈에 편

입되었기 때문에,北韓이 싫어하는 美国과 日本이 우리 南韓과는 다시 새로운 歷史的 關係로 들어갔다. 말하자면 友邦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이 北韓과 우리 南韓과의 國際政治的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南韓은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통한 福祉社會를 指向하는 積極的인 이데올로기적 方向을 취하므로써, 우리와는 歷史的 背景을 달리하는 反西方主義路線을 취하는 新民族주의적 도전에서 오는 內的 이데올로기 葛藤을 어느정도 克服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南韓의 統一理念은 보다 進歩的인 民族國家的 삶의 理念을 實現하므로써, 未來 南北韓 靑少年 世代의 이데올로기적 要求를 보다 총체적으로 吸收하고 승화할 수 있는 統一觀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은 곧 北韓의 共產主義的 閉鎖體制를 進歩的이고 開放的인 方向에서 우리 南韓이 挑戰的으로 克服하는 길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北韓의 共產主義的 閉鎖體制를 우리 南韓의 資本主義的 福祉社會體制가 挑戰的으로 克服할 수 있기 위한 몇가지 理念的 提案이 可能하리라고 보며, 特히 J. 몰트만의 “政治的 人間解放의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理念的 提案을 爲한 매우 豊富하고 適切한 指針을 얻을 수 있다. 38)

몰트만은 우리가 성취해야할 理想的인 삶의 條件을 방해하는 악조건을 죽음의 악순환으로서 把握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악순환을 말한다. 39)

(1) 經濟的인 삶의 次元에는 (가난의 惡循環)이 있다. 이것은

가난, 질병, 조기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搾取와 계급지배로 因하여 惹起된다. 가난의 惡循環은 모든 社會에 다 있고, 또한 先進産業國家와 後進 農業國家 및 初期의 植民主義 國家 사이에도 있다. 勞動과 生産의 經濟構造는 恒常 不公平하고 비동시적인 不當한 進歩를 惹起한다. 全体的으로 볼 때, 個人당 소득은 오르나 收益은 모든 사람에게 公平하게 分배되지는 않는다. 個別的 國民集團이나 全体國民集團에 對하여 가난, 勞動, 질병 및 搾取의 連鎖가 여기서 形成된다.

(2) 가난의 惡循環 속에는 同時에 政治的 次元에서 (暴力의 惡循環)이 있다. 個個의 社會에 있어서 그것은 獨재정치, 계급지배 및 特權지배를 通하여 存在한다. 그것은 強大國家와 弱小國家 간에도 있다. 제도화된 獨재정치는 反對勢力을 불러 일으킨다. 이리하여 人權은 抑壓되고, 그것은 다만 革命事態 속에서 主張될 수 있을 뿐이다. 獨재적인 무기경쟁의 (악마적인 規律적 순환)이 이보다 덜 위한것은 아니다. 어제까지는 軍事力이 平和를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平和를 위협할 것이다. 무기경쟁은 人類를 破滅로 몰아넣을 것이고, 相互 不信과 주도권에 對한 關心은 軍備로 하여금 全世界에 對한 치명적인 危脅이 될 것이다.

(3) 가난과 戰力의 惡循環 속에는 (人種的 文化的 소외의 惡循環)이 숨어 있다. 人間이 그의 同質性과 個性을 상실당하고 제도내에서 조종할 수 있는 要因으로 格下될 때, 그는 適應되며 지배할 수 있게된다. 그래서 그는 지배자들의 모습에 따라 주도된

다. 인간을 그의 인종적, 문화적 및 테크노크라시의 소외로부터 解放시키지 않고는 가난과 抑壓을 克服할 수 없다. 흔히 가난과 政治的 抑壓의 克服의 이러한 種類의 소외를 犠生한 댓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人間은 相對的이나마 자유 가운데서 산다. 그러나 人間은 本來 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는 테크노크라시의 거대한 機械의 감정없는 附屬品이 되어 버린다.

(4) 가난, 權力 및 소외의 惡循環은 오늘날 더 큰 惡循環, 즉(산업적인 자연파괴의 惡循環)과 結合되어 있다. 지각을 잃은 進歩 信仰은 産業化로 말미암아 自然의 均衡을 回復할 수 없도록 破壞하였다. 생태학적 危機의 惡循環에서는 産業革命의 위대한 꿈도 끝장이나고 만다. 自然環境의 破壞, 自然의 搾取는 모든 産業環境과 나머지의 地上的 삶을 폐허화할 것이다. 經濟的 價値의 一方的인 方向定立과 이전의 세대들이 메시아적인 정열과 함께 勞動, 機械, 利益 및 進歩에로 투입시켰던 자기해방에 대한 希望은 오늘날 人間的 自然的 構造를 삶의 方向定立에서 죽음의 方向정립으로 전복시켜 놓았다.

(5)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및 産業的 惡循環 속에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더 포괄적인 抑壓, 即 (무의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惡循環)이 숨어 있다. 미래는 어둡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망하고 목적상실의 病에 걸려버렸다. 未來의 충격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향락으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의 세계에서 平和를 찾으며, 어떤 사람들은 테러적 破滅을 선취한다. 무의미의 경

힘에서 무감정이 생기고, 그 무감정에서 흔히 무의식적인 죽음의 충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5가지의 惡循環이 서로 相互作用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보편적인 腐敗의 徵兆가 나타난다. 이러한 惡循環들은 相互結合된 構造로서 함께 作用하며, 이를 통하여 人間의 삶을 非人間性과 죽음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행동을 일면에 있어서 이 악마적인 영역의 位置를 밝혀야 하며, 다른 一面에 있어서 그들의 相互作用을 알아야 한다. 이 행동은 모든 생활을 抑圧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次元에서 동시에 작용을 해야한다. 40)

(1) (삶의 經濟的 次元)에서의 解放은 健康, 營養, 衣服 및 住宅에 對한 人間의 物質的인 欲求를 滿足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에는 社會의 모든 構成員들에게 滿足할만하고 正當한 勞動 生産物의 몫을 供給해 주는 社會定義가 속해 있다. 搾取와 階級支配로 因하여 가난의 惡循環이 일어나기 때문에, 社會정의는 오직 經濟的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서만 成就될 수 있다. 勞動에 對한 資本의 特權化는 가난의 惡循環을 強化한다. 이 가난의 惡循環은 經濟的인 共同決定과 生産者들을 통한 經濟的 能力의 統制를 통하여 克服될 수 있다. 가난한 者, 搾取當하는 者 및 弱한 者에게 社會正義를 가져다 주는 社會政策에 의해서만 (社會主義는 가난의 惡循環으로 부터의 人間의 解放에 對한 象徴)이 될 수 있다.

(2) (삶의 政治的 次元)에 있어서 抑壓의 惡循環으로 부터의 人



間의 解放은 이것을 넘어 民主主義를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는 政治的 責任을 받아들이는 人間의 尊嚴性을 意味한다. 여기에는 經濟的, 政治的 權力行使에 參與하고 또 이것을 統制하는 일이 講究 있다. 權力的 惡循環은 모든 個人에게 政治的인 責任을 떠맡기고 決定過程에 능동적으로 參與시킴으로써 克服된다. 그렇지 않으면 權力行使는 특정계급과 集團의 特權과 權力다툼으로 부터 自由로와 질 수 없을 것이다. 단지 평등하고 정당한 政治的 責任의 分擔을 통해서만 政治權力으로 부터의 人間의 소외와 그의 政治的 無감정이 克服될 수 있다. 民主的인 定義의 尺度로서 (보편적인 人權 선언)이 重要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妥當한 形式으로서 18, 19 세기의 市民革命으로 부터 由來했고, 그래서 補充될 必要가 있다. 民主主義는 人權을 한 國家의 市民들의 基本權으로 承認하는 것을 意味한다. 民主主義의 運動의 目標은 人間을 政治的 抑壓과 權利剝奪로 부터 解放시킴으로써 人間의 尊嚴性을 可能케 하고 實現시키는 것이다. 民主主義 運動이 權力支配를 剷除하고 政治的 人權의 確立을 意味할 때에만 (民主主義는 權力的 惡循環으로 부터의 人間의 解放에 對한 象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한 國家 內에서만 妥當한 것이 아니라, 軍事的인 危脅主義를 剷除하고 政治的 平和制度와 統制制度를 確立하기 爲하여 서로 競爭하는 國家들 間에도 妥當한 것이다.

(3) (삶의 文化的 次元)에서 人間을 소외의 惡循環으로 부터 解放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認定하는 同一性을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는 (人間的인 人間解放)을 意味하는 데, 이 解放을 通하여 人間은 다른 사람을 認定하며, 그들과 사귀는 가운데서 自己尊重과 自己信賴를 獲得한다. 실로 여기서 일어나는 鬪爭은 統合 혹은 同一性을 爲한 것이다. 人種的, 文化的 및 人格的 차이를 認定하는 것과 自身の 同一性에 對한 意識은 서로 結合되어 있다. 서로 다른 人間들이 불안과 교만함이 없이, 그리고 억눌린 罪責感도 없이 서로 만나고 그들의 차이를 生産的인 것으로 여기며 또 生産的으로 加工할 때만이 人間을 자기소외와 소외하게 만드는 교제로 부터 人間的으로 解放시키는 것이 可能하다. 解放이 社會化가운데서 人格化하는 것을 意味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認定하는 가운데서 同一性을 發見하는 것을 意味하는 한에서 (解放은 人間の 소외의 惡循環으로 부터의 解放에 對한 象徴)일 수 있다.

(4) (自然에 對한 社會의 關係)에 있어서 人間을 産業的인 自然破壞의 惡循環으로 부터 解放시키는 것은 自然과의 平和를 意味한다. 自然을 非人間的인 搾取로 부터 解放시키고 平和스럽게 만들지 않고서는 人間을 經濟的 貧困, 政治的 抑壓 및 人間的인 소외로 부터 解放시킬 수 없다.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태학적 危機로 부터 脫出할 수 있는 길은 오직 自然과의 關係에서 人間을 徹底히 變化시키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自然으로 부터의 自己解放과 搾取를 통한 自然支配의 모델은 自然과 人類의 생태학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勞動하는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는 主人과 從의 關係가 아니라, 서로 相對方을 留意하면서 合同

演奏하는 相互傳達의 關係다. 自然은 對象이 아니라 人間의 環境이며, 이 點에 있어서 그 自身の 平衡과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無感情的이며 敵對的인 自然支配는 自然環境에 對한 同情的인 關係로 代替되어야 한다. 人間의 支配領域에 있는 自然을 人間化하는 일은 人間이 同時에 (自然化)될 때만 自然을 人間化시킬 수 있게한다. 그러므로 生存을 爲한 鬪爭에서 人間이 自然으로부터 解放되어 온 오랜 過程이 지나고 이제는 <生存 內의 平和>를 爲해 自然이 非人間으로 부터 解放되는 국면이 등장해야 한다. 經濟的 生態學的 價值定立으로 부터 결별하고, 삶의 양의 증가로 부터 삶의 질의 評價로 變하며, 이와 더불어 自然의 所有로부터 떠나 自然 內에서 生存이 기쁨을 누리게 될때, 生態學的 危機가 克服될 수 있다. 이러한 한에서만 <自然과의 平和는 人間の 이 惡循環으로부터의 解放에 對한 象徴>일 수 있다.

(5) 삶의 의미에 對한 人間, 社會 및 自然의 關係에 있어서 解放이란 의미깊은 全體的인 것의 意味로 채워진 삶을 말한다.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및 產業的 惡循環에 依하여 抑壓받는 社會는 늘 <勇氣剝奪의 社會>다. 人格的, 大衆的 意識의 근저에는 當황과 絶望과 絶望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內的인 삶의 중독은 비참한 社會뿐만 아니라, 福祉社會에도 퍼져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經濟的 貧困, 政治的 抑壓, 文化的 소외 및 生態學的 危機의 克服을 통해서도 克復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領域과 次元으로 還元될 수도 없다. 의미의 危機는 多樣的 方法으로 成就되지 않

은 삶과 또 이미 成就된 삶을 抑圧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最上의 社会制度에도 이러한 상처는 있다. 이 상처는 오직 모든 事件과 삶의 關係에 있어서 意味의 現在를 통해서만 治癒될 수 있다. 경직되고 불합리한 삶을 초래하는 意味의 부재는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을 받은 狀態라고 할 수 있다. 反面 意味의 現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創造 안에 現存하시고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創造物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人間과 自然은 하나님의 充滿한 意味와 充滿한 可能性에 参与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自由와 노예가 된 自然의 解放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充滿히 居하실 때 完成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現存을 認識하게 될 때, 無와 모든 破壞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存在의 勇氣>를 얻게 된다. 地獄은 人間 앞에 있지 않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克服되었다. 그리하여 신앙은 위에서 言及한 惡循環 속에서 단호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必要한 것을 할 수 있는 勇氣를 준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범주들이 우리의 삶의 現實에서 具體적으로 實現될 때, 우리는 統一問題를 根本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地盤을 가지게 된다. 41) 問題를 이와같이 全体的이고 根本적으로 檢討하는 시각이 이데올로기비판적 方案의 強点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批判적으로 볼 때, 새로운 統一觀의 理念的 정초는 이미 한 당파의 政治的 次元을 넘어서 民族史的, 世界史的 次元에서와, 또한 人

間의 全体的이고, 日常的인 삶의 토대 위에서 摸索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人間的 삶에 있어서 全体性和 日常性은 우리가 真理라고 말하는 것이 자리잡는 지평이요, 또한 바로 그 自体的 性格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은 이미 앞에서 기성 세대의 統一觀과는 解釋學的인 循環構造關係에 있고, 靑少年 世代가 獨自的인 自己社會階層이라는 點에서는 그들의 統一觀이 다른 어떤 社會階層의 그것과도 결코 혼동될 수 없는 靑少年 世대의 獨自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며, 靑少年이라면 바로 장차 오고있는 未來의 統一後繼世代가 主体가 되어 있는 世代로서 앞으로의 한반도 統一問題를 가부간에 좌우할 주역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結局에는 北韓 靑少年을 우리 民族集團의 全体性和 日常性 속으로 還元시키지 않을 수 없고,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도 우리 民族 全体의 日常的인 統一觀으로 還元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 問題가 결코 단순한 現實政治學(Realpolitik)의 次元에만 머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民族의 全体性和 근원성이라는 哲學的이고 歷史的인 存在論의 課題로 까지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는 南北韓이 서로 갈라쳐야만 했던 存在論的 條件들이 오랜 民族史의 過程을 통해서 形成되었던 것처럼, 民族分斷의 克服도 또한 우리 民族의 全体的 삶의 現實的 지평으로서의 民族史의 展開過程을 통해서 이룩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우리 南北韓 靑少年의 統一觀 問題는 南北間의 單純한 意見의 차이가 아니라 民族의 歷史的 存在論의 問題요, 南北間

의 單純한 政治的 葛藤이 아니라 民族의 歷史的 삶으로서의 歷史  
哲學의 問題라고 보아야 한다.

- 註 1) M. Heidegger, Sein und Zeit, 10. Aufl., Tübingen 1963, 148ff.
- 2) G. Lichtheim, Das Konzept der Ideologie, Frankfurt am Main 1973, 7ff.
- 3) K. Lenk, Ideologie, 6. Aufl., Darmstadt 1973, 41ff.
- 4) Jan M. Broekman, Strukturalismus, München 1971, 11ff.
- 5) H. Seiffert,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stheorie, 4. Aufl., München 1972, 199ff.
- 6) K. Lenk, Ideologie, 124f.
- 7) 김상협, “共存時代와 한반도의 将来”, 国民倫理研究 第9号, 国民倫理研究会 1980, 207면이하.
- 8) 김상협, 위와 같은 글, 225면이하.
- 9) 김상협, 위와 같은 글, 226면.
- 10) 김상협, 위와 같은 글, 226면.
- 11) A. K. Uledow, Die Struktur des gesellschaftlichen Bewußtsein, Berlin 1972, 166ff.
- 12) 高等学校 統一教育 範圍에 관한 研究, 国土統一院 1970.  
統一教育 教授要綱(高級用), 国土統一院 1973.
- 13) 南北共同声明以後의 大学生의 統一 및 安保價值觀調查, 国土統一院 1973.  
6.23 선언 以後의 大学生의 統一 및 安保團의 問題点과 先導 方案, 国土統一院 1973.

- 北韓住民의 階層別 意識構造에 關한 分析, 国土統一院 1973.
- 大學生의 統一意識의 珍斷과 改善에 關한 研究, 国土統一院 1973.
- 北韓靑少年의 價值觀形成과 統一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 1973.
- 靑少年의 統一意識, 国土統一院 1975.
- 階層別 統一安保觀調查, 国土統一院 1974.
- 14) 民主統一(統一安保研修教材), 統一研修所 1976, 35면이하.
- 15) 科學的 統一理論 研究報告書, 国土統一院 1974.
- 科學的 統一理論研究, 国土統一院 1976.
- 16) 南北韓의 價值觀 차이와 南北統一問題, 国土統一院 1975.
- 南北韓 價值觀 比較, 国土統一院 1976.
- 南北韓 統一理念과 目標比較에 關한 研究, 国土統一院 1977.
- 17) 國民의 統一意識 계도에 關한 연구, 國土통일원 1977.
- 18) 위와 같은 책, 3面 이하.
- 19) 第3世界의 動向推移와 그것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 1977.
- 第3世界가 韓國問題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 1978.
- 依存理論과 第3世界의 社会變遷, 国土統一院 1979.
- 20) 이규호, 이데올로기의 정체, 서울 1978, 302面 이하.
- 21) 이규호, 위와 같은책, 307面 이하.
- 22) 이규호, 國民政治教育의 方向, 国土統一院 1980, 7面.



- 23) 황성모 (편), 第 3 의 이데올로기 (중판, 서울 1978)를 参照 하라.
- 24) 이규호, 이데올로기의 정체, 302 面 이하.
- 25) 民主統一 (統一安保研修教材)을 参照하라.
- 26) 위와 같은책, 225 面 이하.
- 27) 위와 같은책, 226 面 이하.
- 28) 위와 같은책, 227 面 이하.
- 29) 위와 같은책, 229 面 이하.
- 30) 위와 같은책, 237 面.
- 31) 위와 같은책, 237 面 이하.
- 32) 위와 같은책, 166 面.
- 33) 위와 같은책, 239 面.
- 34) 위와 같은책, 242 面 이하.
- 35) 이규호, 이데올로기의 정체, 302 面 이하.
- 36) 김학준의, 第 3 世界の 理解, 형성사 1979, 21 面 이하.  
찰스 L. 로버트슨 (김용기역), 第 3 世界出現의 國際的 背景, 태창문화사 1979, 236 面 이하.  
변형운/김대환편역, 第 3 世界の 經濟發展, 까치 1980, 94 面 이하.
- 염홍철 편저, 第 3 世界와 從屬理論, 한길사 1980, 131 面 이하.
- 37) 김학준의, 第 3 世界の 理解, 129 面 이하.

38) J. 몰트만(김균진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79, 322面 이하.

39) 몰트만, 위와 같은책, 335面 이하.

40) 몰트만, 위와 같은책, 338面 이하.

41) 장일조, 慾望과 充足의 變化体系, 3板(홍인문화사 1980)을 参照하라.

장일조, “새로운 금욕문화의 창조”, 주간조선 587, 1980년 5월 4일, 5面 이하.

## ABSTRACT

A comparison of the unification-view of the youth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 As a subject of the ideology-criticism -

Il Jo Jang

A lot of study has been done as the view of the unification of the youth both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from the analytical or comparative aspect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 propose to analyse and re-evaluate the issue from the view of the ideology-criticism.

The study on the ideology so far has been static, partial and more or less analytical, however I want to handle the problem from dynamic, comprehensive, and compositive aspect. We have to look at the issue on the view of the unification by the youth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from the aspect of totality, because it has to be understood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hat I meant by this ideology-criticism, I refer to this general approach.

From this methodological aspect we can draw a thesis that the view on the unification is not to be composed by itself, but rather it is a composite results from our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which intermittently co-relates the every life-situation.

There are various elements which influence the youth to form their view on the unification : first of all, there is the existing view of the older generation, secondly, the youth themselves acquire their own consciousness, and thirdly, there is an international situation which forces its imprint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various complex elements bear upon the minds of the youth in forming their view on the unification.

In the north, the closed system produces a communistic unification view through war : but in the south, open system entertains a peaceful democratic unification. Another element which sheds a great light on the youth of south is the new-nationalism. This new-nationalism is critical in the existing scheme of the unification held by both sides. It could develop a threatening force to the established system. Therefore there is a tendency among the youth who are prove to the new sensibility to attack the existing scheme of the unification view by the older generation. Here rises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and old generation.

From recent studies on the view of the unification by the

youths, we can notice several important aspects. First, the area and outline on the question of the unification has enlarged to cover to the area of political education of nation.

This means the education on the unification has to be understood through our total process and horizon of our life-situation.

Second, the question on the view of the unification of the youth is not a problem of the youth alone. It is a rather national issue. Therefore we should look at the question held by the you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undertakings.

Third, as the question on the view of the unification by the youth is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in general, so the ques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s is related to the perspective of third world. The third world ideology offers a new opening which their own resources and energy for the world caught in the polarization of opposing forces, these there may be offered an opening for the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se perspective, we can offer several op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view on the unification by the youth. First, one has to accomodate category of equal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in the fields of society and economics. This is the most forceful encounter against the communism, which tries to liberate people from vicious circle of poverty.

Second, a political democracy has to be realized. This will liberate people from the autocratic monopoly of power.

Third, openness to the world is to be accommodated in the area of national cultural spirit. This is a way to acquire a national identity.

Fourth, a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nature and humanity is to be sought. This is a way to liberate people from the industrial pollution.

I believe such a new world view is to a new direction to which our society is to be headed, therefore, I hope the youths could consider their view on the unification from these overall aspect and fundamental issues of the world order.

# 南北韓青少年的 社會化過程比較

研究執筆責任 金 忠 男

(略歷) 陸士 卒業

서울大學院 政治學科 卒業

美 미네소타州立大學 政治學 博士

現 陸士 政治學 副教授

## 1. 序 論

우리 民族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單一民族으로서 共通된 經驗下에서 高度로 同質的인 文化와 伝通을 形成하고 이를 繼承해 왔으나, 南北分断以來 南北韓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相互對立的인 이념을 로기와 生活方式을 採択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5年이 經過한 오늘날 南北韓에는 각기 異質的인 文化가 形成되고 있으며<sup>1)</sup> 따라서 그러한 社会文化的 環境속에서 成長하고 있는 南北韓 靑少年들의 特徵 또한 크게 對照的이다.

한 社会住民들의 社会的 性格 (Social Character)을 그들의 靑少年期 社会化의 結果로 볼 때, 南北韓 靑少年들의 社会化過程의 比較는 異質的인 南北韓社会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現在의 南北韓 靑少年들이 既成世代가 되어 南北韓 間에 對決하고 競争하며, 그리고 統一되었을때 그들이 어떻게 異質性을 克服하고 国家的 再統合을 이룩하느냐 하는 問題에 對한 어떤 示唆을 줄 수 있다고 본다.

二次大戰以來 韓國은 東西冷戰体制속에서 美国과 日本을 中心으로한 高度消費社会의 繼續的인 影響을 받아 왔으며 특히 60年來의 急速한 社会經濟的 發展과 결부되어 西方世界가 發展의 準拠가 되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變動에 가장 敏感하는 것이 靑少年層으로서 그들은 價值觀이나 生活樣式에서 하나의 世代 (generation)을 形成하여 個人的利己主義, 物質中心主義, 表現主義 등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西



政先進國에서도 이와같은 새로운 世代를 善導하기 위한 對策에 부심하고 있으며 韓國에 있어서 이 問題 또한 큰 關心의 대상이 되어왔다.

反面 北韓을 爲始한 共產國家들은 既存體制의 破壞위에 새로운 體制를 構築한다는 發想에서 새로운 人間型을 창출하기 위해서 國家의 努力을 기울여왔다. 北韓은 소위 「革命的 人間」을 創造하기 위하여 幼年期부터 家庭의 影響을 배제하면서 計劃되고 統制된 社會化過程을 通해서 靑少年層을 完全히 共產主義的으로 洗腦, 改造하여, 따라서 이들은 既成世代와는 전혀 다른 完全한 政治的 人間으로 鑄造하고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에 있어서 對照的인 社會化過程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제기시켜 준다. 첫째로 南北分斷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때 南北韓間에 異質化現象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둘째로 앞으로 豫見되는 非敵性共產國과의 交流는 韓國靑少年들의 이데올로기의 性向을 相對的으로 弱화시킬 可能性이 크며, 마지막으로 統一問題가 相當한 期間이 지나서 解決된다고 假定하면, 6.25 經驗이 없고 脫이데올로기의 思潮속에서 成長한 우리靑少年들이 既成世代가 되었을 때 그들이 民主·資本體制의 우월성에 對한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北韓사람들을 說得하고 이끌면서 우리體制를 固守하고 維持發展시킬 수 있는 相對的인 意志力과 能力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하는 問題를 檢討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sup>2)</sup> 盧在鳳教授가 지적하고 있듯이 6.25의 經驗을 모르는 우리靑少年들의 統一에 관

련된 問題를 단지 既成世代에서 「계승된 問題」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樂觀이다. 靑少年들에게 계승된 것은 觀念이지 體驗이 아니다. 따라서 觀念水準에 있어서는 勝共 내지 統一志向성이 圧倒的이면서도, 南北對決과 統一過程에서도 그들의 實在行動이 반드시 그 러할 것인가는 疑心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sup>3)</sup>

以上에서 提起된 바와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始作된 本研究는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韓의 社會化過程 比較를 위한 簡略한 理論的 考察을 통하여 研究方向을 設定한 後, 微視的 現象인 社會化가 進行되고 있는 巨視的 環境面에서 南北韓間의 차이를 살펴본 後, 그러한 巨視的 體制環境속에서 靑少年들의 行態發達에 影響을 주고 있는 社會化影響要素들을 比較한 後, 그와같이 각기 다른 環境과 經驗속에서 이루어진 社會化의 結果를 比較分析하고자 한다.<sup>4)</sup> 마지막으로 南北韓 社會化의 比較分析에서 導出될 수 있는 靑少年育成을 위한 政策代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北韓研究는 資料의 결핍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信憑性 때문에 그 한계가 크다. 特히 社會化와 같은 心理現象을 다루는 研究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西歐社會를 中心으로 一般化된 社會化의 接近方法을 北韓과 같은 閉鎖的 共產社會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制限이 없지 않다. 위와같은 本研究의 制約性 때문에 韓國靑少年의 社會化는 經驗的 資料가 提示되는 反面 北韓의 社會化에 대해서는 大部分 서술적인 二次資料를 利用하는 論理的 分析에 倚중하지 않을 수 없다.

## 2. 比較分析의 理論的 틀

人間은 社会化 ( Socialization ) 를 통해서 「人間다운 人間」 이 된다. 人間이 出生하면서부터 完全한 人間이 아니고, 社会속에서 個體와 他人들과의 繼續的인 相互作用을 통해서 自己形成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 社会化過程 ( Socialization process ) 이라고 한다. 不完全한 存在로 出生한 人間으로 하여금 그 社会의 正常的인 成員이 된다는 것은 그 社会에서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價值와 行動規範들을 習得하고 그 社会内에서 容納될 수 없는 價值와 行動양식을 抑制함으로써 그 社会의 必要에 應하게 되고 그 社会의 發展에 参与하고 이바지한다는 것이다.<sup>5)</sup>

既存의 社会化過程에 관한 研究들의 一般的 結論은 새로운 世代들이 그 社会의 文化를 繼承한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그와같은 一般論은 變動이 적은 社会에서는 世代間的 文化傳承 ( cultural transmission ) 으로 社会体制의 安定과 持續이 可能하나, 韓國과 같이 變動이 큰 社会에서는 個人들의 社会化結果가 既存文化를 受容하고 따라서 既存社会体制에 一体感を 느끼게 될 것인지 不確實하다.

이와같이 變動이 큰 社会에서 既存社会化理論의 限界를 保完하기 위하여 筆者가 社会化的 「合理的 選擇」 모델을 構成하려고 試圖한 바 있다.<sup>7)</sup> 여기에서 筆者는 社会化를 体系 ( system ) 의 立場에서 보지 않고 個人的 立場에서 接近하였으며, 여기서 社会化란 社会化者 ( socializee ) 가 人間 ( man ), 集團 ( group ), 그리고 社会 ( society )

에 대한 適切한 모델들에 대해 배우는 過程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만약 人間, 集團, 그리고 社會에 대한 서로 갈등 또는 모순되는 두개 이상의 모델중에서 選擇해야 하는 狀況에 直面할 경우, “合理的”(rational) 社會化者는 自信의 欲求와 삶의 目標를 더 잘 充足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을 選擇하여 배울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社會化者가 自身の 所屬集團(家庭, 故郷, 故國)이 準拋集團(學校, 他郷, 他國)보다 못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그는 所屬集團(membership group)의 價值觀과 行動樣式을 學習(즉 文化傳承)하게 될 것이다. 反面 準拋集團(reference group)이 所屬集團보다 越等하게 낫다고 느껴질 경우 그는 準拋集團의 價值觀과 行動樣式을 배우기 始作(즉 文化變動)할 것이다. 따라서 文化傳承的인 社會化結果는 그 成員들이 所屬集團에 대해 肯定的인 이미지 내지 關係를 가지게 될 可能性이 크나, 文化變動的인 社會化結果는 成員들이 所屬集團에 대해서 다소 否定的인 이미지 내지 關係를 나타낼 可能性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研究의 核心은 그 社會에서 주어질 수 있는 人間, 集團, 그리고 社會에 대한 모델중에서 어떤것이 대다수 靑少年들에게 훌륭한 것으로 인지되며, 그러한 모델들의 特徵을 學習하여 內面化하는데 있어서 社會化의 어떤 影響要素들이 더 重要하며, 社會化의 結果로 最高水準의 所屬集團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政府, 政策(regime), 政治共同體에 대해 어느정도 肯定的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南北韓간의 對決은 어디까지나 體制競爭이기때문에

이 體制에 對해서 어느정도 一體感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南北韓 社會化 比較의 주된 觀點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一般的인 社會化보다는 政治 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를 中心으로 考察할 必要가 큰 것이다. 그것은 一般的 社會化에서 比較的 滿足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窮極적으로 政治的 象徴體를 中心으로 結束되지 못할 때 體制競爭의 側面에서는 根本的인 問題를 提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言及된 바와같은 社會化의 概念下에서 南北韓間의 異質的 社會化를 比較함에 있어서 몇가지 比較의 觀點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첫번째 重要한 比較要素로 考慮되어야 할 것은 社會化의 巨視的 環境이 個人들에게 選擇possible한 複數의 모델들을 提供하느냐 아니면 選擇의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 社會가 다른 社會에 對해서 開放的이냐, 아니면 閉鎖的이냐의 問題이다. 따라서 對 外交流가 극히 制限되었던 다수의 傳統社會들과 오늘날의 共產社會는 大部分의 現代自由社會와 對照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重要한 比較의 觀點은 政治體系(political system)가 社會를 어느정도 統制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社會가 一元主義的 統制下에 있느냐 아니면 多元主義的 性格을 가졌느냐에 따라 社會化가 크게 影響을 받는다. 全體主義的 社會일수록 全體를 위하여 個人의 立場은 統制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狀이나, 自由民主的 社會에서는 原則적으로 個人意思를 尊重하며 극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個人立

場이 個個人들의 合意를 거쳐 自律的으로 規制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前者의 社会化는 意圖的 社会化 (purposive socialization) 내지 政治教化 (political indoctrination)의 性格이 支配的이나, 後者の 경우는 “自然스러운” 社会化 (natural socialization)로서 政治社会化는 極히 制限된 領域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감소되어야 할 것은 後者の 社会化에 있어서 個個人들의 既存文化受容이나 体制支持가 주어진 (taken for granted) 것이 아니고 社会化의 巨視的 狀況에 달렸다는 것이다.<sup>6)</sup>

셋째로 社会化의 段階를 初期社会化 (early socialization), 靑少年社会化 (adolescence socialization), 그리고 成年社会化 (adult socialization)로 区分해 볼 때, 어떤 体制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全生涯에 걸쳐서 連續性을 가지고 関心을 가지는가 하면 다른 体制에서는 주로 靑少年社会化에 関心을 기울이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社会化를 全生涯에 걸친 學習過程으로 볼 때, 初期社会化의 內容과 後期の 그것이 連續性 (continuity)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断絶的인냐의 問題도 重要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작스런 都市化가 이루어진 社會에서 傳統的인 村落에서 자라난 靑少年들이 都市로 移住하여 工場이나 会社와 같은 近代的 組織體에서 일할 때 社会化의 断絶性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넷째로 같은 時点에서 社会化機關들이 社会化者에게 서로 조화되는 모델들을 提供함으로써 學習에 있어서 相互補強 (mutual reinforcement)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서로 矛盾되고 葛藤되는

모델들을 提供함으로써 모델의 選擇과 學習에 障礙를 招來하게 되느냐 하는 社會化의 一貫性(consistency) 程度에 따라 社會化의 結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社會化過程의 比較에 있어서 다섯번째 主要觀點은 社會化의 結果로 個人들이 地域社會나 政治共同体에 얼마만큼 愛着心과 所屬感을 느끼며, 그 社會의 統治이데올로기인 政治體制(regime)를 어느정도 支持하며, 마지막으로 政治體制를 現實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政府와 그에 關聯된 機關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우리가 南北對決이라는 問題意識을 가지고 靑少年社會化를 研究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社會化의 結果, 大多數 國民들이 相對적으로 政府를 中心으로 結束된 힘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있다. 마지막으로 主要한 比較의 觀點은 社會化의 結果가 長期的으로 體系環境(systemic environment)의 變動에 따라 얼마만큼 適應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世界는 漸次 하나의 共同体로 變貌하고 있다. 만약 社會化가 閉鎖된 條件下에서 주어진 體制規範範圍內에서 이루어진다면 短期的으로 體制維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體制自体가 다소 變動되거나 아니면 國際적으로 開放政策을 취할 때, 個人들이 適應力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體制不安定의 原因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開放體制下에서 社會화된 사람들과의 競爭에서도 不利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社會化過程을 比較함에 있어서 社會化의 概念과 그 概念에 따른 主要한 比較의 觀點을 論理的으로 서술하여 南北韓社會化의 實狀에 對한 比較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3. 社會化的 巨視的 環境 比較

社會化 研究가 個人社會化過程에 있어서 家庭, 學校 등 社會化機關들의 影響만을 檢討함으로써 社會化的 影響要素를 제대로 理解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社會化機關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한 社會內에서 集團間的 社會化比較는 그 巨視的 環境을 考慮할 必要가 없으나 社會間的 比較에 있어서 環境要素間에 차이가 날수록 이것이 社會化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考察이 重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比較社會化的 性格을 띄고 있는 大部分의 非西歐社會들에 대한 社會化研究가 巨視的 環境이 社會化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分析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 그 限界라 할 수 있다. 이 研究에서 社會化的 巨視的 環境을 考察함에 있어서 그 社會가 처한 國際環境과 그 範圍안에서 社會化的 內容인 人間, 集團 및 社會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들을 提供하는 그 社會의 政治, 經濟, 社會 等 体制의 特性이 包含된다.”<sup>8)</sup>

南北韓 社會化的 거시적 環境比較에서 첫째로 重要的 것은 他國과의 文化交流程度의 差異이다. 共產國家들도 그들간에 그리고 自由國家들과 制限된 文化交流를 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閉鎖的이다. 北韓은 그 중에서 代表적인 閉鎖體制(closed system)로서 外部와의 接觸 또는 交流가 徹底하게 統制되고 있다. 또 中共과는 地理적으로 近接되어 있으나 東洋文化로서의 共通性때문에 中共의 影響은 적



은 편이며 그의 共產陣營의 中心은 東유럽이기 때문에 北韓의 對外  
接觸과 交流는 根本적으로 限界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中·蘇分爭  
이 本格화된 後 北韓의 對外交流는 더욱 制限을 받고 있다.

反面 韓國은 建國初부터 民主陣營의 一員으로서 활발한 對外交流를  
해왔고 특히 60年代이래 近代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外國의 知識과  
技術을 積極 導入하였고 그後 輸出主導型의 經濟體制는 對外交流의  
擴大를 促進했으며, 그외에도 文化, 教育, 觀光 等 諸分野에서 對外  
交流를 增大시키므로써 전형적인 開放體系 (open system)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서 外來文物의 直接的인 影響을 과도하게 받  
아서 從屬體系 (dependent system)의 性格도 없지 않다.

社會의 開放性 程度가 社會化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할 때, 閉鎖體  
系는 一般的으로 社會化者에게 選擇의 餘지가 없는 單一모형을 提供  
하나 開放體系에서는 國內外의 多様な 準拋모형 (reference model)  
을 提供함으로써 發展에의 動機를 불러일으키는 長點도 있으나 問題  
는 "合理的" 個人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集團들의 모형들을 배척하고  
外來모형들을 選擇함으로써 主體性危機 (identity crisis)가 나타나  
기 쉽다.<sup>9)</sup> 우리나라의 일부계층의 外製品選好, 外國語 學習熱, 外國  
憧憬, 그리고 移民붐은 이러한 問題의 한 面을 反映한다고 볼수 있  
다. 그러나 北韓의 閉鎖體制는 적어도 外形上으로 自体文化產物들이  
社會化에 주된 影響을 주고 있다고 본다.

둘째로 價值觀이나 行動樣式을 나타내는 文化體系 (cultural sys-  
tem)에 있어서 北韓의 一元主義 (monolithism)와 韓國의 多元主

義 ( pluralism ) 로 對照될 수 있다.<sup>10)</sup> 一元主義란 추상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적 이데올로기간의 統一性이 강조되며, 그것을 위해 單一領導體制로 짜여진 黨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의 해석이 独占된다. 그뿐만 아니라 黨은 社會內에 存在하는 모든 社會團體들을 統制함으로써 그들의 獨自的 權限이 있을 수 없고 全體의 目的達成을 위해서 個人과 團體의 責任과 義務도 劃一化되고 규제된다. 그러므로 北韓에 存在하는 社會團體란 黨의 外廓團體로서 모두가 政治的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主社會로서의 韓國의 多元主義란 절대적 또는 根本的인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없고 社會의 多樣한 下位文化 ( sub-cultures ) 들이 모여 全體的인 이데올로기의 方向이 設定될 수 있고 따라서 社會團體들은 獨自的인 立場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實的인 韓國의 文化體系는 傳統的 儒敎文化, 外來文化的 要素, 그리고 統治엘리트가 강조하는 價值體系가 서로 얽힌, 混合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파슨스의 싸이버네틱統制 ( cybernetic control ) 의 觀點에서 볼때 共產體制下에서는 政治體系가 社會經濟的 體系들을 規制함으로써 社會化過程의 政治的 統制는 必然的이며 따라서 社會化의 結果를 體制支持로 유도할 수 있으나, 民主體制的 原理는 社會經濟體制가 政治를 規制함으로써 적어도 理論的으로 볼 때, 社會化의 大部分은 政治統制의 範圍밖에서 일어나며 이와같이 自然發生的인 社會化의 結果가 政治體系가 기대하는 것과 일치할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

다음으로 南北韓에서 個人과 國家(즉 政治體系)와의 連鎖關係形成에 있어서 對照的이다. 北韓의 경우 이데올로기面에서 個人이 黨이나 政治體系와 一體感을 느낄 때 經濟的, 社會的 一體感은 부수적으로 해결되며 따라서 언제나 個人과 國家間의 높은 連鎖關係를 보장한다. 韓國의 경우 政治的 民主主義, 經濟的 資本主義, 그리고 傳統的 價值觀과 社會構造를 포괄하고 있는 社會體系가 論理的으로 조화된 이데올로기와 規範體系를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個人이 經濟社會的으로 가지게 되는 動機와 政治的으로 社會政治的 活動에 參與하고 기여하려는 動機가 서로 높은 關連性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北韓靑少年은 黨에 忠誠할 때 어느정도 經濟的 補償과 社會的 地位가 보장되나, 韓國靑少年의 個人의 利害關係가 國家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不一致를 發見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南北韓 社會化의 거시적 環境을 綜合해 볼 때, 北韓은 다른 共產國家들과 마찬가지로 閉鎖的 全體主義體系(totalitarian system)를 構築하여 既存文化體系의 徹저한 破壞위에 體制盲從的인 人間을 養成할 수 있는 環境을 구비하고 있다.

反面 韓國은 지난 35年間 冷戰體制의 틀속에서 美國과 日本을 中心으로한 民主·資本主義의 影響圈에 속하여 西歐的 理念과 制度가 個人, 集團 및 社會의 發展目標가 되었고 그것은 곧 社會化의 準拋모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수천년간 傳承되어온 韓國

的 理念과 制度의 위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問題는 西歐的인 것과 韓国的인 것간의 相互 對立 또는 矛盾關係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채 二重的 社會化 모델들이 靑少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sup>11)</sup> 이에 따라 個人과 國家間的 肯定的인 連鎖關係形成에 있어서 우려할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 4. 社會化의 影響要素 比較

社會化者는 日常生活을 통해서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相互作用하는 多樣한 社會集團을 통해서 影響을 받는다. 그러한 社會化機關으로서 家庭, 學校, 宗教集團, 同僚集團, 매스 미디어, 政黨, 그리고 各種 文化社會團體등이 있다.

一般的으로 가정은 어떤 社會에서나 가장 중요한 原初集團 이며 따라서 그 社會化機能도 또한 重要하다. 人間은 家庭에서 出生하고 그곳에서 養育되며 成長한다. 家庭은 靑少年의 性格形成과 家族價值觀의 傳承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또한 家庭에서 처음으로 權威(authority)에 대한 尊敬과 服從의 態度를 배우게 되며 그것이 장차 社會的 權威와 法規에 따르는 根源이 되는 것이다.

傳統的으로 儒敎理念이 支配的이었던 韓國社會는 社會化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社會化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은 西歐社會의 경우 一般的으로 重要的 것으로 나타났으나, 急速히 近代化되고 있는 韓國에서 傳統的 特性을 지닌 가정의 역할은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靑少年들은 家庭以外의 社會化機關들을 통하여 보다 近代化된 規範體系를 接觸하게 되었으나 傳統的 社會에서 成長한 父母들은 子女를 自律的이 아니고 父母의 權威와 既存의 社會規範에 服從케 하려는 權威主義的 敎育方式을 使用함으로써 他社會에 비하여 靑少年들의 家庭에 對한 滿足度가 낮고 父母와의 意見衝突의 程度가 높은 편이다.<sup>13)</sup>

그러한 北韓의 경우 家族制度를 封建的이며 共產主義理念에 어긋난다고 보고 生産의 集團化와 住宅의 集團化를 통하여 상호감시체제를 마련하여 傳統的 家族觀念抹消에 주력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社會化에 있어서 가정의 기능을 弱화 내지 마비시켜 원만하고 理性的인 性格이 발달되지 못하고 고독하고 不安하며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sup>14)</sup>

學校의 社會化機能은 現代社會에 와서 더욱 重要해졌다. 오늘날 거의 모든 社會에서 靑少年들이 가장 많은 時間을 學校에서 보내며 또 學校에서의 學習內容도 社會生活이나 職業에 관련된 價值들을 傳承하는 것이다. 가정과 같은 原初集團에서 習得된 것은 계마인샤프트적인 性格을 나타내나, 학교에서 처음으로 公式的, 合理的, 非情意的 계절샤프트規範을 習得하기 始作한다.

南北韓이 모두 傳統的 文化體系에서 離脫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學校는 새로운 社會化모델들을 紹介하는 수단으로 重要해진다.

北韓의 경우 社會化過程에 있어서 家庭의 役割을 弱화시키면서 그 社會化機能이 託兒所, 幼稚園, 學校 및 黨의 外廓集團에게 分担된다.<sup>15)</sup> 그러나 學校의 機能이 一般的인 社會化라기보다는 政治教育이 주된 機能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59年 北韓 教育文化相이 學生들을 「黨과 革命을 위해서는 불가운데 불가운데를 가리지 않는 열렬한 鬪士로서 養成하는 學校事業에서 第一次的 課題」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學校의 重要性을 알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레닌의 「生活에서 遊離된, 또 政治에서 遊離된 學校-그것은 虛偽이며 偽善이다」라는 말이 北韓教育의 座右銘이 되었다. 그들은 初期社會化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學校는 물론 幼稚園, 託兒所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가 教育의 核心이 됨으로써 모든 學校는 公式的 政治教育手段이 되었고 그 結果 體制安定에 중요한 個人·國家間의 肯定的 連鎖關係形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北韓教育의 社會化的 效果는 이데올로기적 內容에만 根拠하는 것이 아니라 革命傳統敎養의 강조, 革命戰跡地 답사, 노동현장의 實習 등 理論과 實際의 緊密한 結合, 成功的인 人間像이나 現實的인 英雄들을 社會化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同一視(identification) 효과의 기대, 體制面에서 肯定的 모델(共産社會)과 否定的 모델(民主社會)의 對照, 反復學習과 暗記, 그리고 學習內容의 實踐 등 그들 나름대로의 세련된 教育方針을 使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蘇聯의 「集團主義教育原理」를 모방하여 教育方法의 主要原理로서 集團의 原理, 競爭의 原理, 賞罰의 原理, 相互監視와 比判의 原理, 自制의 原理 등을 강조하여 下向的이고, 機械的이며, 非主體的 教育方法에 依存하고 있다.<sup>17)</sup> 또한 教育雰圍氣에서 嚴格한 規律遵守와 教師의 權威에 대한 尊敬과 服從등을 통하여 將次 社會政治的 法規와 權威에 대한 服從을 習慣化시키고 있다.

韓國의 경우 社會化에 있어서 學校의 役割은 一般的으로 크며 中産層以下의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sup>18)</sup> 韓國의 教育目的은 弘益 人間의 理念아래 人格完成, 自主的 生活能力, 公民으로서의 資質 등

을 갖추어 民主國家發展과 人類의 理想實現에 기여하는 「民主主義의 人間」을 形成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教育의 內容과 方法은 自由로운 學文의 發達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지식이나 價值觀을 注入하는 것보다는 學生이 學習活動에 스스로 參與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것은 教育의 一般原則일 뿐이고 그것이 具體적으로 어떻게 實行되고 있느냐 하는 問題를 냉철히 省察할 必要가 있다. 첫째로 教育理念面에서 우리體制의 基本理念인 民主主義와 資本主義, 그리고 이에 相對的인 共產主義에 對한 明確한 教育指針이 결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教育內容은 美國과 日本 등에서 影響을 받아 추상적인 理論紹介가 많은 편이고 韓國現 實과 結合시키는 段階까지는 이르지 못한 實情이다. 특히 南北對 決的 側面에서 중요한 政治社會化의 立場에서 볼 때 지난 30 餘 年間 國民倫理教育이 강조되어 왔으나 그것이 추상적 規範들의 注入 내지 政府支持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며, 民主主義나 資本主義를 포괄하는 政體支持 (regime support)와 政治共同體 (political community)에 對한 所屬感을 불러 일으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教育을 많이 받을수록 政治共同體와 政府에 對한 支持度가 떨어지고 外來的 要素들에 對한 選好와 外國憧憬의 정도 가 相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靑少年들이 自由스러운 분위기하에서 個性發達은 北韓靑少年에 比하여 壓倒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判斷되나, 가장 큰 問題는 個人



들의 日常生活의 터전인 地域社会에 關聯된 公共倫理 (public ethics) 教育이 等한시되어 結果적으로 個人과 國家間的 堅실한 連鎖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地域社会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支持하지 않으며 參與하지 않으면서 心理的 空間的으로 먼 거리에 있는 國家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지지하며 參與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學校의 教育雰圀氣는 紹介되고 있는 西歐的 理念과는 달리 儒教的 傳統과 日本式 訓育方式이 支配的이어서 教師·學生間的 關係는 權威主義的이다. 그렇다고 해서 學生들이 教師들의 權威를 認定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자간에 상당한 갈등요인이 내재되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韓國學校教育의 質은 全般的으로 不滿足한 狀態로 評價되어 靑少年들의 學校生活滿足度는 41%에 지나지 않는다. 學生들이 政府에 대한 持續的인 批判集團이 되어 온 다른 여러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學校教育이 個人·國家間에 否定的 連鎖 (negative linkage)를 가져온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sup>19)</sup>

南北韓 社會化의 影響要素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家庭과 學校 이외의 其他社會化機關들의 役割이 가장 對照的이다.

韓國의 경우 同僚集團, 宗教集團, 靑少年團體, 매스 미디어 등은 政府에 의한 통제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社會化者가 相當한정도로 自律的 選擇이 可能하다.

이러한 機關들은 友情, 教養, 娛樂, 消費行爲 등 社會化者의 現實的인 問題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서 社會化에 끼치는 影響은

크다고 볼 수 있다. 健全한 青少年育成이라는 一般의 理念아래 韓國 青少年 團體 協議會에 加入된 團體는 1979年 現在 25個로 會員 數는 182萬에 이르고 있다.<sup>20)</sup> 이 중 相當數의 青少年들이 몇개의 團體에 同時加入되어 있음을 考慮할 때 15~24세 青少年 人口를 約 800萬으로 볼 때 大략 15%의 青少年들이 團體에 加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青少年社會化의 立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其他 社會化機關들이 바람직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政府機關들의 統制範圍밖에 있거나 또는 소극적 統制 밖에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學校를 떠난 400萬의 勤勞青少年이나 相當數의 無職青少年들의 경우 其他社會化機關의 影響은 絶對的이다<sup>22)</sup> 더구나 텔레비전, 映畫, 雜誌 등은 그들의 商業主義的 低質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21)</sup>

이와같은 現狀下에서 青少年들은 家庭이나 學校에서 學習된 社會化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모방할 可能性이 크며 그러한 現象에 대한 規範的 制裁手段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大部分의 매스 미디어와 文化團體들을 外來모델들을 소개하고 있고 同僚集團, 教會, 青少年團體 등은 다소 民主的인 規範과 行動樣式을 가르쳐 줌으로써 家庭 및 學校의 權威主義的인 教育方式과 連續性과 一貫性이 결여되고 있다.

반면 北韓의 경우 自律的으로 選擇할 수 있는 同僚集團이나 宗教集團은 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青少年團體나 言論文化組織도 共產

党的 直接的인 統制를 받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党的 外廓团体로서 明白한 政治社会化機關들이다. 9~13歲의 少年은 「少年團」 14~27歲青年은 「社勞青」에 義務的으로 加入되어 組織生活을 通해 思想教育을 받는다. 北韓에 存在하는 欲求마저 統制하고 있기 때문에 이 团体들은 初期社会化에서 習得된 價格規範을 強化(reinforcement) 하며, 추상적으로 學習한 것을 試驗해 볼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 남은 規範으로 社会化된 成年들에게는 再社会化(re-socialization)의 役割을 한다. 이와같이 自由民主國家의 勞動組合, 協同組合, 青少年团体, 婦女团体 등 自發的 結社체가 北韓에서는 國家組織속에 흡수되어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길러내는 手段이 되고 있다.<sup>23)</sup>

北韓 青少年들의 政治教化에 있어서 學校와 青少年团体 以外에도 매스 미디어와 文化团体들의 役割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共產社會의 매스컴은 集團的 宣傳者이며, 集團的 煽動者일 뿐만 아니라 集團的 組織者로서 政治思想的 武器, 思想教化的 道具로서의 役割을 担当한다고 보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모든 매스 미디어를 國家가 独占하고 이를 統制한다. 매스컴의 独占은 體制維持에 해로운 情報을 차단하고 體制維持와 住民統制에 이로운 情報을 操作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 그들의 매스컴은 共產體制를 讚揚하는 肯定的 主題(positive themes)와 民主體制를 非難하는 否定的 主題(negative themes)를 동시에 提供함으로써 體制에 대한 支持를 강화하고 있다. 北韓의 雜誌와 文學藝術도 어

더까지나 思想教育의 重要한 手段으로 活用하고 있다.

요컨대 韓國의 社會化影響要素들간의 連續性和 一貫성을 考察해 볼 때 時空에 걸쳐서 서로 모순갈등되는 多樣한 모델들이 提供되어 아노미적 現狀이 다소 나타나는 反面 北韓의 境遇 모든 社會化機關들이 거의 完全하게 共産黨의 統制下에 있어서 社會化過程의 連續性和 一貫성이 比較的 높아서 黨이 目標로 하는 體制維持에 寄與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社會化의 높은 連續性和 一貫성은 곧 理論과 實際間의 適切한 連結이 可能하다고 보나 韓國의 境遇 兩者間에 相當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을 解消하는 것이 하나의 重要한 課題라고 본다.<sup>24)</sup>

## 5. 社會化的 結果 比較

社會化的 巨視的 環境속에서 社會化機關들의 影響을 받고 어떤 人間像이 실제로 길러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가장 重要的 관심사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結果에 對한 評價基準인데 筆者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南北韓 社會問題로서 靑少年問題가 아니고 南北對決과 競爭을 意識한 政治問題로서의 靑少年問題이며 따라서 一般的 社會化的 觀点보다는 政治社會化가 그 核心이 된다고 본다. 그와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먼저 南北韓의 “바람직한” 人間像과 人生觀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個人과 所屬集團, 地域社會, 그리고 國家間에 어느정도 肯定的 連鎖關係를 形成하고 있느냐 하는 問題를 중심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韓國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人間像은 國民教育憲章에 公式적으로 表現되어 있으나 成人들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依하면 誠實, 勤勉, 創意性, 自立精神, 開拓精神 등 個人에 關聯된 德目과 協同心, 民族的 矜持, 愛國心, 國家觀 等 주로 國家的 次元의 價值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靑少年 自身들이 選扞한 德目에서 볼 때도 誠實, 孝道, 뚜렷한 삶의 目標 等 個人的 次元의 價值와 民族的 矜持, 愛國心, 國家觀 等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妥協, 奉仕, 秩序 信義, 遵法精神, 隣保精神 等 市民倫理 또는 우리의 體制理念인 民主·資本主義를 維持하는데 必要的 德目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sup>25)</sup>

北韓의 模範的인 人間像이란 이른바 「社會主義教育學」에 明示되

어 있듯이 첫째는 共產主義思想을 맹종하는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둘째는 思想에 따라 實踐하는 「全人民의 革命化」, 그리고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勞動에 全念케 하려는 「全人民의 勞動階級化」를 내세우고 있다.<sup>26)</sup> 특히 金日成이 靑少年들에게 強調하고 있는 項目들을 보면 學校生活과 少年團生活에서 模範이 되고, 社會主義制度를 사랑하고 國家와 社會의 財産을 愛護하고,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힘쓰는 集團主義 精神을 가지고, 勞動을 사랑하며 社會主義建設에 參與하고, 社會政治活動을 잘하며, 革命의 원수를 증오하고 革命과 統一을 위하여 積極 鬪爭하며 國際的 親善을 強化해야 한다는 등이다.<sup>27)</sup> 따라서 北韓에서는 적어도 公式的으로는 靑少年들이 「黨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는 人間」,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犧牲하는 人間」으로 만들려 하며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는 徹底히 背激한다. 南北韓 靑少年의 人生觀을 비교해 볼때 嚴格히 말해서 北韓의 경우 個人的 人生觀이란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價値는 組織 또는 黨의 目標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이다. 反面 韓國靑少年의 人生觀은 誠實, 創意, 自立精神을 바탕으로 한 成就動機 乃至 地位上昇欲求가 變化와 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으나 個人主義, 利己主義, 現實主義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고 極斷的인 競争意識에서 오는 問題 또한 없지않다. 요컨대 北韓의 境遇 個人的 立場이 너무 無視되는 弱點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個人과 集團 내지 社會의 利害關係의 조화점을 찾는 問題가 重要하다고 본다.

그러나 社会化의 結果로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個人이 日常生活과 直接 또는 間接으로 接觸하게되는 주위의 他人, 集團 및 地域社会와 의 倫理를 나타내는 信賴, 協同, 妥協, 遵法, 秩序, 隣保精神等이다. 北韓의 靑少年들은 徹底하게 계획되고 統制된 社会化体系속에서 生活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外面上으로는 所屬集團과 地域社会의 規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北韓의 教師들의 보잘것없는 社会的 地位와 党的 手段으로 充實해야 하는 처지는 學生들에게 内心으로 결코 存敬의 對象이 될 수 없다. 나아가서 上級學校進學이나 職場配置도 出身性分과 思想性에 의해 左右되기 때문에 住民의 70%에 該當하는 半信半疑 내지 變節可能 그룹의 子女들은 体制에 過剩同調하거나 아니면 現實的 処地에 不滿을 품고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二重三重的 감시당때문에 勞動者들이 組織的, 集團的 反抗運動은 못하지만 共同財産의 浪費, 不徹底한 管理, 怠業, 汚職事件 等 음성적인 反抗運動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階層은 소수에 屬하며 体制安定을 危脅할 程度라고 볼 수는 없다.<sup>28)</sup>

對照的으로 韓國靑少年들은 他人不信傾向이 높고 學校나 故郷에 대한 愛着心이 낮은 편이고 社会全般에 對한 不滿足度가 높은 편이며 나아가서 地域社会의 政治的 權威의 象徵인 公務員과 經濟的 權威의 象徵인 企業人에 對한 信賴度 또한 아주 낮은 편이다.<sup>29)</sup> 이것은 韓國社会化 또는 政治社会化의 가장 큰 問題点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問題이다. 이에 對한 分析은 여러가치로 할 수 있겠으나 社会化研究의 觀点에서 볼 때 우리社会가 儒教的 政治秩序에서 民主的 制度로

또 村落型 農業社会에서 都市型 資本主義 産業社会로 急變 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理解하고 이에 따라 適応할 수 있는 現實的이고 實踐的인 市民教育을 소홀히 한데서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個人과 国家와의 連鎖關係는 곧 個人이 政府(political authorities), 政体(regime), 그리고 政治共同体(political Community)에 대해 支持하거나 一体感を 느끼며 愛着心を 가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東政共產國의 靑少年들의 自由化물결과는 对照的으로 北韓에 있어서 嚴格한 對外的 閉鎖性和 對內的 統制는 東政에 비해서 北韓靑少年들의 体制에 대한 支持度가 平均的으로 높은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sup>30)</sup> 그들은 金日成偶像化를 통해 政府에 대한 支持를 增大시키고 体制이데올로기(regime values)에 대한 教育이 核心이 됨으로써 政体에 對한 一体感和 支持度를 높이며 民族主体性和 反日反美口號를 強調함으로써 政治共同体에 대한 自負心和 所屬感을 增大시키려 한다. 더구나 그들은 靑少年들로 하여금 積極的인 政治活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理論과 實際間의 연관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韓國의 경우 靑少年을 包含한 市民一般의 경우 政府機關 및 政治共同体에 對한 態度가 一般的으로 否定的이며 이것은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政治共同体에 대한 意識은 民族意識에 있어서는 肯定的이나, 歷史, 文化, 愛國心은 낮은 편이다.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政体에 對한 支持度로서 一般的으로 民主理念에 對한 支持는 높으나 民主的 過程에 關聯된 輿論, 選舉, 利益集團, 政黨 等



에 대한 態度는 회의적이거나 否定的이다. 北韓靑少年들과는 對照的으로 靑少年이 比較的 政治現實과 격리되고 政治的 中立이 強調되었기 때문에 政治參與傾向도 낮은 편이다.<sup>31)</sup> 또한 現實的으로 經濟成長을 위한 政府의 支援은 政治와 經濟의 密着으로 誤認되고 그것이 「先成長 後分配」에서 오는 富의 不均衡은 國民的 統合의 契機를 마련하는데 하나의 否定的 要因이 되었으며 靑少年들의 經濟人들에 대한 不信感은 곧 그들을 支援하는 政府에 대한 不信感으로 轉換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구나 政治的 葛藤에서 治安維持가 때로는 軍警이 一部市民과 對立되는 面이 없지않아 南北對決을 위한 求心點形成을 弱화시킬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상에서 比較된 南北韓 社會化의 結果를 통해서 볼 때 韓國社會가 너무도 否定的으로 分析된 面이 없지 않다. 그러나 西歐에서도 靑少年問題가 새로운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發展途上國에서 共通的으로 當面된 問題이기도 하다. 事實上 韓國과 같은 自由社會에서는 個人의 社會化結果가 國家社會의 必要와 언제나 調化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相互調整하는 과정에서 變動과 發展의 契機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競爭에서 韓國이 圧倒的으로 優勢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人間養成에서도 北韓을 圧倒하고 있다는 証拠라고 본다.

다른 한편 北韓에서 人民들이 政治에 對한 規制力도 없고 政治意識도 發達되지 않았으며 集團的 恐怖雰圍氣下에서 盲目的 順從을 바탕으로 한, 外形的으로 나타나는 體制에 대한 支持와 一體感은 疑心

할 여지가 큰 것이다. 一元主義体制의 脆弱性은 合理的 選扨의 機會를 부여하지 않으므로써 急變하는 狀況에 對處할 수 있는 彈力性과 適應力을 박탈해버리는 弱點을 가지고 있다. 그와같이 條件反射的 反應으로 形成된 全體主義的 政治定向이 外部의 충격에 의해 쉽게 瓦解된 歷史的 實例를 나치즘의 崩壞에서 찾을 수 있다.

北韓靑少年들이 体制不滿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面에서 發見할 수 있다.<sup>32)</sup> 相當數의 靑은이들이 出身成分으로 前途가 막혀 있다는 絶望感에서 오는 不評不滿, 非科學的이며 非論理的이고 의곡된 歷史敎育과 터무니없는 金日成偶像化에 對한 회의, 組織의 嚴格한 規律生活에서 야기되는 不評不滿, 黨幹部들의 獨善과 囂포에 對한 不評不滿, 社勞靑과 共產黨이 主張하는 幻想的 理想에 비하여 그들의 生活實態가 너무도 落望的인데서 오는 좌절, 그리고 閉鎖된 社會에서 살며 敎育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自由世界에 對한 호기심 등이 그 原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体制盲從的인 人間은 短期的으로 黨의 目標達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國際交流가 높아지고 있는 現代世界에서 큰 問題로 登場될 可能性이 크다. 이미 中共은 相當한 程度로 開放体制로 轉換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北韓도 다소 開放的으로 나갈 때 北韓住民들도 共產圈에서 漸高되고 있는 自由化 물결에 쉽게 휩쓸려 黨에 對한 反撥勢力으로 突變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結論的으로 強調하고자하는 것은 相對的으로 볼 때 北韓의 社會化結果를 過小評價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靑少年들의 社

會化는 自他가. 認定하듯이 問題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北韓은 社會化問題를 體制維持의 核心的 課題로 다루어 온 反面, 우리는 相當한 程度로 “自然的” 過程으로 看做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體制불만증을 해소할 수 있는 統制手段을 발달시켰으나 우리는 10.26 事態以後 個人과 國家間의 連鎖關係를 根本적으로 再檢討하고 보다合理的 社會化手段을 發展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 6. 韓國靑少年 社會化를 위한 政策代案

最近 半世紀에 걸친 온갖 試練에도 不拘하고 韓國國民들은 이것들을 成功的으로 克服하였고 60年代以來로 諸般條件의 貧弱함에도 不拘하고 國家發展面에서 發展途上國들의 模範이 되었고 南北韓間의 發展競爭에서도 韓國이 圧倒的으로 優勢한 것은 明白한 것이다. 그와 같은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온 原因中에는 勿論 成功的인 社會化도 包含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現在의 位置에서 先進國으로 飛躍할 수 있어야 하며 發展의 어느段階에서는 北韓을 吸收統合할 수 있는 潛在力이 길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目的意識에서 우리는 韓國靑少年 社會化의 問題點을 探索해왔고 이제 그러한 問題點들을 해소할 수 있는 政策들을 考慮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되어야 할 것은 靑少年社會化問題가 時代的, 狀況的 脈絡에서 綜合的 計劃的으로 다루는데 多小 未洽했다고 본다. 젊은 世代의 問題는 그 社會의 未來와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問題가 表面化될 때까지는 問題性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問題가 나타났을때 對策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現在 國務總理企劃調整室에서 靑少年業務를 管掌하고 있으나 問題의 重要性에서 볼 때 根本的인 再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기대된다.

둘째로 靑少年社會化를 다룰때 그들을 後繼世代로서 다루어야 한다

는 것이다. 國家發展計劃의 樹立이 成人男子中心으로 이루어지는 傾向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兒童과 靑少年에 대한 關心과 對策이 소홀해지기 쉬우며 특히 韓國과 같은 東洋文化圈에서는 더욱 그렇다. 1978年 人口中 24才未滿은 總人口의 58.4%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5~24才人口는 全人口의 22.4%를 차지한다. 이들 靑少年人口中에서 學生이 21%, 勤勞靑少年이 36%, 재수생, 無職, 無就學, 軍服務靑少年들이 43%로 構成되어 있다. 1978年度 文教豫算은 政府豫算의 17.5%, 國民總生産量의 3.2%에 該當되는 것으로 靑少年人口가 다른 先進國들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크다는 것을 勸案할 때 公教育費를 國民總生産量의 6%水準으로 서서히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家計의 과중한 教育費負擔은 所得의 下部階層子女들에게 平等한 教育機會를 提供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 上向的 社會移動을 制限할 憂慮가 있고 그것이 社會不滿의 原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現在 教育稅徵收를 考慮하고 있는 바 이를 과감히 推進하여 國民學校教育부터 內實化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豫算이 充分히 確保된다고 教育問題가 쉽게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現在 大都市地域에서 學校建立敷地 確保도 어려운 實情임을 勸案할 때 長期都市計劃에서 學校建立부터 考慮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여기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豫算뿐만 아니라 教育에 關聯된 諸問題를 長期的인 對策을 樹立하여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指摘되어야 할 것은 靑少年對策이 결코 公式的 教育中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就學前 教育은 勿論, 勤勞靑少年을 包含한

學校를 이미 떠난 靑少年들을 위해서 보다 觀心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政府의 豫算은 1978年度에 約 360 億원, 1979年度에 約 509 億원에 不過하였으며 주로 靑少年들의 여가선용시설, 職業訓練, 不遇靑少年支援, 非行靑少年对策등에 쓰여지고 있다.<sup>34)</sup>

여기서 指摘되어야 할 것은 非學生層을 爲해 投資되고있는 額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使用目的이 모두 社會問題로서의 靑少年对策에 쓰여졌을 뿐, 政治問題로서 또는 政治社會化問題로서는 전혀 考慮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提案하고자 하는 것은 政府가 豫算을 一定額 確保하여 民間團體가 非學生靑少年들을 對象으로한 政治教育을 할 때 支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政府는 靑少年들을 위한 健全한 書籍雜誌를 出版하는데도 觀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社會化란 그 社會에 適絶한 人間, 集團, 및 社會의 모델들에 대한 學習過程이라고 했거니와, 靑少年들은 結局 주위의 成人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成人社會의 淨化와 健全한 大衆文化의 振作이야말로 靑少年의 올바른 社會化를 위해서도 切實한 問題이다. 外來文化의 洪水속에서 「韓國的」 人間像을 期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文化的 自立이 없이는 精神的 自主性이 確立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筆者가 여기서 편협한 民族主義의 立場에서 韓國傳統文化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韓國靑少年들이 接하는 童話, 書籍雜誌, 演劇, 映畫,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大部分이 韓國의狀況을 背景으로 하고 韓國人物들이 主人公이 되면 充分한 것이다. 왜냐하면 靑少年들이 이들 主人公들을 모

델로 하여 同一視하게 되기때문이다.

이상에서 提示된 것들은 社會化의 巨視的 環境을 考慮하여 극히 包括的인 政策課題를 提起한 것이다. 事實上 그러한 政策代案들은 이미 여러곳에서 直接 間接으로 指摘된 바 있으므로 簡略하게 言及하였다. 다음으로 本研究에서 보다 重要視되어야 할 政治社會化의 觀點에서 몇가지 政策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을 論議하고자 한다.

그 첫째로 重要的 것은 韓國의 政體(regime)에 대한 教育을 強化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에 관한 것을 보다 具體적으로 教育시키고 相對적으로 共產主義의 矛盾性에 對하여 靑少年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教育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國民倫理教育이 政治共同體에 대한 것과 現存政府 및 그 指導者들에 對한 것이 大部分을 차지해왔다. 問題는 政府指導者들은 繼統적으로 交替되기 때문에 그 밑바탕原理가 되는 體制理念에 對해 思想教育의 重點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바 있거니와 北韓政治教育의 核心은 體制理念이라는 점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韓國에서 특히 資本主義에 關聯된 教育이 未洽하여 個人들의 合理的 經濟生活에 서툰음은 勿論, 國民經濟 活動의 主要한 行爲者인 企業家들에 對해 靑少年들이 一般的으로 否定的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sup>35)</sup>

둘째로 主要한 것은 靑少年들에게 政治教育을 기피하지 말고 市民教育을 中心으로한 現實的인 內容을 積極적으로 教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36)</sup> 學生들이 韓國政治의 現實에 대한 理解가 있을 때

肯定的 参与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을 民主市民의 一員으로 政治参与를 奨励해야 하며 政治中立을 표방하여 政治圈外에 두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政治教育의 核心이 되는 民主市民教育이 抽象的, 規範的이어서 안되며 보다 現實的이고 實踐的이어야 한다. 行動으로 옮길 수 없는 價值觀의 注入이란 別로 쓸모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民主市民教育은 政治的 民主主義 뿐만 아니라 社会的, 經濟的, 文化的 民主主義教育이 同時에 이루어져야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上下級生間에 지나친 位階秩序를 強調하고, 教師學生關係가 너무 權威主義的이고, 大學生들이 지나친 엘리트意識을 가진다면 靑少年들이 民主教育을 받고 또 그 原理를 말한다해도 民主性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民主主義는 價值觀이 아니고 生活 方式인 것이다.

政治란 결국 社会内에 存在하기 마련인 葛藤의 解消 (conflict resolution) 라고 볼 때, 살아있는 民主市民教育이란 經驗을 통해서 葛藤狀況下에서 他人의 意見을 들을줄 알고 자신의 見解와 다른 意見을 寬容할 줄 알며, 서로 妥協할 줄 알고, 나아가서 共同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協同할 줄 알며, 그러한 과정에서 法規를 遵守하고 個人의 行動에 대하여 責任을 질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教育인 것이다.

이와같은 民主市民教育을 效果的으로 實施하기 위해서는 教育內容이 地域社会의 現實에 적합해야 하며 그런면에서 教育의 地方自治原則을



살려야 하고 教育行政도 劃一性을 벗어나야 하고 學生自治活動을 포함한 民主訓練의 機會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南北對決 및 統一에 對備한 教育에 보다 큰 比重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靑少年들도 觀念的 反共意識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反共意識이 具體的이지 못하며 自身들의 價值體系속에 內面化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教師의 資質, 教材의 不適切, 教育方法의 問題 등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政府는 北韓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實証的인 資料와 視聽覺 機材의 補及등 勝共統一教育의 支援을 통해 北韓體制의 全體主義의 性格을 學生 스스로 判斷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가 教育에서 차지하는 政治教育의 重要性을 認定한다면 그 教育의 担当者인 一般社會 및 國民倫理 教師들을 養成하는 프로그램을 再整備하여 精銳化해야 한다. 지난날 經濟成長의 手段으로서 教育에 대한 여러가지 施策이 있었으나 民主發展의 手段인 政治教育을 위해서는 다양한 專攻을 가진 大學卒業者들이 별다른 使命感도 없고 民主市民教育을 위한 專門的인 知識도 없이 担当해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다른 大部分의 科目들은 知識習得으로 充分할지 모르나 政治教育이야말로 認識보다는 態도와 行動次元까지 變化를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優秀한 教師의 資質이 要求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政府는 政治社會化를 위해서 社會教育에 對해서 보다 큰 關心과 施策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研究에서 指摘

하고 있는 韓國青少年 社會化過程의 問題는 社會化影響要素들간의 一貫性과 連續性的 결여와 理論과 實際間的 不一致 現象인 것이다. 學校教育 프로그램이 아무리 革新된다 하더라도 教育外的 環境이 旧態依然하거나, 또는 그들이 社會生活를 始作했을때 社會經濟的 組織들이 封建的, 非民主的이라면 民主的으로 社會化된 青年들이 適應하기 위해서 封建的 組織文化에로 再社會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와 社會意識構造를 變更시키는 努力은 社會全般에 걸쳐서 이뤄져야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政府는 社會教育의 機能을 重要하게 評價하여 責任部署를 設定하고 關係機關이 協助하며 과급효과가 크고 經濟的인 매스 미디어를 積極善用할 必要가 있다. 社會教育의 效果를 考慮할 때 文敎部에 社會教育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社會化는 公式的 教育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要素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社會教育의 強化는 相當한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北韓처럼 政府가 劃一的, 教條的으로 統制해서는 안되고 協議會構成 등의 方法을 통해서 民主的, 自律的으로 發展될 수 있도록 支援되어야 할 것이다.

## 7. 要約 및 結論

以上에서 南北韓 社会化過程을 比較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政策代案을 考察해 보았다. 社会化的 接近方法은 그 社会 靑少年들의 一般的인 成長環境과 그들이 指向하는 主要價值들을 包括的으로 評價할 수 있어서 公式的 教育으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들을 찾아내고 그 解決策을 摸索하는데 有用하다. 特히 本研究에서 試圖한 바와같이 分斷되었으나 相互對決하고 있는 南北韓의 社会化過程을 比較分析한다는 것은 그 試圖自体가 의의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制限条件으로 本研究의 結果가 絶對的이라고 断定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繼統的인 研究가 期待된다.

다만 本研究의 特徵이라면 社会化的 理論的인 틀을 基準으로 論理的으로 分析하려고 努力했으며 特히 社会化的 結果가 個人과 體制間的 肯定的인 連鎖形成에 어느정도 成功的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南北韓 社会化過程의 比較에서 重要な 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韓國은 民主的 開放體制이나 北韓은 独裁的 閉鎖體制이므로 靑少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社会化모델이 前者의 경우 多樣하고 特히 傳統과 西歐의 것이 二重的으로 나타나 있으나 後者の 경우 一元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選擇의 여지가 없이 單一모델이 주어진다.

둘째로 個人社会化的 目標面에서 볼 때 韓國은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의 養成으로 어디까지나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

으나, 北韓의 경우 個人主義는 徹底하게 배격되고 個人은 全體를 위하여 存在하는 集團主義的 人間의 養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 社會化者의 주된 動機는 個人的 利益이라면 北韓의 그것은 全體의 利益인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어떻게 個人利益을 調和시키느냐에 있다.

셋째로 社會化機關들간의 社會化影響의 一貫성과, 連續성을 考慮할 때 韓國의 경우 文化의 多元性 또는 二重性 때문에 時空으로 서로 矛盾 葛藤되는 모델들이 同時에 提供되어 아노미적 現象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北韓의 경우 거의 모든 社會化影響 要素들이 共産黨의 徹底한 統制下에 있기 때문에 連續성과 一貫성은 높게 마련인 것이다.

넷째로 政治教育面에서 볼 때 韓國은 體制理念과 政治現實에 대한 內容보다는 政治共同體와 政府에 대한 支持增大를 위한 內容이 中心이 되어 왔으나, 北韓의 경우 體制理念이 그들 思想教育의 核心이 되어왔다.

다섯째로 社會化에 있어서 理論과 實際간의 聯關性程度를 考慮할 때 韓國의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이 個人들의 生活과 거리가 먼 것이 많고, 一般的으로 靑少年들을 政治로부터 격리시켰으며 地域 社會를 중심으로한 實踐的인 民主市民教育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革命傳統敎養, 政治參與의 장려, 組織活動의 義務化 등을 통해 實踐과 行動을 통한 學習을 強調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로 韓國의 社會化는 未成年社會化가 주된 關心事이고 따라

서 公式的 教育에 力點이 가해지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初期社會化에서 成年社會化에 이르기까지 社會化의 領域을 넓혀서 社會教育도 또한 重要視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社會化의 結果를 評價하는데 가장 重要한 個人과 國家間의 連鎖面에서 볼 때 北韓靑少年들은 적어도 外面上 높은 支持度와 一體感을 나타내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否定的인 連鎖現象이 커지고 있다.

韓國은 開放된 狀況下에서 發展해왔고 따라서 韓國靑少年들도 國際的 또는 多樣的 準拋모델들을 배우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各者는 自己能力과 位置를 보다 잘 把握하고 나아갈 方向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서 北韓靑少年들은 徹底하게 閉鎖되고 統制된 狀況下에서 劃一的인 모델로, 選擇의 餘地없이 注入되었기 때문에 善意的 平和的 南北競爭과 國際社會에서의 競爭에서는 韓國靑少年들이 절대적으로 有利할 것이라고 判斷된다.

要컨데 韓國의 社會化는 “自然的” 社會化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나 北韓의 그것은 強制的이고 計劃된 政治教化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自由로운 人間發達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의 社會化가 問題가 많은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같은 人間主義的 價值判斷에서 그들의 政治教化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北韓政治體制는 그들이 目標로 하는 것을 그들의 政治教化手段으로 成功的으로 支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南北對決이라는 韓國의 特殊性을 考慮할 때 우리의 社會化

연구가 倫理的 價值判斷이라는 社會問題的 次元에서 끝나지 말고 政治社會的 次元에서 면밀히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sup>37)</sup> 한마디로 말해서 韓國이 北韓에 比하여 一般的 社會化는 우월한 편이나 政治社會化의 側面에서는 다소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社會化도 너무 “自然的”인 過程으로 들 것이 아니라 보다많은 關心과 對策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代策들은 항상 民主主義의 資本主義의 배두리內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 脚 註

註 1 ) 国土統一院, 南北韓의 異質化 (서울 : 国土統一院, 1977)

註 2 ) 이와 같은 問題意識에서 이룩된 先行研究로서 盧在鳳外, 消費經濟体制가 韓國青少年思想形成에 미치는 影響 (서울 : 国土統一院, 1978) ; 金忠男, 統一後繼世代로서의 韓國青少年 社会化 研究 (서울 : 国土統一院, 1979).

註 3 ) 盧在鳳, 앞글.

註 4 ) 유사한 研究로서 都興烈, 南北韓青少年的 意識構造 形成過程 比較 (国土統一院, 1977)을 參考하시오. 이것은 이 分野의 既存研究 中에서 가장 훌륭한 研究의 하나이나 너무 “社会学的” 社会化論議에 치중하여 南北對決의 問題意識에서 볼 때 너무 낙관적인 結論으로 誘導된 면이 없지 않으며 他學者들의 立場도 비슷하다고 評価된다.

註 5 ) 社会化研究의 가장 包括的인 參考書籍으로 다음을 參照하시오. Davi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 Stanley A. Renshon (ed),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Free Press, 1977).

註 6 ) 美國의 代表的 政治學者, Easton이나 Almond도 그러한 理論的 立場에 서 있다. David Easton and J.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 McGraw-Hill, 1969)參照.

註 7 ) Kim, Choong Nam, Political Socialization in a Depen-

dent System : A Rational-Choice Perspective, the Case of Korea(Ph.D.Thesis,University of Minnesota, 1978) 위 論文에 대한 部分的 소개는 金忠男, “韓國政治社會化에 있어서 外的 要素의 影響과 民族主体性問題”, 統一政策 第5卷4号(1979), pp.226~234. 個人的 立場에서 政治社會化問題를 興味있게 取扱한 것으로 Anne E.Freedman and P.E.Freedman,The Psychology of political Control(New York : St.Martin,1975)를 参考하시오.

註8) 이와 關聯하여 社會化를 “狀況에 대한 定義”(definitions)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William I. Thomas,The Unadjusted Girl (Boston : Little,Brown,1931),pp.41 ~ 50 参照. 南北韓의 一般的인 體制比較로서 趙英彬, 南北韓 社會文化比較尺度 모델에 관한 研究(國土統一院, 1976); 韓培浩, “南北韓 政治體制 比較序說”, 北韓政治體系研究(서울: 高大 亜細亞問題研究所, 1972)

註9) Kim, Choong Nam, 앞글, 6장 및 金忠男, 통일 후계세대로서의 韓國青少年 社會化 研究, pp.60 ~ 68 参照.

註10) 趙英彬, 앞글, 32 페이지 이후 参照.

註11) 이 問題의 보다 심층깊은 分析을 위해서 다음을 参照하시오. 金忠男, “韓國 民主發展의 獨立變數로서의 教育”(韓國政治學會1980年度 年例學術會議 發表豫定)또 西歐制度와 日本傳統間的 葛藤關係에 關한 서술적 分析으로 E.Wight Bakke,Revolutionary Democracy: Challenge and Testing in Japan (Hamden, Conn.: Archon, 1968)을 参照하시오.



註 12) Kim, Choong Nam, 앞글, 5장 参照.

註 13) 金忠男, 앞글, 43 페이지 以後 参照.

註 14) 北韓研究所, 北韓社会論 (서울, 1977) 参照.

註 15) 北韓教育의 一般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北韓研究所, 北韓教育論 (서울, 1977) 을 参照하시오. 소련교육에 대해서 Jeremy R Azrael, "Soviet Union," James S. Coleman(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233-271 을 보시오.

註 16) 都興烈, 앞글, 23 페이지 다시 인용.

註 17) 앞글, 56 페이지 以後 参照.

註 18) Kim, Choong Nam, ch.5 参照.

註 19) Ibid., ch.IV 参照. 民主的 傳統文化을 繼承하고 있는 美國의 學校들이 政治教育面에서 소련보다도 더 많은 努力과 時間을 投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George Z.F. Bereday & B.B. Stretch, "Political Education in the U.S.A. and U.S.S.R.,"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7(1963), pp.9~16.

註 20)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青少年白書 1979, p.313.

註 21) 金忠男, 앞글, pp.50 ~ 56.

註 22) 韓國青少年的 下位集團에 關聯된 問題를 위해서 다음을 參考하시오. 李相周, "青年의 社会的 位置와 意識構造", 및 徐英勳, "일하는 青少年," 韓國行動科學研究所 및 서울青少年會館, 國家發展과 青少年 (서울, 1977).

註 23) 姜声允, "北韓社会团体的 政治社会化 機能", 北韓 (1977.9), pp.204 ~ 213.

註 24) 北韓社会化에 대한 包括的 研究로 高永復外, 北韓青少年的 社会化過程研究 (国土統一院, 1978)를 보시오. 그외에도 廉弘喆, "北韓의 政治社会化와 價值觀形成," 統一政策 第2卷4号 (1976.12), pp. 44 ~ 55, Joel J. Schwartz, "The Elusive New Soviet Man," 과 R.Mantaperto, "The Maoist Approach," Problems of Communism XVII №5 (Sept.-oct., 1973), pp.39 ~63 그리고 Ivan Volgyes (姜声鶴訳), "東歐의 政治社会化," 統一政策 第二卷4号 (1976.12), pp.71 ~83을 参照하시오. 관련된 研究로서 朴容憲, "南北韓 政治 思想教育的 比較," 北韓 (1974.5), 劉鍾海, "南北韓青少年· 学生的 價值觀形成," 北韓 (1975.11)을 보시오.

註 25)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青少年白書 1979 (서울: 1979), p.48 및 p.92 参照.

註 26) 金日成演說文, "教育事業에서 社会主義教育學的 原理를 徹底히 구현할 데 대하여 (1971年12月 全國教育大會),

註 27) 金日成, "全体少年團員들에게" (1971.6).

註 28) 共產圈問題研究所, 勝共啓蒙資料集上 (樹文閣, 1972), pp.446以後 参照.

註 29) 金忠男, 앞글, pp.11 ~ 18.

註 30)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이데올로기教育," 高大 亜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体系 (서울, 1972), p.172.

註 31) 金忠男; 앞글, pp.18 ~ 41 参照.

註 32) 李璋鉉, "北韓社会에 있어서의 逸脱과 統制," 北韓社会論서 (서울: 北韓研究所, 1977); R.A. Bauer, A. Inkeles, & C. Kluck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art III; 勝共啓蒙資料集上, P.285.

註 33) 金忠男, 앞글, pp.85 ~ 87 参照

註 34) 靑少年白書 1979.p.14.

註 35)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企業家は 一般的으로 부정적으로 描写되고 있다. 또 傳統的으로 儒教的 價値体系에서는 商人이 社会階層의 下位에 屬하였으며 또 속담에도 「黄金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고 하여 一般的으로 돈을 다른 가치있는 것을 얻기위한 手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筆者가 調査한 것에서도 靑少年들의 企業家들에 대한 이미지는 相当히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Kim, Choong Nam, 앞글, p.97).

註 36) 事實上 다른 나라들의 市民教育도 政治教育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Judith V. Torney, A.N. Oppenheim and Russel F. Farnen,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1975), Ch.I 을 参照하시오.

註 37) 이것은 지금까지 이 問題에 대한 論議가 價値判斷的이었고 또 本論文 發表時 討論者들의 論評의 觀点 또한 그러한 傾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다.

하고 있는 韓國青少年 社會化過程의 問題는 社會化影響要素들간의 一貫性과 連續性的 결여와 理論과 實際間的 不一致 現象인 것이다. 學校教育 프로그램이 아무리 革新된다 하더라도 教育外的 環境이 旧態依然하거나, 또는 그들이 社會生活를 始作했을때 社會經濟的 組織들이 封建的, 非民主的이라면 民主的으로 社會화된 青年들이 適應하기 위해서 封建的 組織文化에로 再社會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와 社會意識構造를 變更시키는 努力은 社會全般에 걸쳐서 이뤄져야 實効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政府는 社會教育의 機能을 重要하게 評價하여 責任部署를 設定하고 關係機關이 協助하며 파급효과가 크고 經濟的인 매스 미디어를 積極善用할 必要가 있다. 社會教育의 效果를 考慮할 때 文敎部에 社會教育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社會化는 公式的 教育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要素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社會教育의 強化는 相當한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北韓처럼 政府가 劃一的, 教條的으로 統制해서는 안되고 協議會構成 등의 方法을 통해서 民主的, 自律的으로 發展될 수 있도록 支援되어야 할 것이다.

## 7. 要約 및 結論

以上에서 南北韓 社会化過程을 比較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政策代案을 考察해 보았다. 社会化的 接近方法은 그 社会 靑少年들의 一般的인 成長環境과 그들이 指向하는 主要價值들을 包括的으로 評價할 수 있어서 公式的 教育으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들을 찾아내고 그 解決策을 摸索하는데 有用하다. 特히 本研究에서 試圖한 바와같이 分断되었으나 相互对決하고 있는 南北韓의 社会化過程을 比較分析한다는 것은 그 試圖自体가 의의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制限条件으로 本研究의 結果가 絶對的이라고 断定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繼統的인 研究가 期待된다.

다만 本研究의 特徵이라면 社会化的 理論的인 틀을 基準으로 論理的으로 分析하려고 努力했으며 特히 社会化的 結果가 個人과 體制間的 肯定的인 連鎖形成에 어느정도 成功的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南北韓 社会化過程의 比較에서 重要な 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韓國은 民主的 開放體制이나 北韓은 独裁的 閉鎖體制이므로 靑少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社会化모델이 前者의 경우 多樣하고 特히 傳統과 西歐의 것이 二重的으로 나타나 있으나 後者の 경우 一元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選擇의 여지가 없이 單一모델이 주어진다.

둘째로 個人社会化的 目標面에서 볼 때 韓國은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의 養成으로 어디까지나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

으나, 北韓의 경우 個人主義는 徹底하게 배격되고 個人은 全体를 위하여 存在하는 集團主義的 人間의 養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 社會化者의 주된 動機는 個人的 利益이라면 北韓의 그것은 全体의 利益인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어떻게 個人利益을 調和시키느냐에 있다.

셋째로 社會化機關들간의 社會化影響의 一貫성과, 連續성을 考慮할 때 韓國의 경우 文化의 多元性 또는 二重性 때문에 時空으로 서로 矛盾葛藤되는 모델들이 同時에 提供되어 아노미적 現象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北韓의 경우 거의 모든 社會化影響要素들이 共産黨의 徹底한 統制下에 있기 때문에 連續성과 一貫성은 높게 마련인 것이다.

넷째로 政治教育面에서 볼 때 韓國은 體制理念과 政治現實에 대한 內容보다는 政治共同體와 政府에 대한 支持增大를 위한 內容이 中心이 되어 왔으나, 北韓의 경우 體制理念이 그들 思想教育의 核心이 되어왔다.

다섯째로 社會化에 있어서 理論과 實際間의 聯關性程度를 考慮할 때 韓國의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이 個人들의 生活과 거리가 먼 것이 많고, 一般的으로 靑少年들을 政治로부터 격리시켰으며 地域社會를 중심으로 한 實踐的인 民主市民教育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革命傳統敎養, 政治參與의 장려, 組織活動의 義務化 등을 통해 實踐과 行動을 통한 學習을 強調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로 韓國의 社會化는 未成年社會化가 주된 關心事이고 따라

서 公式的 教育에 力點이 가해지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初期社會化에서 成年社會化에 이르기까지 社會化의 領域을 넓혀서 社會教育도 또한 重要視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社會化의 結果를 評價하는데 가장 重要한 個人과 國家間의 連鎖面에서 볼 때 北韓靑少年들은 적어도 外面上 높은 支持度와 一體感을 나타내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 教育程度가 높아질수록 否定的인 連鎖現象이 커지고 있다.

韓國은 開放된 狀況下에서 發展해왔고 따라서 韓國靑少年들도 國際的 또는 多樣的 準拠모델들을 배우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各者는 自己能力과 位置를 보다 잘 把握하고 나아갈 方向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서 北韓靑少年들은 徹底하게 閉鎖되고 統制된 狀況下에서 劃一的인 모델로, 選擇의 여지없이 注入되었기 때문에 善意的 平和的 南北競爭과 國際社會에서의 競爭에서는 韓國靑少年들이 절대적으로 有利할 것이라고 判斷된다.

要컨데 韓國의 社會化는 “自然的” 社會化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나 北韓의 그것은 強制的이고 計劃된 政治教化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自由로운 人間發達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의 社會化가 問題가 많은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같은 人間主義的 價值判斷에서 그들의 政治教化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北韓政治體制는 그들이 目標로 하는 것을 그들의 政治教化手段으로 成功的으로 支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南北對決이라는 韓國의 特殊性을 考慮할 때 우리의 社會化

연구가 倫理的 價值判斷이라는 社會問題的 次元에서 끝나지 말고 政治社會的 次元에서 면밀히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sup>37)</sup> 한마디로 말해서 韓國이 北韓에 比하여 一般的 社會化는 우월한 편이나 政治社會化의 側面에서는 다소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社會化도 너무 “自然的”인 過程으로 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關心과 對策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對策들은 항상 民主主義의 資本主義의 배두리內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脚 註

註 1 ) 国土統一院, 南北韓의 異質化 (서울: 国土統一院, 1977)

註 2 ) 이와같은 問題意識에서 이룩된 先行研究로서 盧在鳳外, 消費經濟体制가 韓國青少年思想形成에 미치는 影響 (서울: 国土統一院, 1978)

; 金忠男, 統一後繼世代로서의 韓國青少年 社会化 研究 (서울: 国土統一院, 1979).

註 3 ) 盧在鳳, 앞글.

註 4 ) 유사한 研究로서 都興烈, 南北韓青少年的 意識構造 形成過程 比較 (国土統一院, 1977)을 參考하시오. 이것은 이 分野의 既存研究 中에서 가장 훌륭한 研究의 하나이나 너무 “社会学的” 社会化論議에 치중하여 南北對決의 問題意識에서 볼 때 너무 낙관적인 結論으로 誘導된 면이 없지 않으며 他學者들의 立場도 비슷하다고 評價된다.

註 5 ) 社会化研究의 가장 包括적인 參考書籍으로 다음을 参照하시오. Davi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Stanley A. Renshon (ed),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Free Press, 1977).

註 6 ) 美國의 代表的 政治學者, Easton 이나 Almond 도 그러한 理論的 立場에 서 있다. David Easton and J.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 McGraw-Hill, 1969) 参照.

註 7 ) Kim, Choong Nam, Political Socialization in a Depen-

dent System : A Rational-Choice Perspective, the Case of Korea(Ph.D.Thesis,University of Minnesota, 1978) 위 論文에 대한 部分的 소개는 金忠男, “韓國政治社会化에 있어서 外的 要素의 影響과 民族主体性問題”, 統一政策 第5卷4号(1979), pp.226~234. 個人的 立場에서 政治社会化問題를 興味있게 取扱한 것으로 Anne E.Freedman and P.E.Freedman,The Psychology of political Control(New York : St.Martin,1975)를 参考하시오.

註8) 이와 關聯하여 社会化를 “狀況에 대한 定義”(definitions)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William I. Thomas,The Unadjusted Girl (Boston : Little,Brown,1931),pp.41 ~ 50 参照. 南北韓의 一般的인 体制比較로서 趙英彬, 南北韓 社会文化比較尺度 모델에 관한 研究(国土統一院, 1976); 韓培浩, “南北韓 政治体制 比較序說”, 北韓政治体系研究(서울: 高大 亜細亞問題研究所, 1972)

註9) Kim, Choong Nam, 앞글, 6장 및 金忠男, 통일 후계세대로서의 韓國青少年 社会化 研究, pp.60 ~ 68 参照.

註10) 趙英彬, 앞글, 32 페이지 이후 参照.

註11) 이 問題의 보다 심층깊은 分析을 위해서 다음을 参照하시오 金忠男, “韓國 民主發展의 独立變數로서의 教育”(韓國政治学会1980年度 年例學術會議 發表豫定)또 西歐制度와 日本傳統間的 葛藤關係에 關한 서술적 分析으로 E.Wight Bakke,Revolutionary Democracy: Challenge and Testing in Japan (Hamden, Conn.: Archon, 1968)을 参照하시오.

- 註 12) Kim, Choong Nam, 앞글, 5장 参照.
- 註 13) 金忠男, 앞글, 43 페이지 以後 参照.
- 註 14) 北韓研究所, 北韓社会論 (서울, 1977) 参照.
- 註 15) 北韓教育의 一般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北韓研究所, 北韓教育論 (서울, 1977) 을 参照하시오. 소련교육에 대해서 Jeremy R Azrael, "Soviet Union," James S. Coleman(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233-271 을 보시오.
- 註 16) 都興烈, 앞글, 23 페이지 다시 인용.
- 註 17) 앞글, 56 페이지 以後 参照.
- 註 18) Kim, Choong Nam, ch.5 参照.
- 註 19) Ibid., ch.IV 参照. 民主的 傳統文化을 繼承하고 있는 美國의 學校들이 政治教育面에서 소련보다도 더 많은 努力과 時間을 投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George Z.F. Bereday & B.B. Stretch, "Political Education in the U.S.A. and U.S.S.R.,"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7(1963), pp.9~16.
- 註 20)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靑少年白書 1979, p.313.
- 註 21) 金忠男, 앞글, pp.50 ~ 56.
- 註 22) 韓國靑少年的 下位集團에 關聯된 問題를 위해서 다음을 參考하시오. 李相周, "靑年の 社会的 位置와 意識構造", 및 徐英勳, "일하는 靑少年," 韓國行動科學研究所 및 서울靑少年會館, 國家發展과 靑少年 (서울, 1977).

註 23) 姜声允, “北韓社会团体的 政治社会化 機能”, 北韓 (1977.9), pp.204 ~ 213.

註 24) 北韓社会化에 대한 包括的 研究로 高永復外, 北韓青少年的 社会化過程研究 (國土統一院, 1978)를 보시오. 그외에도 廉弘喆, “北韓의 政治社会化와 價值觀形成,” 統一政策 第2卷4号 (1976.12), pp. 44 ~ 55, Joel J. Schwartz, “The Elusive New Soviet Man,” 과 R.Mantaperto, “The Maoist Approach,” Problems of Communism XII № 5 (Sept.-oct., 1973), pp.39 ~ 63 그리고 Ivan Volgyes (姜声鶴訳), “東政의 政治社会化,” 統一政策 第二卷4号 (1976.12), pp.71 ~ 83을 参照하시오. 관련된 研究로서 朴容憲, “南北韓 政治 思想教育的 比較,” 北韓 (1974.5), 劉鍾海, “南北韓青少年· 学生的 價值觀形成,” 北韓 (1975.11)을 보시오.

註 25)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青少年白書 1979 (서울: 1979), p.48 및 p.92 参照.

註 26) 金日成演說文, “教育事業에서 社会主義教育學的 原理를 徹底히 구현할 데 대하여 (1971年12月 全國教育大會),

註 27) 金日成, “全体少年團員들에게” (1971.6).

註 28) 共產圈問題研究所, 勝共啓蒙資料集上 (樹文閣, 1972), pp.446以後 参照.

註 29) 金忠男, 앞글, pp.11 ~ 18.

註 30)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이데올로기教育,” 高大 亜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体系 (서울, 1972), p.172.

註31) 金忠男; 앞글, pp.18 ~ 41 参照.

註32) 李璋鉉, "北韓社会에 있어서의 逸脱과 統制," 北韓社会論서 (울: 北韓研究所, 1977); R.A. Bauer, A. Inkeles, & C. Kluckohn, How the Soviet System Work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art III; 勝共啓蒙資料集上, P.285.

註33) 金忠男, 앞글, pp.85 ~ 87 参照

註34) 靑少年白書 1979.p.14.

註35)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企業家は 一般的으로 부정적으로 描写되고 있다. 또 傳統的으로 儒教的 價値体系에서는 商人이 社会階層의 下位에 屬하였으며 또 속담에도 「黄金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고 하여 一般的으로 돈을 다른 가치있는 것을 얻기위한 手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筆者가 調査한 것에서도 靑少年들의 企業家들에 대한 이미지는 相當히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Kim, Choong Nam, 앞글, p.97).

註36) 事實上 다른 나라들의 市民教育도 政治教育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Judith V. Torney, A.N. Oppenheim and Russel F. Farnen,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1975), Ch. I 을 参照하시오.

註37) 이것은 지금까지 이 問題에 대한 論議가 價値判斷的이었고 또 本論文 発表時 討論者들의 論評의 觀点 또한 그러한 傾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다.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IZATION PROCESSES  
IN SOUTH AND NORTH KOREA

Choong Nam Kim

Two highly divergent external political cultures have been vigorously interacting wi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during last 35 years. This has brought about changes of outlook, perspectives and values among the people. Despite a homogeneous genetic and cultural heritage,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ready become very different and will continue to become even more different the longer the separation remains.

With different socializational environments,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s typical among the developing nations while that of North Korea is one of extreme cases in the world. Thus, North Korean socialization can be seen as a "closed" and "controlled" system while that of South Korea may be seen as a natural but "dependent" system, where exogenous factors play significant roles as determinants of socialization.

The contrast of two socialization processes is in order.

(1) South Korean socialization is a natural life-orientation in

an "open" system while that of North Korea is purposive political indoctrination within a "closed" and controlled system;

(2) the ultimate goal of polit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is to make individual "Hongik man" (man beneficial to all) through self-actualization while that of North Korea is to train youngsters to be revolutionists for building a socialist state;

(3) the dominant 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is mixed (partly Korean and partly Western) while in the north North Korean version of Marxism-Leninism dominates;

(4) the cues of various socializing agents are incongruent in the south while those of North Korea are monolithic;

(5) dominant interests of a socializee are personal interests in the south while collective interests in the north;

(6) the chances of participating social activities are more frequent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7) finally, early socialization is emphasized in the north.

In sum, South Korean socialization is more individualistic life-orientation while North Korean one is collectivistic, programmed, forced and choice-less orientation. Although the socialization practice of North Korea might be effective under controlled circumstances, it is highly likely that youngsters grown up under such conditions would be weak and helpless facing open competition.

Since two Koreas compete each other for the hegemony of national unification, it is desirable to formulate our policy alternatives by means of removing the weakness of Korean socialization vis-a-vis North Korean socialization. But it must be assured that such policies be considered withi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Among plausible policy alternatives are: (1) improvement of continuity and congruity among socializing agents; (2) higher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education; (3)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uling elites and students. More specifically, we propose more investment for education and youth-related activities,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development of civic education, and governmental support for youth and mass culture.





# 青少年에 對한 南北韓의 教育政策比較

研究執筆責任 車 京 守

(略歷) 서울大 卒業  
美 하와이大學院 卒業  
美 시라큐스大學 哲學 博士  
現 서울大 師範大 教授

## 要 約

남북분단이 된지도 35년이 지났다. 분단 당시의 어린이들이 이제 모두 成人이 된 것이다. 그 동안 大韓民國에서는 民主主義的인 教育方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成長해 왔으나 北韓에서는 共產主義政權이 樹立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中心으로 하는 獨特한 共產主義 教育方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다. 분단된 國土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고 진정한 民主主義를 韓半島에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 教育政策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에 의하여 形成되는 靑少年들의 國家觀이 어떤지를 檢討하여 統一을 위한 靑少年 教育政策의 方向과 方法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 研究는 이러한 뜻에서 南北韓의 靑少年 教育政策을 比較·檢討하여 平和的인 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統一後繼世代인 靑少年育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靑少年 教育政策의 比較는 이처럼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內容을 制限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靑少年에 대한 教育政策의 比較를 教育理念의 比較, 教育運營面의 比較,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比較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考察하고 이들 比較에서 發見되는 差異點의 意味를 살펴보려고 했다. 教育運營面의 比較에서는 學制, 教育內容, 教育方法 등을 비교하였다. 이 研究는 靑少年들의 意識형성 및 國家觀 형성과 關聯된 教育政策上의 要因을 分析·檢討하려는 것이며,

靑少年들의 意識 그 자체를 比較·分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항목들에 관한 研究結果를 간략하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理念 또는 教育目的을 比較해 볼 때에 南北韓 사이에는 根本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그것이 教育의 內容이나 方法에 매우 重要的 影響을 준다. 教育理念은 教育이 궁극적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理想的인 人間像 또는 教育目的을 意味한다. 韓國의 教育理念은 憲法에는 直接的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教育法 1條와 2條 등 關聯된 文헌을 종합적으로 考察할 때에 民主主義의 理念 아래에서 人間의 尊重, 자아실현, 인격의 完成, 職業準備와 生活能力의 增進, 國家·社會를 위한 公民의 自질 向上 등을 통하여 “民主的인 人間”을 형성하려는 것이 그 基本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靑少年 教育理念은 北韓憲法 39條가 明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後代들을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인 새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그 基本方向은 共產主義의 理念 아래에 全人民의 公산주의화,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教育의 目標로 하고, 金日成 유일사상에 입각한 사상교육 강조, 勞動과 教育의 結合, 徹底한 組織 속에서의 教育, 투쟁적인 方法에 의한 革命性 強調 등으로 “共產主義的인 人間”을 形成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教育運營面의 比較에서 보면 韓國의 學制는 國民學校 6年을 義務教育으로 하고 개인의 能力과 希望, 家庭環境 등에 따라서 上級 學校를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單線制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內容面에서는 知·德·體를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學問을 바

탕으로 하는 教育內容을 조화있게 教育하고, 教育方法面에서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方法보다는 學生들이 自主적이고 自律적으로 知識을 학습하고 價値觀을 內面化하도록 하는 方法을 理想的인 것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學制는 취학전 教育 1年과 초중등학교 10年을 합하여 11년간의 義務教育을 憲法에 明示하여 實施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집단이 그들이 원하는 人間을 일찍부터 強制的으로 形成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것이다. 教育內容面에서는 金日成을 우상화하는 것, 資本主義와 韓國社會를 비판하는 것, 共產主義的인 革命精神과 勞動을 強調하는 것 등이 가장 많고, 教育方法으로서는 집단주의적, 강제적, 투쟁적인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集團의 앞에서 자기 自身の 잘못을 認定하도록 하는 비판적인 方法도 흔히 使用한다. 教育運營面에서는 黨에서 認定하는 公式的인 理論이나 해석만이 適用될 수 있으며, 미리 정해진 共產主義的인 知識이나 理論을 強制的로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이다. 또 「美帝」 「資本家」 등의 대상을 정하고 「매려 부시자」는 등의 과격한 용어를 使用하면서 공격적인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特徵이다.

셋째,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을 比較해 볼 때에 韓國에서는 多樣的인 배경을 가지고 設立된 民間的인 靑少年團體들이 政治的인 活動을 떠나서 設立理念의 추구, 靑少年問題에 대한 討論, 학문적인 活動, 오락, 스포츠, 캠핑, 교양강좌 등의 活動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모든 靑少年들이 8세에서 13세까지 少年團에 입단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즉 社勞靑에 입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靑少年團體들은 共產主義의 基本教育方向에 따라

서 黨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 노동 애호사상, 革命的인 성격 鼓吹, 자기비판 등을 強調한다. 北韓에서 靑少年團體는 計劃的인 共產主義 教育機關의 一部分으로서 政治的인 目的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教育政策의 차이에 따라서 南北韓의 靑少年들은 意識構造나 행동양식에서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北韓의 教育政策이 靑少年들을 호전적이고 투쟁적으로 이끌어 갈 때에 이에 대한 對應策을 우리는 準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우리의 靑少年들이 民主體制의 우월성을 깊이 認識하고 우리 社會가 要請하는 規範을 自律的으로 그들의 人格 속에 內面할 수 있도록 하는 問題일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念 아래에 教育政策에 대한 多樣한 論義와 해석이 可能한 것은 무한한 發展과 창조的 가능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性이 방향감각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社會와 國家의 發展을 위해서는 개인的 자율적인 參與가 매우 重要한데, 教育이 社會와 國家보다도 개인과 家族만을 위한 利己的인 動機에 의해서 支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教育이 앞으로 民主的인 人間의 形成과 國家發展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個人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社會와 國家의 一員으로 생각할 수 있는 市民意識과 國家意識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民主的인 信念과 규범을 스스로 인격속에 內면화할 수 있는 靑少年들의 育成을 위하여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義務教育의 期間延長과 充實化, 협동적이고 參與的인 學習方法에 대한 研究·開發 등이 앞으로 더욱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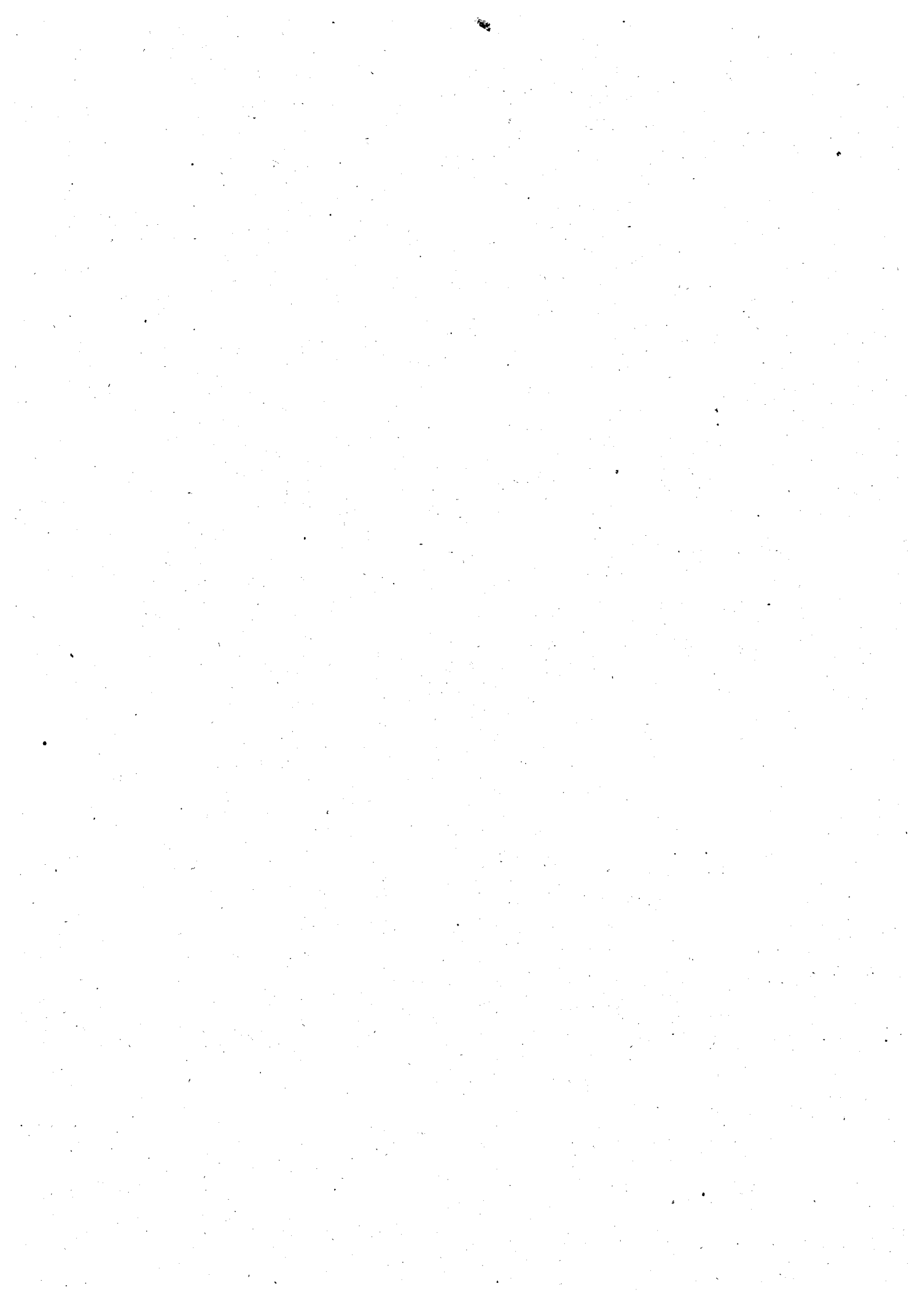
이 研究는 資料의 미비 등 몇 가지 이유로 南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를 直接·比較·分析하지 못하고, 그러한 意識의 形成에 影響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教育政策의 몇 가지 要因을 分析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教育政策의 比較研究 뿐만 아니라 靑少年들의 意識構造 그 자체도 比較·分析되어 南北韓의 異質化過程에 대한 研究가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로부터 우리의 靑少年들을 위한 올바른 指導方向도 摸索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 目 次

I. 問題의 提起 .....	123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	123
(2) 研究의 內容 .....	124
(3) 研究의 制限點 .....	127
II. 教育理念의 比較 .....	129
(1) 韓國의 教育理念 .....	129
(2) 北韓의 教育理念 .....	131
(3) 北韓教育의 政治的 從屬性 .....	134
III. 教育運營上의 比較 .....	136
(1) 教育制度의 比較 .....	136
(2) 教育內容面의 比較 .....	141
(3) 教育方法面의 比較 .....	147
IV. 靑少年團體에 對한 政策比較 .....	154
(1) 韓國의 靑少年團體 .....	154
(2) 北韓의 靑少年團體 .....	156
V. 評價 및 論議 .....	159
(1) 南北韓 靑少年 教育政策의 差異 .....	159
(2) 統一教育에 주는 示唆點 .....	161
VI. 要約 및 結論 .....	165
VII. 參考文獻 .....	173



## I. 問題의 提起

研究의 主題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內容을 몇 가지로 한정하면서 研究의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研究內容과 問題의 範圍設定, 研究의 制限點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남북분단이 된지도 35年이 지난 것이다. 분단 당시의 어린이들이 이제는 모두 成人이 되어 社會活動의 주역으로서 參與하고 있다. 그 동안 大韓民國에서는 民主主義的인 理念和 教育方法에 의하여 靑少年들이 성장해 왔으나 北韓에서는 共產主義 政權이, 樹立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共產主義의 理念和 教育方法에 의하여 靑少年들이 성장하고 있다.

教育을 넓은 의미에서 社會化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때에 教育의 理念이나 內容, 方法 등이 人間의 成長에 미치는 影響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다. 人間은 教育에 의하여 社會生活에서 必要한 基本的인 知識이나 技術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世界에 대한 態도와 價値觀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學校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價値를 직접적으로 교수하며 教師뿐만 아니라 同輩集團이 “모형”의 역할을 함으로서 靑少年들의 成長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 政治的 態度나 價値觀을 형성하는 政治的 社會化의 過程에 관한 研究들은 대개 學校, 정당, 대중매체, 政府機關 등 여러 가지 중에서 學校가 가장 높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1)

教育은 이처럼 基本的으로 國家의 構成要因인 人間을 形成하는 일이기 때문에 個人의 形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國家發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분단된 國土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고 진정한 民主主義를 한반도에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의 教育政策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러한 教育政策의 차이에 의하여 形成되는 靑少年들의 國家觀이 어떠한지를 檢討하여 統一을 위한 教育政策의 發展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狀況으로 비추어 보아 이 研究의 目的은 靑少年의 成長을 위한 南北韓의 教育政策의 差異를 檢討하여 平和的인 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統一後繼世代인 우리의 靑少年 育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 (2) 研究의 內容

南北韓 教育政策의 差異에 대한 研究는 國家發展을 위해서 이처럼 重要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教育政策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어서 그 內容을 몇 가지로 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政策”의

意味는 어떠한 組織體의 目的이나 基本方向을 정하는 일이다. 이 때에는 選擇이 가능한 여러 가지의 可能性에 대해서 特定한 것을 決定하는 意思決定을 수반하게 된다.<sup>2)</sup> 따라서 教育政策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教育의 目的을 정하고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教育을 運營하는 데 必要한 制度, 方法等의 方向을 決定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政策이건 根本的으로는 目標, 計劃, 프로그램, 의사결정, 結果 등 다섯가지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sup>3)</sup>

이렇게 볼 때에 教育政策의 內容은 매우 多樣하다. 領域으로 보아 教育目的, 教育內容, 教育方法, 敎員, 教育制度 등에 관한 政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學校의 級別로 보면 취학전 教育, 초등교육, 中等教育, 高等教育, 學校 밖의 社會教育 등에 관한 政策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또 이 以外에도 産業教育政策, 特殊教育政策, 軍事教育政策 등과 같이 社會的 狀況과 時代的 要請에 따라서 강조되어야 할 教育의 領域이나 內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組織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도 있을 수 있고, 각종 社會團體나 학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教育政策의 形成에는 國家的인 必要性이나 時代的인 狀況에서 오는 影響 以外에 歷史的인 傳統이나 國民의 一般的인 여론과 같은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의 歷史的인 傳統은 教育政策을 形成하는 根本的인 바탕이 될 것이며, 어느 意味에서 政策의 推進은 과거의 歷史的인 課題를 이어 받아 發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겠다. 第2次世界大戰後 급격한 發展을 원하는 開發途上國들이 과거의 歷史的 전통을 무시한채 外國의 政策을 본 받아 制度의 改革을 시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經驗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美國的인 教育制度나 內容, 方法이 소개되어 우리의 教育現場에서 실시될 때에 그 적합성 問題가 繼續 논의되었고, 國籍있는 教育의 주장이나 傳統文化的 創造的 發展이 주장된 것은 이러한 問題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國家 以外의 여러 조직체나 歷史的인 狀況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教育政策의 形成過程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基本的인 것은 國家的인 立場에서의 教育의 基本方向이 무엇이냐는 問題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國家 以外의 여러 단체나 여론, 歷史的인 狀況을 考慮하여 이들의 最終的인 집약체로서의 國家的인 立場에서의 教育政策의 方向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研究에서 教育政策의 比較라고 할 때에는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教育政策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方向은 憲法, 法律, 각종 規則, 施行方針, 司法作用 등에 표현되는 것이 一般的이며, 이들 문헌은 教育政策의 方向을 말해 준다고 보겠다.<sup>4)</sup> 다만 이러한 文憲은 教育政策의 方向을 一時的이고 추상적인 用語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具體的인 社會的 狀況과의 關係에서 檢討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教育政策의 內容과 資料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들을 여기에서 모두 고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므로 이 研究의 目的과 關聯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개의 問題를 중심으로 이 研究를 進行하려고 한다.

첫째, 靑少年教育政策의 基本方向과 關聯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南北韓 靑少年教育의 理念 내지 目的을 서로 比較한다. 이것은 教育哲學의 比較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教育運營의 實際와 關聯된 要因으로서 教育制度, 教育內容, 教育方法 등을 比較한다. 이러한 要因들은 원래 獨立的인 要因으로서 考察되어야 할 充分한 價値가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서는 教育政策의 方向을 檢討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制度, 內容, 方法 등을 檢討하려는 것이므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教育運營面의 比較라는 題目으로 考察하려고 한다.

셋째,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을 比較한다. 오늘날 靑少年들의 同輩文化가 靑少年들의 行動發達에 미치는 影響의 重要性으로 보아 이에 대한 政策도 比較·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끝으로 이상의 比較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를 시도하고, 이러한 比較研究가 우리의 靑少年 教育政策의 方向을 위해서 어떠한 示唆點을 던져 줄 수 있는가를 살펴 본다.

### (3) 研究의 制限點

이 研究는 內容이나 方法面에서 많이 制限되어 있다. 이 研究의 內容은 우선 南北韓教育政策의 方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를 發見하려는 것이 그 基本的인 內容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南北韓教育政策의 長短點을 비교한다거나 우리 教育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을 제기하려는 것은 重要的 問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直接的으로 取扱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教育政策의 당연한 結果로서 나타나는 產物인 靑少年들의 모습, 즉 어떠한 靑少年이 實際로 길러지고 있느냐는 이 研究의 가장 관심 있는 問題이기는 하지만 역시 여기에서는 直接的으로 取扱하지 않는다. 이 問題를 取扱하기 위해서는 基準設定이 必要한데 이러한 基準에 대해서 論議할 餘유를 이 研究는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北韓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대한 經驗的인 調查研究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資料를 利用할 수가 없다. 우리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대한 經驗的인 研究는 예컨대 靑少年白書와 같이 좋은 資料가 있지만 이러한 資料는 北韓靑少年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資料가 아니기 때문에 調査의 근거와 基本假定이 달라서 이 資料를 使用하는 것은 適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理由로 教育政策의 基本方向을 表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公式的인 文書를 중심으로 하여 教育政策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에 이 研究의 基本的인 의미를 두었다. 말하자면 이 研究는 靑少年들의 意識 一般 특히 國家觀 確立과 關聯된 教育政策上的 要因을 分析·檢討해 보려는 것이며, 靑少年들의 意識 그 自体를 比較·分析하려는 것은 아니다.



## Ⅱ. 教育理念의 比較

教育理念은 教育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價値 또는 形成하고자 하는 理想的인 人間像을 의미하는 것이다. 教育目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教育哲學과 關聯된 것이다. 教育理念은 思想 또는 價値와 關聯된 것이므로 매우 추상적이고 높은次元의 思考를 必要로 한다. 아래에서 韓國과 北韓의 教育理念 내지 目的을 比較하여 그 차이점을 밝혀 보겠다.

### (1) 韓國의 教育理念

大韓民國의 憲法은 教育의 이상적인 人間像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教育法 第1條는 教育의 理念과 目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教育은 弘益人間的 理念 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자주적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케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봉사하며, 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즉 인격완성, 자주적 生活能力, 公民으로서의 資質, 民主國家發展, 世界人類의 이상실현에 기여하는 人間의 形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民主主義的인 人間」이 大韓民國의 理想的인 人間像이라고 말할 수 있다.

民主主義的인 人間像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民主主義의 궁극적인 理念이 무엇인가를 캐물어 봄으로서 民主主義的인 人間이 어떤 인간인가의 물음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民主的인 人間은 民主的인 理念과 原理를 신봉하는 人間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民主主義의 기본특징은 自由와 平等, 人間의 尊嚴性, 國民의 政治的 參與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이 원하는 가장 基本的인 것이며, 人間의 가장 本質的인 일부분을 構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民主主義的인 思考方式이다. 어떤 경우에도 人間은 人間 以外의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수단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되며, 人間은 目的으로서 尊重되어야 한다. 그리고 直接이건 間接이건 國民이 政治에 參與하여 國民의 일을 國民 자신이 決定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原理이다. 따라서 우리의 教育目的은 궁극적으로 이상과 같은 民主主義의 根本原理와 理念을 신봉하는 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的인 哲學을 根本的인 理念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次元에서 教育의 目的을 생각해 볼 때에 教育法 第2條에 명시된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教育法 第2條는 身體의 健全한 發育으로부터 勤儉勞作하는 生産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을 요약하면 대략 「自我의 實現, 個人 人格의 完成, 職業準備 내지 生活能力의 증진, 國家·社會를 위한 公民의 資質向上」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個人의 잠재능력을 發展시키면서 國家·社會 또는 人類의 發展에 공헌하는 人間을

형성하려는 것이 민주主義的인 教育의 理想이다.

이러한 민주主義的인 教育의 理念 아래에서는 教育理念이나 目的이 다양하고 폭 넓게 논의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 特徵이다. 人間의 존엄성이 어떠한 것을 意味한다는 國家의 公式的인 해석이 있고, 그 해석 이외의 다른 해석은 認定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人間의 尊嚴性을 둘러싼 多樣한 論議와 해석이 전개되면서 우리의 理想的인 人間像을 摸索하는 것이 우리의 教育理念에 대한 논의의 特徵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北韓教育에서는 다음에 說明하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的인 教育理念에 대하여 國家와 黨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해석 以外에는 다른 일체의 非公式的인 해석이 許容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 教育理念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 (2) 北韓의 教育理念

韓國教育이 “民主的인 人間”을 형성하려는 데 비하여 北韓教育의 根本的인 理念이나 目的은 “共產主義的인 人間”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北韓憲法은 教育의 目的과 方向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第3章 文化 第39條에서 共產主義的인 人間像에 대하여 「國家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教育法이 人格을 完成하고 生活能力을 發展시키며 國家와 世界人類의 發展에 公헌하는 人間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北

韓憲法은 「투쟁적인 革命家」를 기른다는 것을 直接的으로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教育의 투쟁적인 好戰性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다. 투쟁적인 혁명성이 共產主義的인 人間의 가장 基本的인 特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教育이 理想的인 人間像으로 내세우는 “共產主義的인 人間”이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哲學이나 세계觀의 基本的인 特徵을 考察함으로써 共產主義의 理想的인 人間像을 살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哲學이나 世界觀을 신봉하는 人間이 共產主義的인 人間의 理想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唯物論, 階級鬭爭說, 暴力革命論 등은 共產主義의 基本哲學과 世界觀을 構成하는 이론들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歷史發展의 基本的인 핵심으로 보고 人間의 精神을 物質의 소산으로 본다. 經濟的인 것이 人類歷史나 文化의 下部構造를 構成하고 그 위에서 精神的인 상부구조가 構成, 決定되는 것으로 본다. 또 人類의 歷史는 人間의 협동에 의해서 發展된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 發展된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勞動者들은 暴力을 使用하여야 한다는 暴力革命論을 신봉하는 것이다. 歷史發展의 本質과 過程에 대하여 共產主義者들이 신봉하는 哲學의 特徵을 以上과 같이 要約할 때에 共產主義的인 教育의 根本的인 目的은 그러한 哲學과 世界觀을 믿는 人間을 形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共產主義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北韓教育의 基本方向은

金日成의 연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特徵이다. 金日成의 연설을 바탕으로 하여 北韓의 社會科學院이 1975년에 출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社會主義 教育理論」에 의하면 金日成은 北韓 共產主義 教育의 目的을 「社會主義 社會에서 教育의 目的은 < 하나는 全体를 위하여, 全体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共產主義 原則을 實現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革命家를,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勞動階級을 위하여 鬭爭하는 共產主義者들을 키워내는데 있다」고 말했다.<sup>5)</sup>

그리고 金日成은 여러 연설에서 社會主義 教育의 目的을 全人民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라는 세 가지로 要約·強調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는 靑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教養함으로서 그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하는 것이다」<sup>6)</sup>라고 말하고 있다. 전인민의 혁명화는 말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的인 思想으로 무장하여 世界를 赤化하려는 鬭爭的인 共產主義의 性格을 그대로 나타내는 教育目的이다. 그들은 이처럼 教育目的에서 적개심을 자극하는 것이 特徵이다.

또 全人民의 勞動階級化는 國民들이 自由로운 思想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미리 막고 그들을 生産의 단순한 道具가 되게 하려는 共產主義的인 教育의 性格을 말해 주는 것이다. 個人的 잠재적인 能力을 發展시켜 가는 民主的인 社會의 教育目的과는 달리 共產主義 教育의 目的은 國家에서 미리 정한 計劃에 따라서 國民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 (3) 北韓教育의 政治的 後屬性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北韓教育의 理念이나 教育目的을 말할 때에 北韓에서는 반드시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政府에서 發行하는 선전용 팜플렛 같은 곳이라면 혹시 또 理解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학술서적에서도 반드시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民主社會의 常識으로는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學問이 政治에 完全히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前記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社會主義 教育理論」과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에게 해설론집」은 北韓教育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문헌인데 모두가 그와 같은 形式으로 서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주체사상에 입각한 社會주의 教育理論」은 그 첫 페이지에서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느 民族을 막론하고 그 民族의 장래는 靑少年들이 어떻게 교양되고 訓練되고 準備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靑少年들에 대한 教養問題는 어느 時代 어느 民族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問題의 하나로 되어 있다…」<sup>7)</sup>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에게 해설론집」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여러 곳에서 發見할 수 있는데, 예컨대,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께서 밝혀 주신 원칙은……」<sup>8)</sup> 이라는 서술로 시작하여 社會主義

교육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教育關係의 書籍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이나 歷史關係의 學술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眞理와 客觀적 事實에 충실해야 할 學問的 基準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歷史科學 1980년 1월호는 목차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하고 있고<sup>9)</sup>, 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가 저작한 「조선전사, 그 원시편」은 제1장의 첫 구절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람은 자연과 社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하는 基本原因이다> ( 김일성 저작선집, 6권, p.340 )……」라고 하여<sup>10)</sup> 김일성 저작선집의 한 구절을 引用하고 난 다음 歷史冊의 內容을 거기에다가 가져다 맞추는 形式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은 歷史的 法則이나 심지어 自然科學的인 事實을 說明하는 모든 學術的인 문장의 서술에서도 그 앞에 놓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의 教育이 얼마나 共產主義的인 政治의 影響을 받는가를 곧 알 수 있으며, 政治에 대한 教育의 중속적인 位置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의 수단성도 곧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 Ⅲ. 教育運營面の 比較

韓国과 北韓은 教育理念과 目標가 서로 다르므로 그러한 教育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實施하는 教育의 實際運營面에서도 많은 差異가 있다. 이미 問題의 제기편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는 教育의 運營面과 關聯하여 教育制度, 教育內容, 教育方法 등의 根本的인 特徵을 比較 考察함으로써 教育政策의 차이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 (1) 教育制度의 比較

教育制度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어떻게 區分하며, 몇년간으로 하느냐는 學制에 관한 것이다. 韓國의 學制와 北韓의 學制를 直接 比較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基準이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方法을 피하고, 南北韓의 各 學制의 特徵을 서술함으로써 그 차이를 대략적이거나 살펴 보고자 한다.

##### ① 韓國 學制의 特徵

基本學制面에서 韓國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國民學校 6年の 義務教育으로 되어 있고, 中等學校는 義務教育은 아니지만 1978년 현재로 中學生의 就學率이 약 90%에 가까와 매우 높다. 그리고 거의 私立에 依存하고 있는 유치원의 就學率은 약 5%로



낮은 편이다. 中學生의 취학율이 90%인데 비하여 高等學生의 就學率은 약 50%이고, 高等教育의 就學率은 약 11%로 추산되고 있다. 11) 그리고 高等教育인 경우 私立學校가 차지하는 比率이 높아서 學校數나 學生數에 있어서 私立과 國公立의 比率은 약 7 : 3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國民投票에 의하여 確定된 우리의 憲法 第 29條는 教育에 관한 內容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서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는 것과 「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는 것, 그리고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義務교육은 初等教育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다시 이어서 「法律이 定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고 하였으므로 義務教育은 初等教育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中等教育까지 擴大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制面에서 특기할 것은 國民學校의 義務교육 6년간을 끝마치면 個人의 能力과 希望, 家庭環境 등에 따라서 上級學校를 자유로 選擇할 수 있는 自由競爭的인 單線制의 學制를 採擇하고 있다는 점이다. 就學前教育은 거의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狀態이어서 그 就學率이 낮으며, 國民學校를 卒業하여 中學校에 進學할 때에 能力과 家庭環境에 따라서 一次的으로 分化되고, 中學校 3學年을 卒業할 때에 다시 二次的으로 分化된다. 그리고 高等學校를 卒業할

때에 就業者와 進學者, 또 進學者들 사이에서는 分野에 따라서 三次的으로 分化된다. 中학교의 進學率은 90%를 초과함으로 가장 重要한 個人的 選擇 및 分化(selection and differentiation)의 과정은 中學校를 卒業할 때와 高等學校를 卒業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겠다.<sup>12)</sup> 靑少年들이 이러한 進路를 택할 때에 가장 많은 影響을 미치는 것은 個人的 能力과 家庭環境으로 생각되지만 進路의 選擇은 自由意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겠다.

## ② 北韓 學制의 特徵

北韓의 學制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바뀌어졌는데 1972년에 11年制의 義務教育을 部分的으로 實施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부터 유치원 1년, 人民學校 4년, 高等中學 6년의 11年을 義務教育으로 實施하고 있다. 義務教育期間 中에는 수업료와 교과서를 無料로 하고 校服과 學用品 등도 무상 또는 學生의 負擔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이처럼 취학전 교육, 人民學校, 中等學校, 그리고 4년 내지 5년의 大學으로 이어지는 學制는 基幹學制이고, 이 以外에 工場의 勞動者들을 對象으로 하는 勤勞者學校와 工場大學 등이 있다.

北韓의 憲法은 教育에 대해서 直接的으로 여러 條項을 규정하고 있다. 北韓憲法 41條는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世代들에 대하여 全般的 10年制 高中 義務教育을 實施한다. 國家는 모든 學生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43條는 「國家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學校前 義務教育을 實施한다. 國家나 모든 學齡前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就學前 아동들을 對象으로 하는 1년간의 教育과 10년간의 初·中等教育을 義務교육으로 할 것을 憲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이 教育을 國家的인 事業으로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事實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北韓 憲法 40條는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 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과 技術教育, 教育과 生産勞動을 밀접히 결합시킨다」고 함으로서 教育事業에 대한 國家的 關心을 분명히 表示하고 있다. 北韓이 이처럼 教育을 重要視하는 가장 중요한 理由는 國家가 원하는 人間을 어렸을 때부터 形成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制度는 社會的·國家的 目標과 함께 個人的 潛在的 能力을 發展시키고 個人이 成功的인 社會生活을 할 수 있도록 準備하는 自由主義社會의 教育制度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北韓이 그들의 教育目的 즉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달성하기 위하여 學校를 思想教育의 武器로서 利用하겠다는 것은 金日成 자신의 演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金日成은 학교의 位置에 대해서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人民學校, 中學校, 高等技術學校, 大學에 이르는 教育機關들은 思想革命을 수행하는 基本手段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여 教育機關은 國家의 文化교양자적 기능

을 直接 수행하는 한개 기관으로서 思想敎養의 重要한 무기이다」<sup>14)</sup>  
고 함으로서 學校가 共產主義的인 思想敎育의 무기가 되어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學制는 思想敎育의 武器로서 利用됨과 함께 國民의 勞動  
化를 위한 수단으로도 利用되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北韓의 學制가 해방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바뀌어져 왔는데 그  
重要한 理由의 하나는 學生들의 勞動에 대한 態度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人民들이 勞動을 싫어 하거나 學校의  
卒業生들이 노동을 기피하는 경우 그것은 共產主義 社會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므로 北韓의 敎育政策은 敎育과 勞動을 결부시키는 것  
을 그 基本方向의 하나로 하고 있다. 金日成은 「敎育活動者大會」  
에서 행한 「靑少年 敎育에 있어서의 敎育者의 任務」라는 연설에  
서 「일부의 사람들은 학습과 勞動이 關係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  
기 쉽지만 이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學習하는 것은 결국 勞  
動에 必要한 知識이나 技術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다.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知識은 아무 必要도 없는 것이다. …… 우리들  
은 노동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勞動을 함으로서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學習은 언제나 勞動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sup>15)</sup> 勞動과 敎育의 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은 敎育을 어떠한 國家的인 事業 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있  
다. 취학전 敎育의 어린이로부터 고등학교를 卒業할 때까지 11  
년간을 義務敎育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徹底한 敎育制度

는 人間이 어렸을 때부터 共產主義的인 教育을 實施하여 人間을 國家의 단순한 部分品으로 만들려는 수단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 學校는 思想教育의 重要한 武器이며 國民을 勞動化하기 위한 重要한 場所인 것이다. 北韓의 學制는 이러한 公산주의정권의 根本的인 의도와 關聯하여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 (2) 教育内容面の 比較

教育의 目標은 教育의 内容과 方法의 選擇에 主要한 影響을 미친다. 民主的인 人間을 형성하는 것을 教育의 目標로 하고 있는 韓國教育은 内容도 거기에 맞추어 選擇되지만 教育의 基本目標가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化에 있는 北韓教育은 그러한 目的에 適合한 教育内容을 選擇하게 된다. 아래에서 이들을 살펴 보자.

### ① 韓國 教育内容의 特徵

教育内容은 教育課程의 構成要因을 의미하는 것이며 教科目이나 教科書는 教育内容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다. 教育의 内容, 方法 등 教育運營面の 實際問題와 關聯된 基本方向으로서 우리 憲法 第29條 4項은 「教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法은 第2條에서 民主主義的인 教育理念에 따라서 개인의 人格完成, 自我實現, 職業準備, 公民으로서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方針을 천명하고,

다시 第5條에서 「教育은 教育 本來의 目的에 基하여 運營·實施 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 派党的, 其他 個人的 편견의 선전을 위한 方面으로 利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教育의 實際 運營面에서의 方向과 原理를 提示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教育의 政治的 中立성이 강조되고 教育의 內容과 方法은 자유로운 학문의 發達을 바탕으로 하여 民主的인 人間形成이라는 教育目標와 關聯되어 選擇되어야 한다는 것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이 政治的, 派党的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學校가 政治的 사상교육의 武器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을 直接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北韓教育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原則에서 韓國教育의 內容을 分析해 볼 때에 韓國教育은 어떤 특수한 內容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肉體와 精神의 調和的인 發達을 갖춘 全人的인 人間의 형성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를 모두 教育內容으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人教育은 民主的인 人間을 形成하려는 우리 教育의 理想이며, 이에 따라서 知, 情, 意 또는 知, 德, 體의 여러 內容이 教育에서 모두 강조되는 것이다.

教科의 領域으로 보아서는 각종 학문의 發達 즉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의 학문적 바탕 위에서 편성된 教科目들이 教育內容을 構成하고 있다. 그리고 時間的으로는 傳統文化와 함께 現代 産業社會에 適應을 위한 現代的인 것들이 교수되며, 空間的으로는 韓國

的인 것만이 아니라 편협한 排他主義와 國粹主義를 경계하면서 世界的인 것도 同時에 教育의 內容을 構成한다. 이것은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金日成의 個人崇拜를 위한 內容이 教育內容의 주요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北韓教育의 內容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다. 教育의 內容과 關聯해서 볼 때에 韓國의 政策은 여러 가지 內容을 다양하게 提示함으로써 個人的 成長을 돕고 國家와 社會가 要請하는 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② 北韓 教育內容의 特徵

北韓教育의 特徵은 內容面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 憲法 40條는 教育은 다른 事業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教育과 生産勞動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北韓教育의 핵심은 政治思想教育과 生産勞動教育에 있으므로 教育內容에서도 이 두가지가 핵심적인 部分을 構成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75년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社會主義 教育理論」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共產主義 教育의 基本方向을 말해 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 資料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는 「靑少年들을 共產主義적으로 教育教養함으로써 그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것」이며, 革命에 必要한 知識, 體力, 思想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지켜야 할 教育의 原則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提示하고 있다.

첫째, 教育에서 党的 유일사상체계를 徹底히 세울데 대한 原則

둘째, 教育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原則

셋째, 教育에서 勞動階級的 선을 세울데 대한 原則

넷째, 教育에서 科學성을 보장할 데 대한 原則

다섯째, 教育과 生産勞動을 결합시킬 데 대한 原則<sup>17)</sup>

이 다섯 가지 原則은 크게 나누면 思想教育으로서 金日成의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勞動教育으로서 教育과 勞動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教育에서의 “科學性”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問題의 提起-假說의 設定-資料의 蒐集·分析-結論의 과정을 거치는 “科學的 研究”를 意味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前記한 「社會主義 教育理論」은 教育에서의 科學성에 대해서 「教育에서 科學성을 보장하는 것은 後代들을 政治思想的으로, 科學理論的으로 準備된 쓸모 있는 有能한 革命人材로 키울 수 있게 하는 담보가 된다. 教育에서 科學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後代들을 革命的 世界觀으로 武裝시키고 科學知識을 所有하도록 教育事業을 組織·進行한다는 것을 意味한다」<sup>18)</sup>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면 北韓에서 教育의 科學化라는 말은 政治思想教育이 성공하도록 하는 教育事業의 전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以上과 같이 共產主義의 教育內容은 金一成的 唯一思想을 中心으로 하는 政治思想教育이 가장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조금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세가



로 要約할 수 있는데 金日成을 偶像化 하기 위한 것, 共產主義와 黨에 忠성을 강조하는 것, 계급의식과 革命意識을 강조하기 위한 것 등이다.

첫째, 金日成을 直接的으로 偶像化 하는 內容이 教科書에 가장 많다. 물론 北韓에도 국어, 역사, 지리, 산수 등의 여러 科目이 있지만 이들 教科目은 自由主義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內容이 아니고 모두 金日成과 共產黨을 찬양하는 內容이다. 初等學校 國語教科書에 나오는 單元名을 보면 제1과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제2과가 「원수님을 보고 싶다」이다. 제4과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교훈」, 제5과에서의 「學校를 세워준 은혜」, 제6과에서의 「한글을 가르쳐 준 은혜」 등은 모두 金日成의 은혜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9)</sup>

둘째, 金日成 個人 崇拜 다음으로 많은 內容은 共產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宣傳이다. 그들은 資本主義社會를 비난하고, 날조된 표현방법으로 南北韓을 比較하면서 共產主義 社會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共產主義 社會야말로 階級이 없는 좋은 社會이고, 人類의 歷史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궁극적으로는 共產主義 社會로 發展해 간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韓의 比較에서 터무니 없는 거짓선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들에 의하면 南韓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子女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며, 하루 종일 일해도 한끼를 못먹으며, 병들어도 약 사 먹을 돈도 없다는 식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教科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 20) 韓國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事件들  
을 마치 韓國의 一般的인 狀況인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때로  
는 아주 虛僞的으로 날조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우리는 北韓의  
어린이들이 徹底하게 政治的인 目的으로 꾸며진 北韓의 教科書에  
의하여 韓國에 관해서 매우 歪曲된 情報를 주입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階級意識과 革命精神을 강조하는 內容이 많다. 그들은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勞動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  
니라 暴力革命으로서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的인 生活을 비판하고, 個人主義를  
가장 나쁜 것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勞動者들에 의한 독  
재정권을 樹立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世界的 革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격하고 鬪爭的인 용어를 使用하여 韓國과 美國에  
대한 증오심을 鼓吹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6학년 國語  
教科書는 「오늘도 美國 승냥이 놈들은 피묻은 총칼을 휘두르면  
서 항쟁의 불길 떨쳐 나선 남녘의 우리 형제들을 썩 죽이며  
어린 것들의 가슴에 총칼을 꽂고 있으니 내 어찌 이 격분을  
참을 수 있겠는가!..... 억만칼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미  
국 살인귀들을 볼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불이 인다」 21) 고 표  
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鬪爭的인 용어는 교과서의 여러 군  
데서 發見할 수 있는데 이러한 內容을 통하여 北韓靑少年들에게

鬭爭的인 意識을 鼓吹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共產主義 教養을 위한 教育에는 實習 또는 技術教育이라는 이름의 勞動이 뒤따른다. 勞動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大學에서도 반드시 教育課程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存在한다. 北韓의 技術教育은 理論的이라고 하기보다 매우 實際的이고, 勞動現場의 問題解決에 중점을 두고 있다. 全國各地에 흩어져 있는 工科大學에는 그 地方의 특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學科를 두고 있다. 예컨대, 平壤建設大學에는 건축학과 이외에 上下水道學科, 暖房換氣學科 등이 있고, 또 어떤 大學에는 교량터널학과가 있다. 21) 이러한 現場中心의 과학기술교육은 다시 一人一技教育和 같은 生活中心의 強制的인 勞動 및 技術教育和 함께 學生生活의 重要한 一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3) 教育方法面의 比較

教育目標는 教育內容의 選擇에 결정적인 影響을 줄 뿐만 아니라 教育方法의 選擇에도 重要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이 學生 자신의 個性을 尊重하면서 自律的으로 教育하는 方法을 주로 使用하는데 비하여 北韓에서는 강제적인 方法으로 集團에 의하여 주어진 目標를 達成하는 教育方法을 쓰고 있다. 다음에서 南北韓의 教育方法의 特徵을 檢討하여 보자.

### ① 韓國 教育方法의 特徵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에서는 教育의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하면서 知德體를 조화스럽게 갖춘 民主的인 人間을 형성하는 것이 教育目標이다. 그러므로 教育方法도 강제적인 方法을 使用하지 않고 個人이 스스로 社會의 규범을 內面化하고 자주적으로 必要한 知識과 技術을 學習하도록 하는 方法을 택한다. 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人化의 原理는 教育方法面에서 가장 基本的인 原理가 될 것이다. 學習者는 그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知識의 水準이나 學習의 속도 등에 따라서 그에게 가장 適合한 方法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 個人化의 原理이다. 지식의 水準이나 학습의 속도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그가 소지하고 있는 興味나 관심 必要 慾求 등에서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학습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必要와 욕구에 맞추어서 적절한 학습방법이 選擇되어야 할 것이 강조된다. 이것은 個人의 具體的인 狀況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民主主義 社會에서는 각 개인이 타고난 能力과 興味는 각각 서로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수학이나 영어를 다 좋아하고 잘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으며, 또 知的으로 우수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의 能力이 人間社會를 더욱

풍요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고로發揮할 수 있는 教育方法을 摸索하는 것이다.

둘째, 適合性의 原理를 들 수 있다. 適合性의 原理는 教育이 個人 및 社會의 진정한 必要와 適切한 關係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教育內容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별로 必要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A라는 方法이 適合할지 모르지만 그와 다른 사람에게서는 B라는 다른 方法이 더 適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確立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自律性과 自主性의 原則을 들 수 있다. 民主主義 社會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他人의 強制를 받지 않고 自律·自主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人間은 누구나 社會의 公共秩序를 파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精神的 價値와 行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民主主義社會의 한 原則이다. 이러한 價値觀을 신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指示와 命令에 의하여 他律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있다. 個人의 進路選擇도 自主적인 決定을 바탕으로 選擇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社會規範을 지키는 것도 外部的인 壓力에 의해서 보다는 自律 그 自体를 스스로 人格속에 내면화 하여 生活化 내지 習慣化 하도록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自律性과 自主性을 바탕으로 學習을 進行하려고

하는 것은 民主的인 教育의 重要한 方法上의 原理가 되는 것이다.

## ② 北韓의 教育方法

北韓教育은 方法面에서도 内容面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독특한 共產主義的인 特徵을 가지고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 憲法 第49條는 <하나는 全体를 위하여, 全体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第68條는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집단을 떠난 個人의 자유로운 思考나 行動은 일체 許容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共產主義的인 理論이나 知識을 강제로 받아 들이도록 하는 學習方法을 취하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教育은 北韓共產集團이라고 하는 政治体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社會의 規律과 질서를 社會의 構成員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도록 할 것이냐에 가장 重要한 핵심을 둔다. 自由主義 社會가 一般的으로 個人을 尊重하면서 自由로운 方法에 의하여 自主性和 自律性을, 바탕으로 하여 批判的 思考力을 형성하려는데 비하여 北韓 共產社會는 政治体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받아 들이도록 要請하는 方法을 취한다. 그러한 方法은 組織의 原理, 集團의 競爭의 原理, 統制의 原理, 强制의 原理, 自己批判의 原理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sup>23)</sup>

첫째, 組織의 原理는 個人을 社會的으로 獨立的인 存在로서 認定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組織의 일부분으로서 엮매어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個人은 한 순간도 자유로운 狀態에 있을 수가 없다. 個人이 所屬해야 하는 組織은 예컨대 家庭, 탁아소, 유치원, 학교, 각종 社會團體, 職場, 軍隊, 共産黨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심지어 國民學生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予習組, 복습하기 위해서는 複習組와 같은 것을 편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組織은 모두 공산당에 소속하여 공산당의 統制를 받으면서 共産主義的인 思想教養教育이라는 것과 聯關性을 맺고 있다. 즉 個人의 일거 일동의 行動은 共産黨의 統制下에 있는 각종 團體와 機關에 의하여 強力한 간섭을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으로 個人을 얽어메려고 하는 것은 教育의 過程에 있는 靑少年들에게만 該當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現場에 있는 勤勞者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둘째, 集團的 競爭의 原理는 集團은 集團끼리, 集團内部에서는 個人들끼리 업적을 내기 위한 競爭을 시켜서 黨이 원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方法을 의미하는 것이다. 個人과 단체는 競爭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해야 하며 競爭에 낙오하는 경우에는 社會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個人의 目標를 認定하지 않고 언제나 團體가 정한 目標를 업적을 통해서 達成해야 하는 것이다. 競爭의 과정에서 人間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非人間化의 한 모습이다. 生後 教個月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團體的 訓練을 實施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며, 공산집단이 자랑스럽게 내세우

는 생산목표의 超過達成도 실은 이러한 非人間化의 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統制의 原理이다. 統制의 原理는 個人의 자유로운 言語나 行動 또는 見解를 許容하지 않고 黨에 의하여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統制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共產主義 哲學이나 教育理念에 대한 해석도 黨에 의한 公式的인 해석이나 教育 以外에는 일체 認定되지 않는다. 이 점은 自由主義 社會에서 一般的으로 靑少年들이 학교와 같은 公式的인 教育 이외에 家庭, 대중매체 등 非公式 教育의 影響을 많이 받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하겠다. 教科書의 內容이 모두 統制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教師가 가르쳐야 할 것도, 학생이 배워야 할 것도, 모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國家와 黨에서 원하는 것 以外에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도록 嚴格하게 統制되어 있다.

넷째, 强制의 原理이다. 强制의 原理는 政治體制가 원하는 것을 國家의 權力에 의하여 個人에게 强制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주의 社會에서는 自律性을 기초로 하여 思考하고 行動하는 것이 하나의 原則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共產主義社會에서는 强制가 原則으로 되어 있다. 强制라는 것은 根本적으로 “힘”에 의하여 個人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共產黨이 원하는 행동을 個人이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個人은 예컨대 학교에서 學習하는 것이 좋건 싫건 학습하지 않을 수 없으며 學習內容이 마음에 들건 안들건 적어도 겉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自己批判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方法을 학습에서 使用한다. 이것은 個人이 集團 앞에서 自己 自身을 스스로 反省하고 批判함으로서 집단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方法이다. 대중 앞에서 自己를 비판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이러한 方法에 의하여 個人의 尊嚴性을 파괴하여 團體에 복종시키는 분위기를 形成하는 매우 非人間的인 方法이라고 하겠다. 또 서로가 서로를 監視함으로서 個人을 통제하기 위한 方法으로도 使用하는 것이다.

共産主義的인 教育方法의 특수성을 서술함에 있어서 하나 더 참가해야 할 재미있는 사실은 靑少年들의 不滿을 교묘하게 利用하는 方法을 摸索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地主」, 「資本家」, 「美帝」, 「南韓의 執權者」, 「日帝」, 「反動分子」, 「機會主義者」, 「民衆의 敵」 등을 對象으로 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어 靑少年들의 불만을 발산하도록 하는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다. 北韓은 “ 때려부시자 ” “ 쳐부시자 ” 등의 매우 공격적이고 鬪爭的, 호전적인 과격한 구호를 靑少年들에게 고무하여 그들의 불만을 터뜨리도록 유도 하고 있다.

#### Ⅳ.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比較

오늘날 世界 各國은 모두 靑少年 育成에서 靑少年團體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産業社會에 오면서 靑少年期가 길어지고 社會組織의 分化와 함께 靑少年들의 行動에 미치는 靑少年 文化的 影響이 부모나 교사들보다도 더 중요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과 北韓은 모두 靑少年團體를 가지고 있으며 그 育成을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社會적으로 차지하는 位置나 國家가 育成하려는 目的이나 方法에는 根本的인 차이가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 (1) 韓國의 靑少年團體

自由主義 社會에서 靑少年團體는 産業社會의 到來와 함께 社會의 관심을 끌어 왔다. 社會의 發達과 함께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이 弱化되어 靑少年들에 대한 成人들의 影響力도 감소되어 간다. 또 核家族의 出現과 함께 靑少年들은 父母들보다도 그들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는 것이 教育學者나 社會學者들에 의하여 많이 指摘되어 왔다. 靑少年團體는 이러한 狀況에서 弱化된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의 기능을 보충하고 더욱 연장하여 靑少年들이 자기 자신의 發展은 물론 國家와 社會의 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社會的 役割을 수행하고

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靑少年白書」( 1978 )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20 여개의 각종 靑少年團體가 있다.<sup>24)</sup> 이들 靑少年團體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같은 각종 종교적 理念에 의하여 設立되어 그러한 理念을 實現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의 向上을 위하여 設立된 것도 있다. 또 靑少年들의 知的, 身體的 단련을 위하여 設立된 순수한 教育的인 團體도 있다. 이들은 自律的인 民間團體이며 民主主義的인 理念을 기초로 하여 靑少年들의 健全育成을 目標로 活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團體는 제 각기 서로 다른 設立理念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靑少年의 健全育成이라고 하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具體的인 目標는 제 각기 다르며, 多樣的 背景을 가지고 서로 다른 靑少年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그들은 特定한 政治擔當者나 政黨을 위하여 政治活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活動은 設立理念의 추구, 靑少年問題에 대한 討論, 學問的인 活動, 오락활동, 스포츠, 캠핑, 교양강좌 등이며 民主的인 市民과 指導力의 育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韓國에서 民間人들에 의한 靑少年團體는 國家組織의 一部가 아니며, 훌륭한 市民을 형성한다는 國民과 國家의 공동목표를 達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靑少年들의 습관이나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國家가 획일적으로 方向을 提示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政策이 아니라 國家는 民間人들

의 靑少年團體를 支援하고 育成함으로서 이들 靑少年團體의 活動을 통하여 靑少年들이 健健하게 成長해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 (2) 北韓의 靑少年團體

北韓에서도 靑少年團體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언제나 個人을 組織의 한 部分으로 묶어 두려는 北韓社會에서 靑少年團體는 共產主義的인 組織의 일부를 構成하고 있다. 金日成은 家庭教育과 社會教育, 學校教育의 일관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오면서 靑少年團體의 社會教育的인 役割을 강조했다. 그는 「家庭教育과 社會教育, 學校教育은 서로 뗈 수 없으며, 이것은 언제나 병진시켜야 하며, 옹기 배합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대한 教養事業은 처음에 家庭教育으로부터 시작되고 學校教育을 거쳐 그 기초가 닦아지는 것이며, 社會教育을 통하여 繼續 完成된다」<sup>25)</sup>고 말하고 있다. 北韓에서 靑少年團體는 이와 같이 共產主義的인 人間을 형성하기 위한 家庭教育이나 學校教育과 같은 次元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北韓의 靑少年團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少年團과 社會主義 勞動靑年同盟 즉 社勞靑이다. 모든 靑少年들은 8세에서 13세까지 少年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 期間이 끝나면 14세에서 30세까지 少年團의 上급기관인 社勞靑에 義務的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sup>26)</sup> 이들 靑少年團體는 우리 나라의 靑少年團體와 같이

자율적인 民間團體가 아니라 共產主義적인 靑少年을 育成하기 위한 國家組織의 한 部分으로 理解된다. 北韓에서 個人은 언제나 組織의 한 部分으로서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은 少年團과 社勞靑이라는 靑少年團體를 共產主義적인 組織의 한 部分으로 두어 靑少年들을 統制하는 수단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少年團은 社勞靑少年部の 指導를 받고 社勞靑은 勞動黨의 指導를 받는다. 少年團 入團時에는 「나는 朝鮮少年團에 입단하여 共產主義 後備隊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선서하고, 社勞靑 入團時에는 다시 「黨과 同盟의 要求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헌신분투할 것」<sup>28)</sup>을 서약하고 黨과 金日成에 忠直할 것을 맹세하는 政治的 선서를 한다. 이러한 맹세를 하고 이들 團體에 강제적으로 가입당한 靑少年들은 共產主義教育의 基本方向 즉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化의 노선에 따라서 黨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 노동애호사상 강조, 革命的인 성격 고취, 자기비판 등 共產主義者들이 採擇하고 있는 一般的인 教育活動을 展開한다.

北韓에서 靑少年들이 團體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勤勞者들이 각종 團體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勤勞者들은 각종 職業別로 構成되어 있는 朝鮮職業總同盟이나 社會主義 女性同盟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團體에서는 수시로 相互批判을 행하고 共產主義 사상을 위한 學習을 통하여 構成員에 대한 統制를 강화한다. 1973년 金日成은 靑少年團體의 活動을 計劃的인 共產主義

교육의 일부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靑少年 課外教養事業(社會教育의 한 부분)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sup>28)</sup>

첫째, 靑少年 課外教養事業에서 黨의 지도와 責任하에 「少年團」 「社勞靑」 組織의 機能과 役割을 더욱 높여야 한다.

둘째, 政治思想教養事業을 위주로 하고 知德體教養을 밀접히 결합하여 社會主義 教育學의 원리를 徹底히 貫철해야 한다.

셋째, 靑少年들의 연령, 심리적 特性에 맞게 課外教養事業을 인기 있고, 매혹력 있게 進行해야 한다.

네째, 靑少年의 課外教養事業에 대하여 社會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靑少年教育의 方向을 통해서 靑少年團體의 주요한 目的이 政治思想教育和 靑少年의 統制에 있음을 곧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共產主義精神은 家庭과 學校教育을 거쳐 社會教育을 통하여 完成되는 것이라고 하는 前記한 金日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計劃的인 共產主義教育의 한 부분으로서 靑少年團體를 利用하려고 하는 그들의 政策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 V. 評 価 및 論 議

靑少年에 대한 南北韓의 教育政策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特徵 뿐만 아니라 長短點을 比較하면서 바람직한 方向을 提示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評價를 위해서는 이 研究가 評價의 기준설정이나 評價를 위한 資料의 수집면에서 너무 未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論議를 바탕으로 하여 극히 假說적으로 이들 比較가 주는 示唆點들을 서술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南北韓 教育政策의 차이를 綜合해 보고, 다음에 그것이 統一教育에 주는 示唆點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 (1) 南北韓 靑少年 教育政策의 差異點

첫째, 靑少年에 대한 南北韓의 教育政策은 理想的인 靑少年像이나 그러한 靑少年像을 形成하기 위한 方法, 課程면에서 根本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靑少年教育政策은 關聯된 문헌과 그 해석을 종합해 볼 때에 民主主義의 理念 아래에 人間존중 및 자아실현 등이 강조되며 個人的 自由와 自律性을 바탕으로 한 民主的인 社會와 國家의 發展 등이 강조되는 政策을 취한다. 여기에서 가장 重要한 핵심은 民主主義社會에서는 人間이 최고의 價値를 가지며 人間 以外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人間의 價値가 종속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韓國의 民主的인 教育政策에 비하여 北韓의 共產主義的인

靑少年教育政策은 共產主義의 理念 아래에 金日成 유일사상에 입각한 思想教育, 勞動과 教育의 結合, 유치원·學校·社會·靑少年團體 등의 組織과 體制속에서의 徹底한 教育 등에 의하여 “ 共產主義的인 人間 ” 을 形成하려고 한다. 北韓이 公式的으로 내세우는 教育의 目的은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化이며 自由主義 社會 一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個人的 潛在的 能力開發이라던지 自我實現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共產主義教育은 個人的 尊嚴性을 全然 認定하지 않고 靑少年들을 體制와 組織을 이루는 단순한 하나의 수단이나 부분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韓國의 靑少年 教育政策이 人間主義的이라고 한다면 北韓의 靑少年 教育政策은 鬭爭的, 好戰的인 政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韓國의 靑少年 教育政策은 多樣性을 根本原理로 하는데 비하여 北韓의 靑少年 教育政策은 劃一性을 根本原理로 한다는 데에 重要한 差異點이 있다. 韓國에서는 教育理念, 教育方法 뿐만 아니라 教育運營面에 있어서도 國家에 의해서 決定되는 劃一的인 해석이나 方法은 存在하지 않으며 靑少年들은 學校와 같은 公式教育機關 뿐만 아니라 家庭과 社會의 多樣한 教育機會를 통하여 公式·非公式 教育機關의 影響을 받고 成長한다. 그리고 國民教育憲章과 같이 韓國教育의 基本方向이 명시된 文헌이 있지만 그것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을 意味하느냐에 대한 해석은 多樣하게 存在한다.

이에 비하여 北韓에서는 靑少年의 教育政策에 대하여 黨에서 규정 한 하나의 해석만이 劃一的으로 存在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느냐에 대해서도 公式的인 하나의 解釋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解釋은 대개 金日成의 연설에 그 最後의 根據를 둔다.

北韓의 劃一的인 靑少年 教育政策은 1970年代에 오면서 더 強化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8년에 国土統一院이 발표한 「北韓異質化 實態調査」는 해방 후 北韓에서 南韓으로 월남한 사람들을 對象으로 그들의 意識構造를 調査한 것인데 이 調査에 의하면 北韓教育政策의 劃一化가 最近에 더 強化되고 있다. 약 90명을 對象으로 한 이 調査에서는 1970年代에 오면서 金日成의 指導力과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態도와 「家庭과 부모보다 黨을 따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比率이 과거보다 많아져 가고 있다.<sup>29)</sup> 이러한 傾向은 自主的인 意識의 弱化, 無關心, 盲從과 같은 態度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편 北韓의 劃一的인 상교육이 더 強化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統一教育에 주는 示唆點

靑少年에 대한 南北韓의 教育政策이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를 때에 그러한 政策에 의해서 成長하는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어떻게 다르며, 그것은 統一後繼世代로서의 우리의 靑少年들을 위한 教育政策에 어떠한 것을 示唆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 研究의 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관한 경험적인 調査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이 研究는 南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 — 자체를 分析 比較하려는 것보다 意識構造 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教育政策의 차이점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教育政策의 結果로서 産出되는 靑少年들의 意識에 대해서도 制限된 테두리 안에서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韓國과 北韓은 1945年의 南北分斷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歷史적으로 同一하게 形成된 民族文化를 바탕으로 生活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45年 以後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고 하는 서로 다른 政治的 이데올로기에서 實施되는 教育에 의해서 靑少年들이 이제 完全히 한 世代를 경과했으므로 靑少年들의 價値觀이나 世界觀, 그리고 행동양식은 韓國과 北韓 사이에 相當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상된다. 특히 北韓이라고 하는 政治的 體制가 強制的으로 靑少年들의 行動을 鬪爭的이고 호전적으로 發展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統一教育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統一教育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우리의 靑少年들이 民主的 體制의 우월성과 確固한 市民意識 및 國家意識을 그들의 人格 속에 스스로 內面化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北韓에서 개인의 行動을 劃一的으로 統制하는 方法은 金日成의 一黨體制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體制가 어

떠한 原因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또는 國際的 情勢와 같은 外的 要因이나 産業化에 의한 社會變動과 같은 內的 要因으로 體制에 變化가 왔을 때에는 그러한 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靑少年을 育成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教育政策은 人間의 존엄성, 自由와 平等의 尊重이라는 民主主義的인 理念의 테두리에서 教育의 理念에 대한 해석이 多樣하게 論議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發展과 創造의 可能性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성과 融通性이 教育의 基本方向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社會와 國家의 發展을 위해서는 개인의 自律的인 參與가 매우 중요한데 教育이 社會와 國家의 發展보다도 개인과 家族만을 위한 利己的인 動機에 의해서 支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로 다른 意見에 대한 討論과 創意的인 探究를 통하여 수준 높은 意識을 형성하고 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彈力的인 適應力을 가진 靑少年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教育의 커다란 長點으로 發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教育은 앞으로 民主的인 人間의 形成과 國家發展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個人을 초월하여 自己 自身을 社會와 國家의 一員으로서 認識할 수 있는 市民意識과 國家意識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民主的인 理念과 規範을 스스로 人格 속에 內面化할 수 있는 靑少年들의 形成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教育制度面에서 學生들의 學習이 종래의 課外授業과 같은 個人的인 私教育에 依存하도록 하지 말고, 公教育인 學校教育을 充實化해서 그

機能과 役割을 강화하는 것이 重要하다. 義務教育의 期間延長과 內的 充實化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教育方法面에서는 강의에 의하여 學習內容을 암기하게 하는 수업방법보다도 학생들이 학습에 스스로 參與하도록 하는 協同的이고 參與的인 學習方法을 더욱 研究開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윤리교육에서 더욱 切實한 問題이다.

## VI.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靑少年에 대한 南北韓의 教育政策을 比較하면서 그 차이점을 檢討하여 보았다.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의 서술을 요약하면서 이 研究가 統一教育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檢討하는 것으로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南北分斷이 된지 35년이 지난 오늘날 大韓民國에서는 民主主義的인 教育에 의하여 靑少年들이 성장하여 왔고, 北韓에서는 共產主義的인 教育에 의하여 靑少年들이 成長하여 왔다. 분단된 國土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고 韓半島에 진정한 民主主義를 發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南北韓 教育政策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에 의하여 形成되는 靑少年들의 國家觀이 어떤지를 檢討하여 統一을 위한 靑少年 教育政策의 方向과 方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이 研究는 이러한 뜻에서 南北韓의 靑少年教育政策을 比較 檢討하여 統一後繼世代인 靑少年教育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데에 目的이 있었다.

靑少年教育政策의 比較는 이처럼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內容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는 靑少年에 대한 教育政策을 教育理念의 比較, 教育運營面의 比較,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比較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考察하고 이들 比較에서 發見되는 差異點의 意味를 살펴 보려고 했다. 教育運營面의 比較에서는 學制, 教育內容, 教育

方法의 세 가지를 비교하였다. 아래에서 이들 項目들을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理念 또는 教育目的을 比較해 볼 때에 南北韓 사이에는 根本적으로 다른 差異가 있다. 教育理念은 教育이 궁극적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가치, 理想的인 人間像 또는 教育目的 등을 意味한다. 韓國의 教育理念은 헌법에는 直接的으로 表現되어 있지 않지만 教育法 1條와 2條 등 關聯된 文헌을 綜合적으로 考察할 때에 民主主義의 理念 아래에서 人間의 尊重, 自我實現, 人格의 完成, 職業準備와 生活能力의 增進, 國家·社會를 위한 公民의 自覺 向上 등을 통하여 “民主的인 人間”을 形成하는 것이 그 基本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靑少年 教育理念은 北韓憲法 39條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後代들을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인 새 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그 基本方向은 共產主義의 理念 아래에 全人民의 共產主義化,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教育의 目標로 하고 金日成 유일사상에 입각한 思想教育 강조, 勞動과 教育의 結合, 徹底한 組織 속에서의 教育, 鬪爭的인 方法에 의한 혁명성 강조 등으로 共產主義的인 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둘째, 教育運營面의 比較에서 보면 韓國의 學制는 國民學校 6년을 義務教育으로 하고, 個人의 能力과 希望, 家庭環境 등에 따라서 上級學校를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單線制의 學制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內容面에서는 知德體를 고르게 갖춘 全人的인 人

間을 理想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教育內容을 편과적으로 강조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學問을 바탕으로 하는 教育內容을 모두 조화있게 教育하는 것이 特徵이다. 또 教育方法面에서는 強制的으로 知識이나 價値觀을 주입시키려는 態度를 취하지 않고 學生들이 自主적이고 自律적으로 知識을 學習하고 價値觀을 內面化하도록 하는 方法을 理想的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學制, 教育內容, 方法 등은 매우 독특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教育의 과정에서는 黨에서 認定하는 公式的인 理論이나 해석만이 劃一的으로 適用되는 것이다. 취학전 교육 1년과 10년의 初中等教育을 합하여 11년의 義務教育을 憲法에 明示하여 實施하고 있는데 이는 共產集團이 원하는 人間을 일찍부터 強제적으로 形成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다. 教育內容面에서는 金日成을 偶像화하는 것, 資本主義와 韓國社會를 批判하는 것, 共產主義的인 革命精神과 勞動을 강조하는 것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方法面에서는 集團主義的, 強制的, 鬭爭的인 方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集團의 앞에서 自己 自身の 잘못을 비판하고 認定해야 하는 方法도 흔히 使用한다. 北韓에서는 集團을 떠난 個人의 자유로운 思考와 行動은 일체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共產主義的인 理論이나 知識을 強제로 받아 들이도록 하는 方法을 취한다. 그리고 「地主」, 「美帝」, 「資本家」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고 「때려 부시자」는 등 과격하고 鬭爭的인 언어로 靑少年들의 不滿을 발산하도록 하는 공격적인 方

法을 使用한다.

셋째,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을 比較해 볼 때에 韓國의 靑少年團體는 多樣한 배경을 가지고 設立된 民間的인 靑少年團體들이 政治的인 活動을 떠나서 設立理念의 추구, 靑少年問題에 대한 討論, 학문적인 活動, 오락, 스포츠, 캠핑, 敎養講座 등의 活動을 추구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모든 靑少年들이 8세에서 13세까지 少年團에 입단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社會主義 勞動靑年同盟 즉 社勞靑에 入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共產主義의 基本敎育方向에 따라서 黨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 勞動愛護思想, 革命的인 성격고취, 자기비판 등을 強調한다. 北韓에서 靑少年團體는 計劃的인 共產主義 敎育機關의 一部分으로서 政治的인 目的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敎育政策의 차이에 따라서 南北韓의 靑少年들은 意識構造나 行動面에서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北韓의 敎育政策이 靑少年들을 호전적이고 鬪爭的으로 이끌어 갈 때에 우리의 統一敎育에서는 이에 대한 對應策을 準備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靑少年들이 民主體制의 우월성을 깊이 認識하면서 確固한 市民意識과 國家觀을 가지고 우리 社會가 要請하는 規範을 自律的으로 그들의 人格 속에 內面化 하도록 하는 問題일 것이다. 敎育政策에 대한 多樣한 論議와 해석이 可能하고 또 個人의 自由와 自主性이 보장되는 것은 우리 社會의 民主的인 發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性이 教育의 方向感覺을 둔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또 教育이 個人과 家族만을 위하는 利己的인 것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義務教育의 期間延長과 충실화, 協同적이고 參與的인 學習方法에 대한 研究開發 등이 앞으로 더욱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 研究는 資料의 未備 등 몇가지 이유로 南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를 직접 比較·分析하지 못하고, 그러한 意識의 形成에 影響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教育政策의 몇 가지 要因을 分析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教育政策의 比較研究 뿐만 아니라 靑少年들의 意識構造 그 自体도 比較·分析되어 南北韓의 異質化過程에 대한 研究가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로부터 우리의 靑少年들을 위한 올바른 指導方法도 摸索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 註

- 1) 예컨대 1920年代에 美国 青少年들의 政治的 社会化 過程을 研究한 메리암 ( Charles Merriam ) 이나 1960年代에 같은 문제를 研究한 앨먼드와 버바 (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 등은 모두 政治的 社會化에 있어서 學校의 役割이 가장 높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Charles Merriam, The Making of Citizens (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1 ),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參照.
- 2) Raymond A. Bauer and Kenneth J. Gergen, The Study of Policy Formation ( New York : Free Press, 1968 ), p.15.
- 3) Charles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olicy ( North Scituate, Mass : Duxbury Press, 1977 ), p. 4.
- 4) 白賢基, 教育政策研究 ( 서울 : 教育資料社, 1966 ), pp.64-66.
- 5)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p.41.
- 6) 前掲書, p.48.
- 7) 前掲書, p.1.
-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

- 전적 로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계」 해설문집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p.14.
-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역사과학, 1980년 1월호, 목차 참조.
- 1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1, 원시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p.12.
- 11)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8-1991 (서울: 韓國  
教育開發院, 1978)이 제시하는 資料 參照.
- 12) 韓國의 學制에 의한 學生의 進路模型과 選擇 및 分化의 過程에  
관한 研究로서 大韓教育聯合會, 學制에 관한 研究, 政策研究 第22  
輯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76)을 들 수 있다.
- 13) 國土統一院, 北韓概要 (서울: 國土統一院, 1979), pp.173-181.
- 14)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38.
- 15) 金日成, 社會主義教育論 (東京: 未來社, 1974), pp.120-121.
- 16)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p.48.
- 17) 前揭書, pp.54-103.
- 18) 前揭書, p.89.
- 19) 朴容憲, “北韓의 政治教化教育,” 北韓教育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7),  
pp.306-309.
- 20) 前揭書, pp.310-311.
- 21) 前揭書에 引用된 北韓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6학년용, pp.90,  
92.

- 22) 北韓研究所, 北韓教育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7 ), pp.465-466.
- 23) 朴容憲, 전계 논문.
- 24) 國務總理企劃調整室, 靑少年白書, 1978 ( 서울: 國務總理企劃調整室, 1978 ), p.263.
- 25)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pp.256-259.
- 26) 国土統一院, 北韓靑少年的 社會化過程研究( 서울: 国土統一院, 1978), pp.52-57 및 pp.136-154.
- 27) 前揭書, pp.138-147.
- 28) 宋柄淳, “北韓의 社會教育,” 北韓研究所, 北韓教育論, pp.566-567.
- 29) 国土統一院, 北韓異質化實態調查( 서울: 国土統一院, 1978 ), pp.80, 179, 588 參照.

## 参 考 文 献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해설논집.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国土統一院.北韓靑少年의 社會化過程研究. 서울: 国土統一院, 1978

\_\_\_\_\_.北韓異質化 實態調査. 서울: 国土統一院, 1978.

\_\_\_\_\_.北韓概要. 서울: 国土統一院, 1979.

金日成. 社會主義教育論. 東京: 未來社, 1974.

北韓研究所.北韓教育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7.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AL POLICIES FOR YOUTH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Kyung Soo Cha\*

It has passed 35 years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 1945. Those who were children 35 years ago are now all adults and participating actively in national affairs. During the period of the last 35 years, the youths in the South have been grown up by democratic education, while the youths in the North have been grown up by communist education. For the achievement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Korean peninsula, it seems necessary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polic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lso the values and attitudes of youths which were formed by two different educational policies and ide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policies for youths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o help us plan the education for

---

\* He received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9, M. Ed. from the University of Hawaii in 1969, and Ph. D. from Syracuse University in 1972. He is now an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and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fication.

Because the concept of educational policy is very broad, the specific problems of the study must be decided. In this study educational purpos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and national policies about youth organizations are examined for the comparison of educational policies. The brief summary of the study on these problems will be presented below.

First, there are basic differences between educational purpo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ROK, revealed in Education Law and related documents, can be said to form a "democratic man" by developing the respect for human being, character formation, self-actualization, preparation for one's career, and citizenship.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education of North Korea is to form a "communist man" who has a unshaken revolutionary spirit and who loves labour. Premier Kim Il Sung of the North emphasized three purposes of North Korean education: to make all people communists, revolutionists, and labourers. Their educational purpose is thus very militant and subversive.

Secondly,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are also very different between the ROK and North Korea.

In the ROK, finishing the six years' compulsory education, youths develop their own career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interests and family backgrounds. With regard to curriculum, diverse areas of school subjects are taught for harmonious development of a whole man with intelligence, virtues and strong body. I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study is highly recommended. Teachers do not force students to do certain things. Autonomy of the student is respected.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11 years of schooling is compulsory. We must here be careful that the compulsory education of North Korea is a simple means of driving people toward the direction that the communist regime plans. The most part of the textbooks of North Korea are filled with the sentences and pictures which praise Premier Kim Il Sung and with unfair criticism against democratic nations. They use competition, self-criticism, group coercion and other militant methods for their teaching.

Thirdly, with regard to policies for youth organization, the ROK allows and supports many civil youth organizations which are established by religious foundations such as Christianity, Buddhism and Catholicism. They are voluntary organi-



zations. In North Korea, however, all children must be a member of Youth Corps from 8 to 13, and then again must be a member of Socialist Youth Labour Organization. They teach loyalty to Premier Kim, love for labour, respect for revolutionary spirit, and self-criticism. In a word the youth organization in North Korea is a part of political organization of communist regime.

Given these situations, the ROK must examine carefully the militant youth education of North Kore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ROK seems to make youths believe in the excellence of democratic system and internalize the desirable values and norms of our society. Education for good citizenship will help youths develop their character in the ROK. Also, the extension and improvement of compulsory education,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by students must be more considered.

Although this study did not deal with the values and attitudes of the youths in the ROK and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materials, such value analyses of the youths are highly needed in the future. We may find the right direction for youth guidance with the help of such studies.



# 分斷國의 青少年教育政策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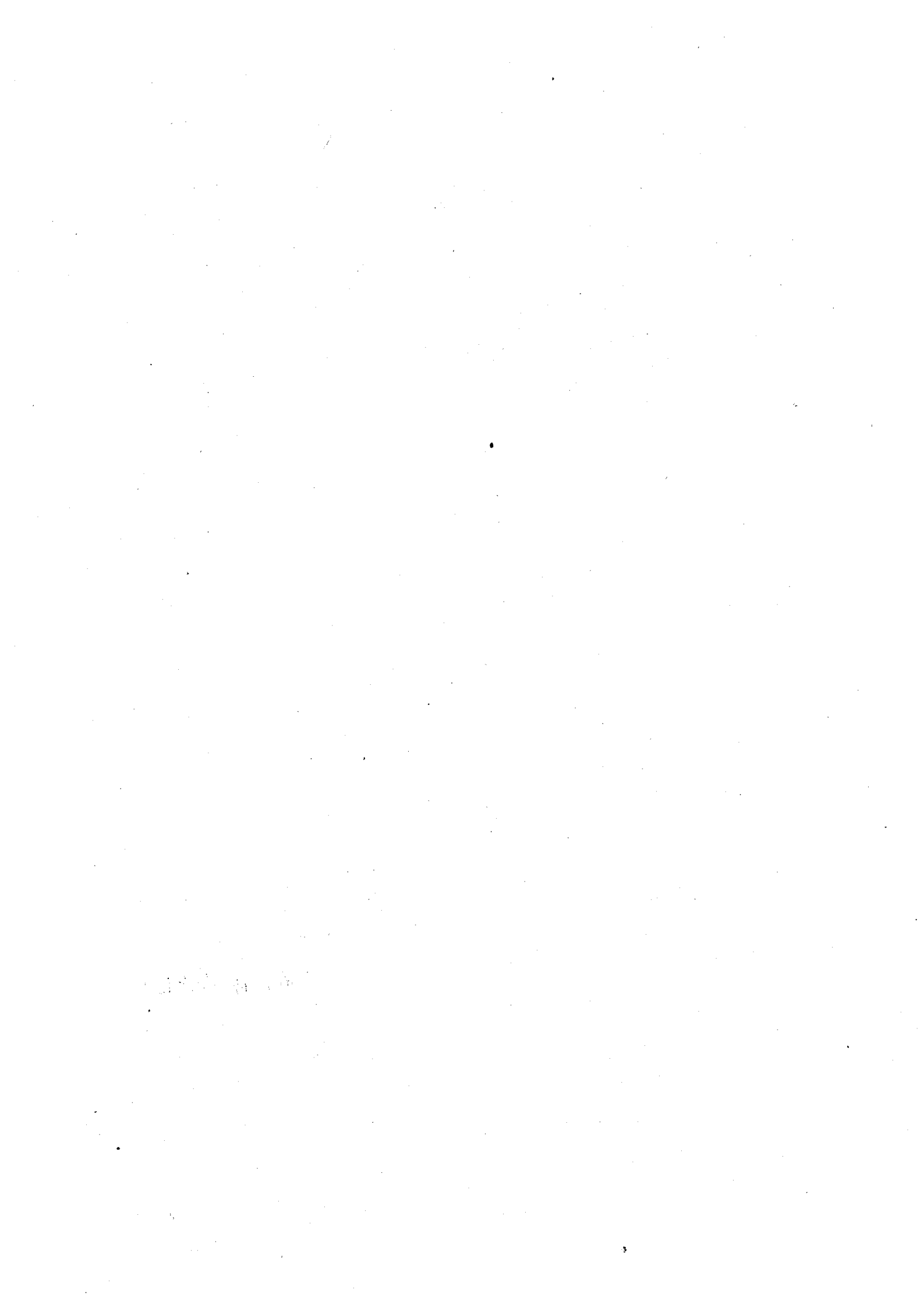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鄭 用 吉

(略歷) 東國大 卒業

東國大學院 卒業

西獨 하이델베그大學 政治學 博士

現 東國大 法政大 助教授



## 要 約

第二次 大戦以後 分断된 나라는 韓国, 中国, 베트남 그리고 独逸이지만 여기서는 東·西独의 青少年 教育政策을 다루고 있다.

이 論文은 四章으로 構成되어 있는 데

第Ⅰ章에서는 우선 政治教育이란 무엇이고, 各 國家는 왜 이러한 政治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러한 教育을 担当하는 機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独逸分断의 背景과 分断後의 青少年 教育政策과 關聯하여 兩独의 統一政策을 比較檢討하고,

第Ⅱ章에서는 兩独 政治教育目標의 比較로서 2節로 나누어 東独과 西独青少年의 政治教育目標를 比較하며,

第Ⅲ章에서는 兩独 政治教育의 內容 및 方法上의 比較로서 이것도 2節로 나누어 東独과 西独政治教育의 內容 및 方法을 考察하고 있다.

第Ⅳ章에서는 대개 以上の 것을 綜合하면서 西独에서 調査研究된 政治教育成果에 대한 分析을 토대로 政治教育의 課題와 目標, 內容과 教育方法등에 대한 批判的 態度를 살펴본다.

물론 共產主義國家인 東独과 資本主義 國家인 西独의 教育政策을 比較하는데는 教育制度는 물론 教育目標, 教育內容이 서로 相異하고 教育政策을 比較할 수 있는 같은 水準의 統計資料도 充分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東独은 中央統制的인 教育政策을 취하고 있고, 西独에서의 教育은 各 洲政府의 權限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東·西独

의 教育政策을 比較하는 데는 많은 制限點이 있다.

이 要約文은 「西獨의 政治教育」 「東獨의 政治教育」 그리고 「政治教育의 問題點」으로 나누어 作成한다.

### (西獨의 政治教育)

一般的으로 政治教育에서는 人間이 共同生活을 하고 있다는 點에서 共同生活에서 가장 중요한 秩序維持를 위한 遵法精神과 公益優先精神 그리고 協同精神을 강조한다. 그리고 「나」와 이웃, 社會, 國家 또는 體制를 지키거나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批判과 決斷에 必要한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인 諸 知識들을 심어준다.

또한 友好的인 國家들과 敵對的인 國家들에 대한 情報과 知識을 비롯하여 國際情勢에 관한 知識들을 傳達하고 더 나아가서 國家는 國民을 保護하고, 國民各者가 그들의 個性과 資質을 啓發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다시 國家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知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어 훌륭한 「市民」으로 教育시키는 것을 主된 內容으로 한다.

比較的 이러한 精神에 가깝게 政治教育을 施行하고 있는 西獨에서는 특히 國民의 「基本權」을 강조하면서 「히틀러」의 나치時代를 회고하고 批判한다. 國民의 基本權이 박탈되던 그 당시를 「警察國家」라고 지적하며, 民主的인 法治國家를 지켜나가야 國民의 基本權이 保障될 수 있다고 일깨워 준다.

이러한 西獨에서의 政治教育은 家庭에서는 물론, 職場에서 教育을

통하여 實施되고, 靑少年組織들과 많은 靑少年 教育機關들, 政党, 教會, 勞動組合 그리고 各種 利益集團과 같은 社会的 그룹들로부터 支援을 받는다. 또한 新聞, 라디오 TV와 같은 매스컴도 教育에 一翼을 担当하고 靑少年들의 활발한 클럽活動과 靑少年들의 國際交流도 산 政治教育이 되고 있다.

### ( 東獨의 政治教育 )

東獨에서는 反파시즘·共産主義그룹들이 1946년에 「獨逸學校의 民主化를 위한 法」을 만들어 이른바 「反파시즘·民主的인 學校改革」이 일어났다.

그後 東獨 教育政策과 教育制度의 소비에트化 過程을 거쳐 「教育과 生産의 聯関論」과 「政治와 教育의 一體論」에 입각하여 教育에 있어 思想的인 側面이 강조되었다.

1946년에 組織된 「自由獨逸靑少年團」(FDJ)은 오늘의 東獨 靑少年政治教育에 대단히 큰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1976년 東獨 統計年鑑에 따르면 中·高·大學生の 約 96%가 이 FDJ 組織에 加入되어 있고, 이 組織은 東獨 全体靑少年들의 生活領域에 매우 넓고 깊게 파고 들어 東獨의 靑少年들이 이 組織의 影響을 벗어나기란 거의 不可能하고 FDJ의 事業들도 政治, 經濟, 社会生活의 모든 領域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FDJ는 다만 「獨逸社会主義統一黨」(SED)의 豫備隊나 同調者만이 아니고 스스로 작은 政党의 形態로 政治教育을 맡고 있는 實情이다.

東獨에서의 政治教育은 靑少年들에게 확고한 階級觀을 傳達하고, 모든 靑少年들에게 全体를 위한 思考, 全体를 爲한 行爲의 本質을 規定하고 나아가 個人을 社会主義社会에 있어서의 基礎로 본다. 그들은 「맑스-레닌主義」의 教育和 竝行하여 東獨의 地位向上을 위한 祖国觀의 傳達과 社会主義世界觀을 周知시키고 帝國主義의 敵으로부터 祖国防禦의 内容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最大目標인 生産量의 增加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促進되는 것과같이 東獨에서도 靑少年들을 그들의 政治·社会目標에 맞게 組織化하고 있으며 靑少年들을 社会主義建設의 前衛隊로서의 役割을 하도록 教育시키고 있다.

#### ( 政治教育의 問題点 )

1972년 兩國間에 基本條約이 調印된 以後에 出版된 東獨과 西獨의 靑少年政治教育 教科書들에는 統一政策에 관한 内容은 거의 사라지고 西獨에서는 「內獨關係」를, 그리고 東獨에서는 「平和共存」에 관하여 紙面이 할애되고 있는 實情이다.

西獨에서의 政治教育成果에 관한 調査에 따르면 學校授業만을 통하여서는 學生들을 民主的인 市民으로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理由는 政治에 관한 授業에서는 대부분 政府機構, 機關에 관한 知識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러한 知識의 傳達만 으로서는 學生 個人들의 環境과 狀況 그리고 學生들이 매일 매일 겪는 社会와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미켈」(Wolfgang Mickel)은 政治教育이란 대부분 自己体制의 擁護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變化 또는 批判은 전혀 擧論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셴케」(Hermann Giesecke)도 政治教育을 너무 保守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政治的 批判運動의 要求에도 맞추어 後繼世代들을 後期資本主義의 社会体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政治教育의 實際에 대한 批判없이 그 教育自体도 非民主적으로 되어지고, 非民主적인 方法으로 이루어진 靑少年 政治教育은 아무리 政治教育의 目標가 理想的인 民主型이라고 하더라도 非民主적으로 教育되어 진다고 꼬집는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의 目標와 課題, 內容과 教授方法등은 繼續 討論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 目 次

I. 머 리 말.....	189
II. 政治教育 目標의 比較.....	194
III. 政治教育의 內容 및 方法의 比較.....	200
IV. 맺 음 말.....	229



## I. 머 리 말

教育은 오늘날 어느 國家, 어떤 支配體制 그리고 어떤 社會秩序를 막론하고 그 國家의 政治, 經濟, 社會發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國民經濟의 成長은 얼마나 새로운 科學, 學問 그리고 技術의 發展이 이룩되었는가, 또 이것은 얼마나 빨리 生産化할 수 있는나로 決定된다. 이때 教育의 機會와 그 實現은 이 問題解決<sup>1)</sup>의 가장 중요한 役割을 担当하게 된다.

특히 어느 國家가 國民들에게 그들 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信念을 擴散시키고, 愛國心을 일깨워 주며, 國民들의 廣範한 支援基盤을 固히기 위하여는 그들 나름대로 國民을 教育시키는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各 國家의 執權黨들이 指向하거나 扞한 體制의 性格들은 國民—保守主義的, 舊自由主義的, 左傾自由主義的, 民主主義的 혹은 社會主義的인 것等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들이 追求하는 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國家는 이른바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 Politische Bildung)이라는 것을 實施하는 경우를 본다.

「政治教育」이라는 用語는 여러가지의 意味로 쓰일 수 있다. 즉 그 하나로서의 政治教育은 政黨이 政治活動의 일부분으로서 行하는 教育을 意味할 수 있고, 또 하나는 學校教育이나 社會教育에 있어서 政治에 관한 一般的인 敎養 또는 眼目を 갖게 하는 一種의

市民 또는 公民教育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도 「이데올로기」로 分断된 나라들에서 相對國家에 比하여 自國의 優越性을 과시하여 靑少年들에게 그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教育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獨逸의 分断은 1945년 5월에 獨逸軍이 聯合軍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미 1943년에 構成된 「유럽諮問委員會」(Europäische Beratungskommission)<sup>2)</sup>의 作業에 따라서 聯合國 三國은 1945년 6월에 유럽問題의 處理를 위하여 獨逸占領地域에 관한 공동성명을 發表하고 美國은 獨逸의 西南部를, 英國은 西北部를, 프랑스는 西部를 그리고 소련은 東部를 占領하기로 合意를 하였으나, 第二次大戰後 世界의 여러 곳에서 各양各색으로 나타나는 美國과 소련의 경쟁과 對立으로 이른바 「冷戰體制」에 突入하면서 부터 소련의 膨脹政策은 美國, 英國, 프랑스의 三國 西方占領國들이 결속하는 契機를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 西方占領地帶에서는 1949년 5월 8일에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의 基本法이 制定되어 5월 23일에 宣布, 9월 7일에 臨時 首都를 「본」(Bonn)에 定한 西獨政府가 탄생되었고<sup>3)</sup>, 소련이 占領하고 있던 東部地域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DDR)의 憲法을 制定하여 「東베르린」(Ost-Berlin)을 首都로 하는 東獨政府가 樹立됨으로써<sup>4)</sup>, 獨逸은 西獨과 東獨으로 分断되었다.

1972년 12월 「東西獨 基本條約」이 締結되기 前까지 兩獨의 學生들을 위한 教科書들에서는 서로 相對方의 社會秩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批判을 加하고 있었다. 5)

① 그들은 서로 相對方體制는 非社會的이고 非人道的이며 國民들은 國家로 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증거로서 西獨의 教科書들에서는 東獨의 政治過程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였고, 東獨의 著者들은 西獨에서 「데모」時에 警察들의 投入을 내세워 비판하였다. 또한 西獨의 教科書들에서는 東獨의 勞動者들이 西獨에 比하여 낮은 報酬에 높은 税金의 徵收를 強要당하고 있다고 하고, 東獨에서는 점점 높아지는 西獨 勞動者들의 税金負擔率을 지적하고 있다.

② 獨逸分斷의 責任이 例를 들어 포츠담會談의 約束 不履行 그리고 統一의 妨害와 같이 相對方 政權에 그 責任이 있다고 서로 責任轉嫁하면서 相對方 政權은 自己들의 統一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만 武力的인 정부만을 통해서 全獨逸을 統一시키려 하고 있다고 非難한다.

③ 東·西獨은 서로 美國과 소련의 活動組織이라고 비난한다. 즉 두 政權은 美國과 소련을 돕기 위한 軍事的 방어지대와 相對方 軍事力저지 地點으로서의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④ 그들은 서로 相對方 體制는 破滅될 것이라고 비난한다. 저쪽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質問의 對答에 相對側은 항상 나쁜것으로 對答되고, 自己들의 體制가 原則的으로 合當한 것으로 價值를 認

定한다.

⑤ 그들은 相對方 政權에는 国民과 政府와의 사이에 없앨 수 없는 심한 분열상태가 있다고 한다.

⑥ 그들은 서로 自己들의 憲法이 가장 理想的인 形態라고 記述하고 있다.

⑦ 그들은 教科書에서 自己나라만이 外國들로 부터 好意와 支援을 받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 相對方을 非同盟國들로 부터 外交적으로 孤立되어 있다고 하며, 그 증거로서 양쪽 모두 「할슈타인 原則」(Hallstein - Doktrin)을 내세운다.

⑧ 統一의 可能性은 相對方 政治指導層의 決心에 달려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自己나라의 執權者는 두 나라의 接近을 위한 온갖 試圖를 다 하였다고 한다. 이 境遇 東獨에서는 統獨은 다만 社會主義的이어야만 可能하다고 強調한다.

⑨ 東·西獨間에 文化나 教育에 있어서 全然 접촉이 없었던 동안에도 兩獨은 서로 相對方의 經濟狀態에 매우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두 나라關係의 특색이었다.

⑩ 두 獨逸國家는 각각 自己나라만이 自由와 民主主義 그리고 社會正義가 實現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兩獨 教科書의 內容들은 1972년 以來 많이 修正 되거나 改善되었다.

특히 一般的인 意味에서의 政治教育의 內容에서는 대체로 人間이 共同生活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秩序維持를 위한 法



의 尊重心과 公益 優先精神 그리고 協同精神을 強調하는 한편, 「나」와 이웃, 社会, 国家 또는 体制를 지키거나 또는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政治的 判断과 决断에 必要的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인 知識을 비롯하여, 友好的인 国家들과 敵對的인 国家들에 대한 情報과 知識은 물론, 國際情勢에 관한 知識들을 傳達하고, 더 나아가서 国家는 國民 各者가 그들의 個性과 資質을 啓發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다시 動員하여 国家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政治教育의 이와같은 內容은 學校에서는 물론 家庭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職場에서의 各種 教育과 研修를 통하여 實施되거나, 新聞, 라디오, TV와 같은 「매스콤」들을 통하여 教育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부분 學校教育을 中心으로 研究하게 된다.

물론 共產主義国家인 東独과 資本主義国家인 西独의 教育政策을 比較하는데는 兩独의 教育制度는 물론 教育目標, 教育內容이 서로 相異하고, 또 教育政策을 比較할 수 있는 같은 水準의 統計資料도 充分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東独은 中央体制的인 教育政策을 취하고 있고, 西独에서의 教育은 各 州政府의 權限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東·西独의 教育政策을 比較하는 데는 많은 制限點이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国土의 分断과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라는 側面에서 우리와 立場이 비슷한 東独과 西独의 政治教育을 考察하여 봄으로써 우리의 경우와 比較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 Ⅱ. 政治教育 目標의 比較

### (1) 西獨 靑少年의 政治教育 目標

西獨에는 聯邦政府內에 우리나라의 文教部와 같은 機能을 가진 教育行政機關이 없고, 徹底한 地方分權制에 따라 州(Länder)가 教育行政의 責任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初·中·高·大學에 이르기까지 모든 教育行政權은 11個 各 州政府의 文教長官이 掌握하여 獨自的으로 州의 教育行政權을 行使하고 있기 때문에 各 州마다 教育行政 樣式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나, 11個의 各 州 文教長官들은 이른바 「獨逸聯邦共和國 州文教長官 常任事務局」(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RD)이라는 常任機關을 만들어 서로 情報를 交換하며 教育行政業務遂行에 있어 惹起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相互協議하고 調整하기 위하여 橫的인 統一體를 構成하고 있다.

靑少年 政治教育도 「政治教育을 위한 聯邦政府 中央機構」(Bundes 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總括하고 있으나, 政治教育에 必要한 教科書의 選擇과 같은 것은 州政府마다 다르다.

西獨에서 靑少年들에게 政治教育을 實施하는 目的은 政治教育을 통하여 靑少年들에게 社會的·政治的 狀況을 바르게 認識하고 判斷할 수 있도록 그에 必要한 知識을 주고, 또 靑少年들에게 그들의 義務와 權利를 知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어 훌륭한 「市民」으로

교육시키려는데 있다. 이것은 물론 将来 그 青少年들 스스로의 政治行爲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들은 学校教育에서는 社会生活 科目에서 政治機構와 政治過程에 관한 知識과 憲法이 지니고 있는 政治的 價値에 관한 긍정적 國家觀과 社会問題와 갈등의식에 관한 知識들을 理解하고 배워 나가도록 한다.<sup>6)</sup>

이러한 一般的인 目標에 到達하기 위하여 州政府과 聯邦政府로 나뉘어 있는 西獨에서는 青少年 問題中 学校内에서의 教育이나 訓練 또는 学校外에서의 教育이나 訓練의 範圍는 一次的으로 州政府들이 担当하고, 聯邦政府는 青少年政策의 樹立이나 青少年法律 制定과 經濟的인 支援을 하게 된다. 이러한 政策이나 法律은 各 州政府에서 差異가 있게 事實化되고 適用되므로 各 州政府들은 서로 다르게 青少年政策을 實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西獨에서의 基本的인 青少年政策은 國家가 主導하는 國家的 次元의 青少年 政策이 있는 반면,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은 州政府의 施策外에도 教会, 政党, 勞動組合, 青少年組織들과 고용주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많은 社会的인 그룹들이 青少年 政策의 目標을 遂行해 나가기 위해 努力한다.

이러한 많은 社会的인 그룹들은 역시 서로 다른 目標와 利害關係에서 어떻게 青少年들을 成長·發展시키고, 그 社会에 統合시키느냐 하는 問題에 관하여 答을 求하려고 努力한다. 그러므로 國家的 次元에서의 青少年 政策이란 대부분 이러한 論争들을 調整하기

위한 作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國家는 그들 社會組織들의 努力을 支援하거나 또는 靑少年들 스스로 組織하는 것을 도와서 靑少年들과 그들이 속하여 있는 組織들이 스스로 選擇한 目標設定에 能動的으로 參與하여 發展시키나갈 수 있도록 支援한다. 7) 즉 이것은 靑少年들의 個人人格 啓發을 絶對적으로 도와 靑少年들을 健全하게 育成하고 保護하자는 것이다.

1969년 10월 28일 「브란트」 西獨首相의 政府宣言에서도 西獨은 教育에서 靑少年들에게 效果的인 支援과 모든 靑少年 問題에 관한 政策決定에 靑少年들에게 보다 많은 參與의 機會를 提供하여<sup>8)</sup> 政治訓練을 쌓도록 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이와같이 西獨政府는 政治教育을 통하여 유토피아적인 目標設定에 맞도록 이 社會의 變化만을 強調하는 것이 아니라 靑少年 스스로에게 社會變化를 시킬 수 있는 能力을 키워주어<sup>9)</sup> 그들이 追求하는 民主的인 「社會的 法治國家」를 繼續 維持·發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 西獨의 靑少年들에 대한 政治教育은 흔히 分斷國에서 實施하는 統一教育이나, 相對方을 比방하고 自己體制를 擁護하려는 次元을 넘어서는 教育이다. 즉 現在 西獨에 있어서의 學校教育에 있어서는 統一教育은 사라지고, 統一問題는 다만 獨逸問題의 一環으로서 取扱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1972년의 東·西獨關係 正常化 以前에는 많은 教科書의 著

者들이 教科書 內容을 統一教育이라는 觀点에서 다루었으나, 이와같은 傾向은 사라지고 이제는 徹底한 「市民教育」을 위한 內容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2) 東独 靑少年의 政治教育 目標

東独의 教育的 發展過程은 西独과 同一한 歴史的 土臺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分析하는 것은 同時에 한 國家안에서의 새로운 教育制度 및 政治文化의 成立을 觀察할 수 있는 契機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1945년 以來 東独에서는 새로운 教育制度가 開發되었으며, 이것은 現在 다른 東欧圈 國家들과 類似點을 많이 갖고 있는 反面, 西独과는 많은 相異點을 갖게 되었다.

1968년의 東独憲法 第25條 4項은 「모든 靑少年들은 職業을 익힐 權利와 義務가 있다」( alle Jugendlichen haben das Recht und die Pflicht, einen Beruf zu erlernen )<sup>10)</sup> 고 하여, 그들은 靑少年들을 그 社會에 有用한 構成員으로 만들기 위하여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獨逸에서 「히틀러」의 「나치레짐」( Regime )이 쇠망하고 第二次 世界大戰이 끝나자, 1945년에 美, 英, 仏, 蘇聯의 四聯合國들은 그들 占領地域의 學事와 教育의 再建을 위한 責任을 委任받았다. 獨逸의 蘇聯占領地域( Sowjetische Besatzungszone Deutschlands ; SBZ )에서는 이미 1945년 8월에 人民教育을 위한 獨逸中央行政 府를 만들었고, 1945년 10월 1일부터 學校授業을 始作하였다. 다

음해 부터 蘇聯敎官들은 學校行政에는 물론 高等學校와 大學에서 까지 相談한다는 名目으로 東獨의 學事에 干涉하기를 始作하였다.

亡命中이었던 反파시즘·共産主義그룹들은 獨逸 蘇聯占領地域의 五個州와 함께 1946년 5월과 6월 사이에 人民敎育을 위한 獨逸行政官厅의 共同法律案으로 「獨逸學校의 民主化를 위한 法」(Gesetz zur Demokratisierung der deutschen Schule)을 만들었다. <sup>11)</sup>

이것으로 因하여 이른바 「反파시즘·民主的인 學校改革」(Antifaschistisch Demokratische Schulreform)이 일어 났는데, 이것은 1946년 부터 1948년 까지 일어난 學校行政 全般에 관한 措置들로서, ①敎師들에 대한 政治的·肅清과 ②8學년의 共同基本學校를 基本內容으로 하는 統一된 學校体制의 形成 ③私立學校의 禁止 ④學事에서 國家(Staat)와 敎會(Kirche)의 嚴密한 分離, 그리고 ⑤ 특히 地方學校의 支援等이었다. <sup>12)</sup> 이러한 學校改革의 內的 改革思想은 「바이마르」(Weimar)時代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東獨 敎育에 있어서 첫번째 發展段階로 본다.

1949년 以來 敎育分野 까지 總指導·統括하는 「東獨社會主義 統一黨」(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이 생겼으며 東獨 以外の 國家에서는 이때부터 자주 「소비에트化」(Sowjetisierung)하는 時期로 性格化 하였는데, 그 理由는 1950년 부터 52년까지 東歐의 여러 나라들은 當時의 蘇聯敎育制度의 組織과 形態를 그대로 模倣하였고 또 思想的 方向과 方法的 摸索에 있어서 蘇聯敎育學의 基本들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 時期를 東独教育의 두번째 發展段階로 본다.

세번째 發展段階는 「教育和 生産의 聯関」(Verbindung der Bildung mit der Produktion)인데, 이것은 1958년 9월 1일부터 學校에서 綜合技術教育을 實施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59년 12월 2일에 「學事の 社會主義的 發展에 관한 法」(Gesetz über die Sozialistische Entwicklung des Schulwesens)을 制定하여 8學年의 基本學校와 1950년 以來로 存続하던 10學年짜리 中等學校(Mittelschule)대신에 10年制 一般綜合技術高等學校를 將來의 義務教育의 該當學校로 만들었다.<sup>13)</sup> 지금까지 4年制 高等學校는 이름을 上級高等學校(Erweiterte Oberschule)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고, 8學年 以後에 시작하도록 하여 漸次 一般教育을 綜合技術教育化하였다.

東独 教育發展에 있어서의 네번째 段階는 1965년 2월 25일에 作成하고 起草한 「統一社會主義 教育制度에 관한 法」(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sup>14)</sup>에서 비롯된다. 이 法에서는 學事の 方向을 幼稚園 前부터 成人教育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課題와 機能을 자세히 記述하고 서로間의 關係를 明示하였으며, 아울러 社會, 經濟 그리고 政治에서의 教育政策(Bildungspolitik)을 함께 發展시켜 社會主義의 建設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豫測을 하고자 하였다. 이때 東独에서는 「새로운 經濟體制」(Neues ökonomische System)의 시작으로 靑少年政策의 實用化過程이 이루어졌다. 靑少年은 可能的 限 專門化된

機能人으로 기르게 되어 國民經濟의 課題와 全体社会의 課題를 解決하는데 한 몫을 担当하도록 하였다.

1971년 SED 第8次 大会가 끝난 後, 즉 東独의 指導者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물러나고, 새로이 「호네커」(Erich Honecker)가 들어서자 教育政策에서도 「安定과 持續」(Stabilität und Kontinuität)을 내세워 授業과 研究에 있어서 内容上的 改革으로 教育의 「質의 向上」(die Verbesserung der Qualität)를 꾀하는<sup>15)</sup> 한편 教育에 있어 思想的인 側面이 더욱 強調되기에 이르렀다.

東独政府의 立場에서는 東独의 靑少年 政策의 目標과 課題를 대개 다음과 같이 性格化시키고 있다.

즉 「맑스-레닌主義的 靑少年 政策을 우리는 勞動者階級の 歷史的 使命의 完遂를 위하고, 殘存하는 資本主義 社会의 顛覆과 새로운 社会主義社会, 더 나아가 共產主義社会의 建設을 위하여 共產主義運動의 世界的인 鬪争에 젊은 世代들을 包含시키기 위한 特殊한 内容, 形態 그리고 方法으로 理解한다」<sup>16)</sup>고 한다.

東独의 靑少年政策은 대개 다음과 같은 發展傾向을 보이고 있다.

○全体 社会計劃의 要求에 適應될 수 있는 專門教育을 위한 條件의 改善

○發展的인 意味에서의 政治-思想教育의 強化와 改善

○国家나 社会에서 責任있는 機能을 할 수 있는 靑少年層의 擴大이다.<sup>17)</sup>



그러므로 東獨에 있어서의 靑少年 政治教育은 東獨의 모든 教育과 訓練過程의 中心要素이다. 東獨에서의 政治教育의 目標은 靑少年들에게 確固한 階級觀을 傳達하고, 모든 靑少年들에게 全体를 위한 思考, 느낌, 指向과 行爲의 本質을 規定하고, 나아가 個人을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基礎로 보고 있다.

또한 東獨에서는 「맑스-레닌主義」의 教育과 竝行하여 東歐圈에서의 東獨의 地位向上을 위한 祖國觀의 傳達과 社會主義 世界觀을 周知시키고, 帝國主義의 敵으로 부터 祖國防禦의 內容까지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sup>18)</sup> 더 나아가 그들의 最大目標인 生産量의 增加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促求되는 것과 같이 東獨에서의 政治教育은 靑少年들을 그들 社會·政治目標에 맞게 組織化하고 있으며, 靑少年들을 社會主義建設의 前衛隊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教育시키고 있다.

### Ⅲ. 政治教育의 内容 및 方法의 比較

#### (1) 西独 青少年 教育의 内容 및 方法

「발-라벤」( Wallraven )과 「디-트리히」( Dietrich ) 두 사람은 戰後 西独에서 政治教育을 위하여 執筆한 教科書의 著者들이 重点을 둔 内容들을 年代別로 分析을 하였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年 부터는 「共同社会와 組合」,

1953年 부터는 「基礎的인 知識과 判斷」,

1956年 부터는 「政治的 活動性과 参与」,

1962年 부터는 「批判的 思考와 批判的 能力」,

1965年 부터는 「갈등의식과 갈등自制」

를 強調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sup>19)</sup>

이와같이 1962년부터 「批判的 思考와 批判的 能力」 그리고 1965년 부터 「葛藤意識과 葛藤自制」와 같은 内容들을 強調하게 된것은 1960年代부터 일어난 西独学生運動의 影響으로 西独에서의 政治教育은 過去의 学校授業에서 政府組織 또는 權力關係에 관한 内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政治過程에 관한 觀察의 不足現象을 脱皮하고, 이제는 보다 많이 社会的 葛藤現象을 테마로 잡고 青少年들의 具體的인 社会狀況 그리고 그들의 欲求와 利害關係等を 授業過程에서 다루어 보려는 努力이었다고 볼 수 있다. <sup>20)</sup>

「베-링」( H.G.Wehtling )은 政治教育의 内容을 다음과 같이

第2條에서는 自由權으로서 ①누구라도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고 憲法的 秩序 또는 道德律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限 그는 人格의 自由로운 發展에 관한 權利를 가지며, ②누구라도 生命과 身

③以下の 基本法은 직접 有効한 法으로서 立法, 行政, 司法을 拘束 수도 없는 人權을 世界の 모든 共同社會의 基礎로서 認定하며, 家權力의 義務이고, ②때문에 獨逸國民은 侵害받을 수도, 讓渡한 人間의 尊嚴은 不可侵이며, 이것을 존중하고 保護하는 것은 모든 國 西獨의 憲法 第1條는 「人間尊嚴의 保護」를 위한 것으로서 ① 秩序에 관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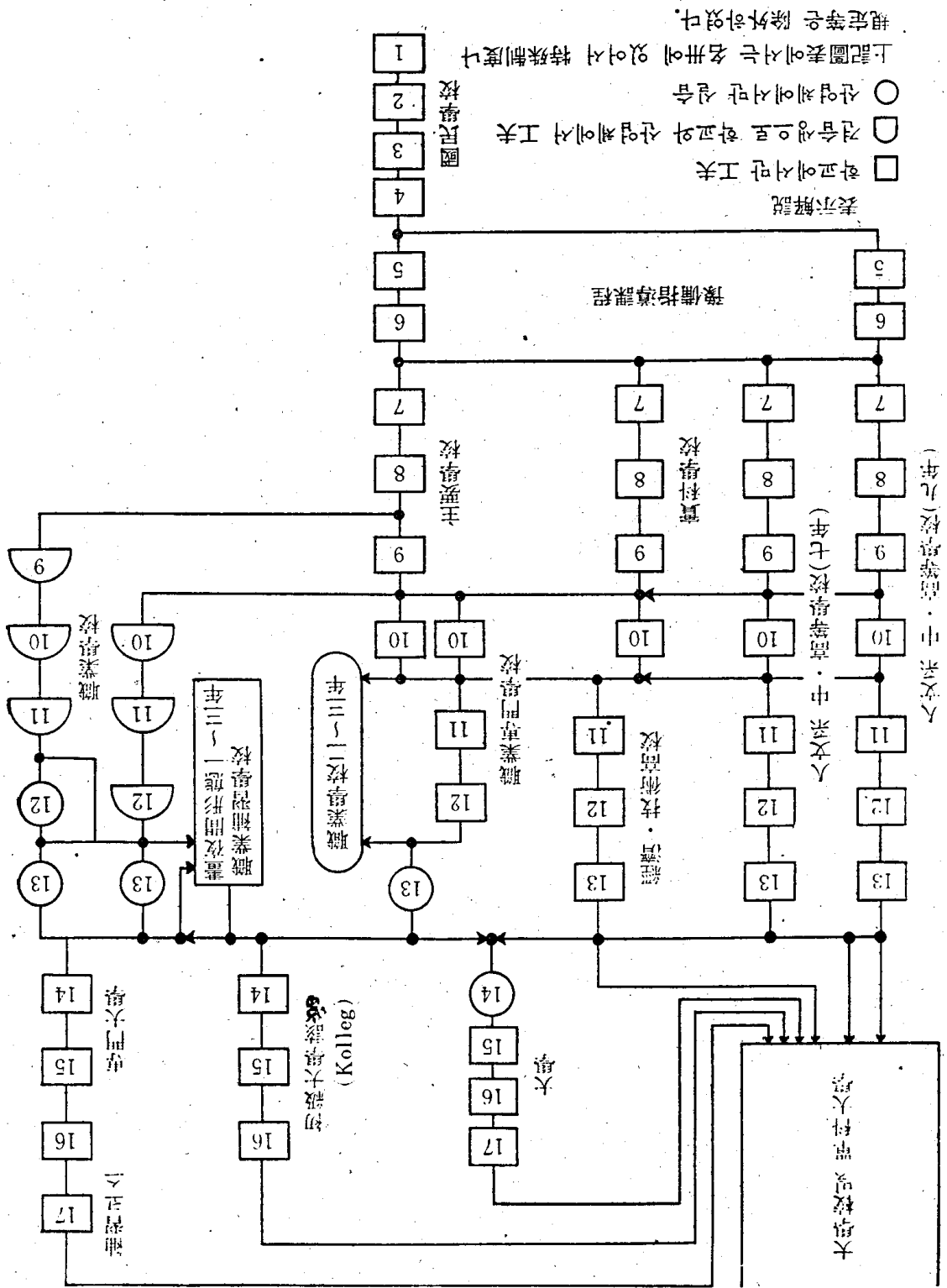
3條 그리고 第20條에서 定義된 內容인 自由-民主主義的인 基本 (1) 一般的인 政治教育의 內容은 憲法條文 第1條 부터 第 들을 內容으로 삼고 있다.

西獨의 教育制度 [表I] ) 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테제」 最近 西獨에서의 政治教育을 위한 教科書나 教授法 (參考; 過程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sup>21)</sup> 는 것이다.

③ 既存 社會體制가 提供하는 可能性들의 範圍內에서 政治的 決斷 하며,

② 나아가 政治的 對決에서 合理的인 立場을 취하는 것을 배워야 게 分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1) 본래의 能動的 市民은 一般的인 構造的 葛藤을 認識하여 알맞 說明하고 있다.



<表 1 > 西獨의 教育制度

体에 侵害를 당하지 아니 할 權利를 갖고, 人身의 自由는 不可侵이며, 이러한 權利는 다만 法律에 依하여서만 侵害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第 3 條는 法앞에서의 平等條項으로서 ① 모든 사람은 法앞에 平等하고, ② 男女는 同等한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③ 아무도 그의 性別, 家門, 人種, 言語, 出身地와 血統, 信仰, 宗教的 내지 政治觀 때문에 差別받거나 혹은 特權을 받을 수 없다고 規定하고,

第 20 條에는 憲法原則과 反抗權을 두어 ① 獨逸聯邦共和國은 民主的이고 社会的인 聯邦國家이며, ② 모든 國家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오고, 그것은 選舉와 投票에 의하여 그리고 立法, 行政 및 司法의 個別的 機關을 通해 國民에 의하여 行使되며, ③ 立法은 憲法的 秩序에, 行政 및 司法은 法律 및 權利에 拘束되고, ④ 모든 獨逸人은 이러한 秩序를 廢止하려고 꾀하는 者에 對하여 다른 도움이 不可能할 때 反抗하는 權利를 가진다고 定하여 놓은 內容을 지키도록 教育시키고 있다.

(2) 政治生活이란 基本的으로 論爭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理解시킨다.

(3) 學校의 授業에서는 어떤 問題의 解決點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合理的으로 研究하거나 調查하는 것이며 特殊한 경우에는 왜 滿足할 만한 解答을 얻을 수 없는가를 밝혀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理解시킨다.

(4) 政治教育의 중요한 目標은 批判的인 思考와 政治的인 行爲에

관한 教育이기 때문에 政治에 관한 授業時間에는 具體的인 갈등상  
황으로 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sup>22)</sup>

「자이처」( Otto Seitzer )의 「共存과 相助」( Miteinander-  
Füreinander )라는 題下의 「社会生活」教科書( Stuttgart 1970 )  
는 六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人間의 共存性( p.5 ~ p.28 )
- II. 너와 가족들( p.29 ~ p.37 )
- III. 里·面單位에서의 共同生活( p.38 ~ p.53 )
- IV. 經濟에 관한 理解( p.54 ~ p.90 )
- V. 獨逸人과 그 國家( p.91 ~ p.168 )
- VI. 國民과 國家( p.169 ~ p.181 ) <sup>23)</sup>

Seitzer는 靑少年들의 政治教育은 共同生活에서 協同할 줄 알  
도록 하고 個人의 能力을 啓發하며 民主主義를 동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著者의 생각에 따르면 이 目標은 「나」以外的 國  
民도 「나」와 同一한 國民으로 여기고 人間의 共同生活의 長點을  
살려 獎勵하는 政治教育이어야 한다고 한다. 「나」以外的 同胞  
들의 生活方式도 尊重하고, 그들에게 關心을 두며, 親交를 갖고 도  
울 마음의 準備를 하고, 허심탄회한 討議, 妥協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一般的인 善한 일들이 民  
主主義國家의 市民들에 있어서 특별한 長點으로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民들은 公共生活에서 部分的인 責任을 질 수 있어야 하

고, 그에게 주어진 權力을 적당히 使用하는 德이 있는 有能한 國民으로 키우기 위하여는 幼年期 그리고 靑少年期에 訓練을 통하여 이룩되어져야만 한다고 한다.

Seitzer는 學校가 政治-社會的인 問題의 實際모델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民主的인 思考·行動등은 靑少年時節에 練習을 통하여 習慣化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學生들에게 작은 職務나 使命을 부여하여 共同責任의 訓練을 쌓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獨逸人과 그의 國家」라는 章에서 國民의 基本權에 관하여 14「페이지」나 할애하고 있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基本權은 各個人의 自由를 保障한다. (약 0.5 page)
- 意思形成과 意思表現의 自由 (약 3 page)
- 우리는 專橫的인 체포로부터 保護되어 진다. (약 2 page)
- 우리들은 法앞에 平等하다. (약 1 page)
- 우리들의 住居는 侵害될 수 없다. (약 1.5 page)
- 國家는 우리들의 財産을 지킨다. (약 2 page)
- 基本權은 尊重되어 지고 防禦되어져야만 한다. (1 page)
-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權利 (1 page)
- 그 밖의 몇가지 基本權들 (약 2.5 page)

그 밖의 몇가지 基本權들로서는 憲法 第4條 「宗教 및 良心의 自由」 第8條 「集會의 自由」 第9條 「結社의 自由」 第11條 「移轉의 自由」 第12條 「職業選擇의 自由」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憲法條項과 憲法の 實際運營 사이에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印象을 받게 된다.

또한 獨逸에서는 法律工夫는 法條文과 實際의 事件을 連結시켜 工夫시키는 判例為主의 教育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國民의 基本權과 같은 중요한 問題는 깊이 생각하고 討論하는 形式을 취한다.

예를 들어 憲法 第5條 「自由로운 意思表現의 權利」를 說明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基本法의 매우 중요한 條項中的 하나이다. 우리 國家의 누구도 그의 意見을 新聞, 放送, TV 그리고 다른 一般的으로 入手할 수 있는 情報源에서 알게되는 것을 妨害당하지 아니할 權利를 가진다. 出版의 自由와 라디오 映畵에 의한 報道의 自由는 保障된다. 檢閱은 行하지 아니한다. (①項) 그러나 이러한 權利를 잘못 利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②項에서는 몇가지 制限點을 두고 있다.」<sup>24)</sup> 고 說明한다.

즉 第5條 ②項은 「自由로운 意思表現의 權利」는 「一般法律의 規定, 少年保護를 위한 法律上的 規定과 個人的 名譽權에 依하여 制限되어 진다」는 內容인데 教師들은 이것을 學生들에게 읽히고 왜 이 條項이 있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討論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基本權의 重要한 部分은 報道의 自由와 出版의 自由인데, 이것은 放送局, 新聞社 또는 出版社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시 讀者들을 위해서 重要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憲法 第104條 「自由剝奪의 法的保證」에서는 ① 人身의



自由는 正規的인 法律에 의거하여서만, 그리고 当該 法律이 定하는 形式에 따라서만 이를 制限할 수 있다. 拘禁된 者는 精神的으로 또는 肉體的으로 학대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②自由剝奪의 許容 및 그 繼續에 對하여는 裁判官만이 이를 決定할 수 있다. 裁判官의 命令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自由의 剝奪은 即時 裁判官의 決定을 求하여야 한다. 警察은 自己의 權限에 依해서는 어떤 사람도 逮捕의 翌日을 超過하여 拘留할 수는 없다. 그 細則은 法律로서 定한다. ③어떤 사람이 犯罪行為의 혐의로 一時 체포되었을 때는, 늦어도 체포의 翌日 中에 裁判官 앞으로 引致되어 야 하며, 裁判官은 該 사람에게 逮捕의 理由를 말하고, 심문하며 그리고 異意申請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裁判官은 즉시 理由를 添附한 체포장을 發하거나 또는 釈放을 命하여야 한다. ④自由剝奪의 命令 또는 繼續에 관한 裁判官의 모든 決定은 즉시 被拘留者의 家族 또는 그가 信賴하는 者에게 通知되어야 한다. <sup>25)</sup> 且 規定하여 個人의 自由가 합부로 剝奪될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이와 관련하여 人間의 존엄과 個人의 自由를 強調하기 爲하여 「우리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못함이 없이는 그의 自由를 박탈 당할 수 없다」는 것을 說明하면서, 過去 「히틀러」 時代나 最近 人權問題가 대두되는 後進國의 例를 들어, 이러한 國家들을 警察國家라고 規定하고 오늘날의 西獨은 法治國家라고 지적하여 <sup>26)</sup> 오늘의 現 體制를 지켜나가도록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또한 「힐리겐」(Wolfgang Hilligen)도 Hauptschule의 7~

9 学年用 「보고, 판단하고, 行動한다」( Sehen-Beurteilen-Handeln )는 題目的 靑少年 政治教育用的 책을 썼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7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 I. 政治 - 共存과 対立( 1節~5節 )
- II. 共同生活의 秩序 - 政治의 対象( 6節~12節 )
- III. 土地는 모든이를 위한 것? ( 13節~16節 )
- IV. 人間은 그룹속에서 산다( 17節~18節 )
- V. 갈등은 도처에 ( 19節~26節 )
- VI. 事實은 - Medien을 통하여 伝達된다( 27節~28節 )
- VII. 來日의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 29節~32節 )<sup>27)</sup>

政治教育에 要한 Hilligen의 理論은 政治的 葛藤의 現實로 부터 나온다. 緊張狀況에서의 갈등의 調整은 自由와 秩序사이와, 극단의 集團的인 解決方案과 극단의 個人的인 解決方案에서 나온다.

葛藤의 實際로 유효하고 人間的인 調整은 政治行爲의 規則에 参与하였던 모든 사람의 義務로 要求되어 진다. 이때 規則의 統一은 共同的인 「基本確信」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確信」의 핵심은 人權에 대한 信條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授業과 教育은 人權, 解放, 機會均等を 위한 決定으로만이 可能하다고 본다.

그리고 政治的 決定은 간단히 「옳다」 또는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Hilligen은 政治教育의 目標를 어떤 決定의 한 面을 위한 意識에서 깨어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8)</sup>

그리고 「휘셔」( Kurt Gerhard Fischer )와 그 共著者들은

296 페이지에 달하는 政治教育에 관한 冊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12章으로 나누었다.

1. 現在의 基本權의 問題
2. 國家와 共同社會에서의 多元主義
3. 政治的 政黨들
4. 聯邦共和國에서의 議會制度
5. 現在의 社會政策
6. 聯邦共和國의 經濟秩序와 經濟政策
7. 勞動의 世界 - 고용주와 勞動者
8. 分斷된 獨逸
9. 獨逸國家社會主義의 全體主義的인 支配體制
10.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全體主義的인 支配危險
11. 民族의 共存
12. 後進國 援助問題<sup>29)</sup>이다.

이 책은 「헤센」(Hessen)州의 직업학교 學生들의 政治教育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州에서도 이 책을 採択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도 著者들은 政治에 관한 授業에서 自由-民主主義 秩序의 本質은 侵害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批判的인 市民을 기르기 위해 知識을 주며, 行動할 마음의 準備를 키우고 行動할 能力을 길러 주도록 하며, 이러한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利害關係를 同時에 理解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市民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社会生活과 政治授業에서는 學生들에게 國家나 社會 그리고 職業生活에서 그들의 發言權을 理性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利害關係와 關聯하여 「예」 또는 「아니요」의 對答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의 第1章에서 다룬 것은 「現在의 基本權의 問題」인데, 이것은 약 16 페이지에 이른다. 이 章은 「슈피겔 事件의 Documentation der Spiegel-Affäre」로 始作되는데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文들을 引用하며 問題를 分析하고 있다.

結論으로 그들은 ;

「우리는 무엇이 憲法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그 法의 限界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法을 維持하고, 방어하여야 하고 보호하여야만 한다.」<sup>30)</sup>

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

著者들은 결국 이 책에서 學生들에게 그들이 社会生活을 하는데 必要한 「理解力의 增進」 「事件의 根本把握」 그리고 「基本知識의 樹立」을 위한 能力을 키워주기 위하여 많은 實際의 事件과 歷史的 事實들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統一問題를 비롯한 分断國의 問題를 다룰 때는 자주 東·西獨 問題와 比較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分断國中의 하나라는 理由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西獨

의 教科書內容의 傾向은 統一問題는 強調되지 않고 「獨逸問題」라는 觀點에서 다루면서 「브란트」의 新東方政策이 民族自決權의 포기 아니라는 점을 說明하고 있는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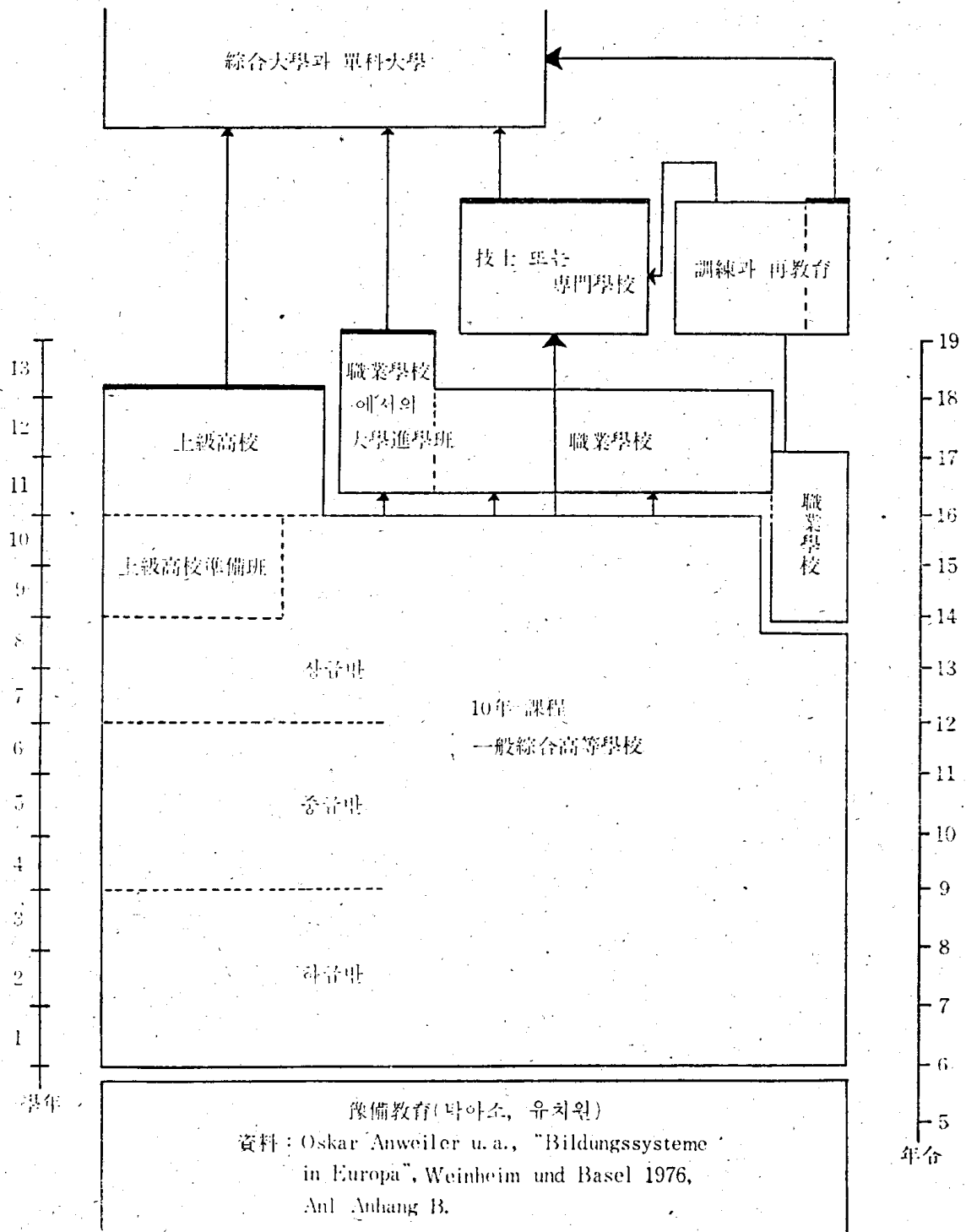
西獨의 政治教育을 위한 教科書의 著者들은 東獨問題에 관하여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內容들을 다루었다.

- ① 東獨의 成立, 특징, 承認
- ② 東獨의 政府機構
- ③ 東獨의 選舉, 政黨, 宣傳
- ④ 社會主義의 計劃經濟와 東獨의 生活水準
- ⑤ 東獨政權에 대한 東獨國民들의 저항
- ⑥ SED의 靑少年·文化政策과 未來觀

들이다. 그러나 오래된 社會生活 教科書들에서는 東獨의 公式的인 名稱을 使用하지 않고 「Sowjetzone」 「SBZ」 또는 「Ostzone」등으로 表記하였으나 1970年 以後에 出版된 책들은 東獨의 名稱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특히 特記할 만한 사실은 東獨이 東歐圈에서 蘇聯 다음의 産業國家임을 지적하기도 하고 東獨과 西獨의 生活水準을 比較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겔나지움」(Gymnasium)과 「實科學校」(Realschule)의 歷史教科書들에서도 東方政策에 관한 소개와 함께 1969년 브란트政權의 樹立에 의해 西獨의 東方政策이 本質적으로 變化되었다고 하면서도, 「國際法上的 東獨의 承認」(eine Volkerrechtliche Anerkennung der DDR)은 考慮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表 II> 東獨의 教育制度



獨逸內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면 그것은 서로 外國 (Ausland) 이 아니다. 그들 서로의 關係는 다만 特別한 性格 (besondere-Art) 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고 말하여 西獨과 東獨의 두 國家는 「外國」이 아닌 「特別한 關係」라는 것을 밝혔다.

즉 이것은 東·西獨關係가 완전한 外國의 關係로 發展할 경우 獨逸의 統合은 不可能하다고 믿어 西獨은 東獨을 「國際法上的의 國家」로 承認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만 國內法으로서의 承認만을 통하여 東獨이 外國이 될 수 없다는 根柢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은 西獨에서의 政治教育을 위한 教科書들은 ①各州마다 다른 教科書를 採択할 수 있고, ② 出版年度도 문제가 되며, ③目標設定에도 問題가 있고, ④教科書는 같더라도 教授法이 教師에 따라 差異를 보일 수 있다는 등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물론 學校 以外的 組織인 教會, 勞組, 政黨등에서도 靑少年 政治教育을 担当하고 있고, 靑少年 클럽活動과 靑少年들의 國際的인 交流가 산 政治活動이 되고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즉 西獨 靑少年들의 政治教育은 많은 部分이 클럽活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클럽活動이 學校授業에 비하여 政治教育을 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고 풀이한다.

- 實際나 方法面에 있어서 큰 活動性이 있다.

- Team-Arbeit 를 통하여 政治的 연계를 集中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

- 利害關係의 同質性으로 共同作業을 용이하게 한다.
- 社交·交際를 통한 教育이기 때문에 學校授業보다 친근감을 준다.
- 社會와 그들의 問題가 보다 가깝게 느껴진다.
- 實際政治에 대한 準備의 可能性이 높다는 利點을 갖고 있다.<sup>32)</sup>

한편 靑少年들의 國際的인 交流도 산 政治教育으로 認定되어 西獨에서는 다른 나라의 靑少年들과 國際的인 접촉을 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西獨의 靑少年들은 프랑스에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이 英國, 이태리, 네델란드, 오지리 그리고 스웨덴 順인데,<sup>33)</sup> 이것으로 因하여 유럽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排外的인 政治文化를 갖을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제 西獨에서의 政治教育은 相對方을 비방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政治教育이나 統一教育이 아니라 徹底한 「市民教育」으로서 그 體制를 維持하고 發展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2) 東獨靑少年 政治教育의 內容 및 方法

東獨의 教育制度를 위한 實際的인 國家最高調整 및 企劃機關은 東獨의 內閣이며 教育에 관한 實際行政은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中央委員會의 當該 部署이다. 그러므로 東獨에서의 모든 靑少年 政策은 黨에서 立案되며 實施되고 또 調整되도록 되어있다. 즉 靑少年을 위한 目標設定을 할 수 있는 것으로 SED外에는 다른 組織이 存在치 않는다.<sup>34)</sup> 이것은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靑少年 政策은 「國家가 指導하고 計劃하는 要素」라고 볼 때 東獨도 이 범주



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sup>35)</sup>

이와같이 東独에서의 教育은 計劃에 의하여 實施되고 있는데, 이러한 教育計劃의 最上の 目標은 各 分野別 專門人에 대한 現在 및 將來에 대한 需要를 充足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東独에서는 國家와 政黨이 靑少年들을 그들의 政治的인 目標에 맞게 內容的으로 具體的이고도 確實하게 그들 社會에 統合시키기 위한 教育을 實施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靑少年들은 社會主義 모랄을 實現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하도록 하고 맑스-레닌主義의 階級意識을 더욱 發展시키며, 社會主義의 祖國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最大目標인 生産量의 增加目標을 達成하도록 促求된다는 것이다. <sup>36)</sup>

이러한 東独教育政策의 基本形態와 原則을 要約하면 :

① 東独에서의 學校는 獨逸社會主義統一黨의 政治指導理念에 의하여 中央黨의 統一的인 調整과 指揮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② 이러한 政治的인 調整構造는 合法的인 「맑스-레닌主義」 思想的 專有物로서 幼稚園, 國民學校의 教育, 中·高等學校에서의 授業 그리고 大學에서의 研究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世界觀과 思想的 啓蒙에 聯關되어 있다는 것이며,

③ 「階級없는 社會」를 建設한다는 思想的 目標에서 由來한 教育機會의 不均等を 줄이려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sup>37)</sup>

東独에서는 靑少年들의 訓練과 教育을 위한 理想的인 條件을 만

드는 것을 目標로 靑少年法을 制定하였다. 그것은 서로 相異한 社会的인 領域들, 즉 學校, 産業體, 文化 등에서 靑少年들의 協同을 調整하고 保障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따라서 東獨에서의 모든 國家의 機關이나 社會組織의 政策決定에 靑少年들이 參與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있다. <sup>38)</sup>

教育機關內에서의 젊은이들의 參與機會는 오히려 「自由獨逸靑年團」( Freie Deutsche Jugend : FDJ ) 및 開拓者組織인 「에른스트 텔만」( Ernst Thälmann )의 任務로 看做된다. 14才까지의 學生들을 위한 모임인 開拓者組織은 1973年에 190萬 以上の 會員들을 ( 그 年齡層 어린이들의 90% 以上에 해당 ), 그리고 自由獨逸靑年團 역시 190萬의 會員들을 갖고 있었다.

校則에는 물론 學生의 義務中 첫째는 能力開發學習이고 이것은 形式的인 몇가지 權利들 보다 강조된다. 그러나 自由獨逸靑年團의 代表들은 研究 및 社会的 事項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參與權을 갖고 있고 法的으로 定하여진 參與權은 어떤 組織에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45년 6월 25일 「울브리히트」는 獨逸의 靑少年들을 나치의 廢물로 부터 淨化시키고 反파시즘 - 民主的인 秩序建設에 參與시키도록 共產主義 靑年團을 組織한다고 強調하였다. <sup>39)</sup>

그들에게 있어서도 戰爭後 바로 靑少年들을 組織化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靑少年들은 그 당시 組織에 反對하여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더 주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히틀러를 잊

을 수가 없오!」<sup>40)</sup>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1946년 6월에 「團結과 民主」를 내걸고 自由獨逸青年團의 첫 會議가 Brandenburg an der Havel에서 열려 反과시즘-民主運動으로 부터 社會主義青年組織으로 發展되어 오늘날의 東獨青少年 政治教育에 대단히 큰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1976년 東獨의 統計年鑑에 의하면 東獨의 青少年 總數는 280萬名이나 되고 그 가운데 190萬名 以上이 自由獨逸青年團에 組織되어 있고, 中·高와 大學生의 약 96%가 이 組織에 加入되어 있다고 한다.<sup>41)</sup> 이 自由獨逸青年團의 조직망은 西方國家들의 青少年 組織과는 다르게 全体 青少年들의 生活領域에 매우 넓고 밀접하게 퍼져 있어서 東獨의 青少年들이 이 組織의 影響을 벗어나기란 거의 不可能하고, 이 組織의 事業들도 政治, 經濟, 社會生活의 모든 領域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自由獨逸青年團은 다만 SED의 豫備隊이거나 활발한 同調者만이 아니라 스스로 소형판 政党的 形態이고 「青年」이라고 하는 特別한 國民部分이다.

한편 東獨에서의 學校運營 및 教育學的인 諸措置들은 國民敎養省 및 國民敎養局의 業務이며, 特殊한 學校監督官들에 의하여 調整된다.

各級學校의 指導 및 行政의 基本指針은 1947년에 制定된 國家의 學校條例에 따르며, 1967년 10월 20일字 그 最終條例의 명칭은 「一般敎養的 學校에서의 확고한 秩序의 基盤造成을 위한 條例」였다. 또한 國家가 임명한 校長에 의한 個別指導에 대한 基本指針

이 있으며 그는 「學校의 政治的, 教育的 그리고 學校組織的인 面의 指導責任」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SED와 學校와의 協力關係를 맡고 있으며, 아울러 學校에 組織되어 있는 教育者勞組를 위한 綜合的인 教育集團을 育成·發展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東獨의 教育制度는 [表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豫備教育, 學校 및 産業체에서의 職業教育, 專門學校 및 大學教育 그리고 再教育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豫備教育이란 3才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託兒所와 만 3才 以後부터 國民學校 入學前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幼稚園教育이다. 두 機構는 分離되어 있는데 幼稚園은 1946년 부터 綜合學校制度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學校教育의 豫備段階로서의 그 機能은 1965년의 教育法과 國家의 「幼稚園에 대한 教養 및 教育計劃」(1968년) 實施 以後에 매우 강조되었다. 즉 職場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일손을 덜어 준다는 經濟的 社會保障制的 機能 以外에도 幼稚園教育은 教育機能으로서의 새로운 任務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幼稚園을 다니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學校入學前에 특별히 「놀이 및 學習午後」라는 課程이 學校教育 豫備段階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教育前 宣傳」이라 일컬어지는 父母教育 및 助言의 範圍內에서 행하여지는 父母教室을 통한 入學前 어린이들의 指導方法에 대한 教育 또한 매우 중요한 役割을 한다. 制度化된 豫備教育과 家庭教育은 社會主義 社會에서의 教育規範에 의해 義務化

되었다. 이에 따라 幼稚園과 어린이 週末教室에 다니는 어린이數는 1974년에 같은 年齡 어린이들의 80.4%에 이르렀으며, 教師에 대한 어린이 比率은 1 : 13.8이었다. <sup>42)</sup>

東獨 教育制度에서의 核心은 10年制 「一般綜合高等學校」(Allgemeinbildende Polytechnische Oberschule)이다. <sup>43)</sup> 義務教育은 만 6才부터 10年間이다.

10年制 一般綜合高等學校는 學校組織面에서 보면 대개가 綜合學校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 學校에서는 教授法上 三段階로 그 課程을 나눈다. 즉 1学年부터 3学年까지는 下級班, 4学年부터 6学年까지는 中級班, 그리고 7学年부터 10学年까지를 上級班이라고 부른다. <sup>44)</sup>

여기서 例外로 찾아 볼 수 있는것은 學生들의 一部는 9学年, 10学年度에 이른바 「上級高等學校」(Erweiterte Oberschule: EOS) 進學을 위한 準備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大學에 進學하려는 學生들中 有能한 學生을 뽑는 一種의 豫備選拔課程이다. 이 班의 學生들은 10学年末에 必要한 諸般 卒業試驗을 치룬다. 그 후에야 이들은 EOS에 入學할 수 있는지의 最終決定이 내려진다. 10学年에서 11学年으로의 進學率은 1973년에 11.6%였다.

EOS 進學을 위한 選拔基準은 能力과 政治的, 思想的 評價 및 社會的 出身成分의 사람들의 子女들, 그 中에서도 生産職 및 農民의 子女들에게 優先權이 주어진다. <sup>45)</sup>

EOS의 11学年, 12学年은 大學入學 豫備課程이라고도 볼 수 있으

며 또 大學教育 準備課程의 性格도 띄고 있다. 1974년에 49,206명의 學生들이 EOS에 다녔다. 이들 中 25,527명이 學歷考査에서 通過되었으며, 이것은 이 年齡 어린이들 中의 약 9.6%에 해당한다.

東獨의 一般教育的 學校制度의 근간을 이루는 綜合學校의 모델은 60年代에 여러모로 변천하였다. 필수 기초교육의 범위내에서의 個人의 素質과 興味에 대한 추구는 완고한 綜合學校 概念의 時代에 보다도 더 강하게 시도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서 1971년 사이에 東獨에서는 一般教養學校를 위한 學習指導計劃案이 방대하고 새롭게 導入되었다.

學習指導改革案은 당시 베르린의 「獨逸教育中央研究所」(Deutsches Pädagogisches Zentralinstitut : 1970년 以來 Akademie der Pädagogischen Wissenschaften der DDR로 개칭됨)에 의해 學問的으로 研究되었다.

個個의 學科나 學年을 위한 學習指導改革案의 綜合的이고도 理論的인 基礎로서는 「社會主義的 一般教育」(Sozialistische Allgemeinbildung) 「社會主義的 個人暢達」(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entwicklung)의 초안이 큰 寄與를 하였는데, 이때 「思想注入」이 특히 강조되었다. 一般教育을 위한 高等學校의 教科課程은 16個의 필수과목과 2個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比率의 教養分野로 나누어 진다. 즉 一般社會, 國語, 文學-芸能科目이 41.1%; 數學, 自然科學이 29.8%;

諸工藝科目이 10.6% ; 外國語가 10.% ; 體育이 7.9%이다. 46)

正規教科課程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서는 EOS 學生들에게 特別規定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과시키는 男學生을 위한 教練, 女學生을 위한 衛生訓練, 그리고 그 외에도 軍隊스포츠와 豫備訓練이 이미 8~10 學年에 實施되며, 이것은 學生, 徒弟, 大學生에 대한 社會主義的 軍事教育의 일환으로서 自由獨逸青年團과 「體育·技術協會」 (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 GST)에 의하여 運營된다. 이것은 곧 學校를 떠나 社會市民적 青少年教育의 主要課題로서 東獨의 國家觀 涵養 및 忠誠心 開發을 高揚하기 위함이다.

또한 大學에서의 모든 學生들에 대한 필수과목은 맑스-레닌研究, 體育, 軍事 또는 教練教育, 그리고 專攻을 위한 外國語(러시아어와 하나의 西方外國語)이다. 60年代 初에 시작된 專攻을 위한 모든 教育內容의 改革은 오랫동안 연기되어 왔다. 大學에서의 研究는 그 主要部分이 大企業의 위촉에 따라, 또는 東獨學術院이 主管해 나가는 研究課題와 결부지어 이루어 진다. 東獨의 大學改革은 政黨 및 國家統率에 必要한 教育의 合理化, 重點化, 效率化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47)

여기서 統獨 또는 共存을 內容으로한 東獨 青少年들의 政治教育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獨의 教科書에서 主流를 이룬 題目들을 살펴보면 ;

- Bonn의 執權者와 獨逸民族

- 西獨의 政黨과 利益集團

- 西獨의 經濟와 政治

- 獨逸政策

- 모랄과 社會意識<sup>48)</sup> 들이다.

一般綜合高等學校 8 學年의 政治教育을 위한 教科書 「國民生活」  
( Staats-Bürgerkunde 1970 年 再版 ) 은 다음과 같이 6 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I.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憲法

II. 社會主義的 社會秩序와 國家秩序

III.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市民과 共同體들 - 市民의 基本權과 義務

IV. 國家的 指導의 構成과 體系

V. 獨逸民主共和國의 對外政策의 原則들

VI.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憲法 實現時의 젊은이들의 任務<sup>49)</sup>

全 教材內容에서 政治教育에 關聯되는 獨逸政策이나 統一政策에 關  
한 부분은 第 I 章 第 5 節의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은 全獨逸民族  
에 대해서 平和와 社會主義의 將來에 대한 責任을 認知한다」고 하  
고, 第 V 章 第 4 節에서는 「유럽에 있어서의 平和와 緊張완화에 反  
對하는 主妨害者는 西獨帝國主義」라고 하였으며, 第 5 節 獨逸民主共  
和國의 民族的 使命에서 東獨은 「平等權의 基盤위에서 두 獨逸國家  
의 正常的인 關係와 協力の 樹立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民族的 갈망  
이다.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市民은 帝國主義에 의해 獨  
逸民族에 강요된 獨逸의 分斷을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基盤위에서  
그 結合에 이르기까지 두 獨逸國家의 段階的 接近을 追求한다」<sup>50)</sup>



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東獨은 西獨의 全獨逸 单独代表權 要求를 問題視하면서 「두 獨逸國家의 統一은 西獨과 西베르린에 社会的 前提들을 缺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将来에는 可能하지 않다. 따라서 두 獨逸國家間에는 兩國家의 主權을 서로 존중하는 立場에서 關係正常化가 要求된다<sup>51)</sup>」고 한다.

東獨은 이와함께 東西獨과 같이 自主的이고도 서로 對立되어 있는 두 國家間에는 國際法的 內容의 關係들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西獨에 의한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 바로 그것이 反帝國主義 鬭爭과 歐洲安保의 核心問題라고 강조한다.

8 学年을 위한 教科書 「國民生活」은

I. 社會主義 社會의 政治的 基礎와 經濟的 基礎

II. 社會主義 國家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III 社會主義的 國民의 權利와 義務 등

3 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sup>52)</sup>

여기에서도 統獨政策에 관한 紙面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다만 第II章에서 帝國主義 國家들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平和共存政策의 관철이라는 內容만이 獨逸政策과 關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 学年을 위하여 1970 년에 出版한 「國民生活」은 四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I. DDR 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지속적 發展을 위한 基本問題들

II. DDR 에 있어서의 發達된 社會主義 社會體制의 形成에 關하여

III. 世界와 獨逸땅 에서의 社會主義와 帝國主義間의 階級對決,  
獨逸民主共和國의 歷史的 使命

IV. 社會主義的 世界觀과 모랄의 基本특징들 이다. 53)

이 教科書의 第 III 章은 東獨의 歷史的 使命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1972 年 兩獨間에 基本條約이 締結發効된 이후인 1975 年에 10 學年을 爲하여 出版된 「國民生活」은 4 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東獨의 民族的 使命이라는 項目은 完全히 삭제되고 著者는 「世界戰略속에서의 西獨國家의 役割」, 「西獨은 유럽에 있어서의 侵略的 힘」, 「네오파시즘 反對論」, 「反植民主義論」, 「反帝國主義 鬭爭에 있어서의 西獨 勞動者들의 責任」 그리고 「두 獨逸國家間의 平和共存을 爲하여」라는 表現들 속에서 東獨의 對西獨 關係속에서의 提案들을 이데올로기의으로 正當化시키고자 하고 있다. 54)

또한 이것은 統獨政策에 관한 內容보다는 平和共存에 관하여 더 많은 紙面이 割愛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西獨을 유럽에 있어서의 美帝國主義의 主同盟國이며, …… 社會主義에 反對하는 美帝國主義의 가장 重要한 作戰基地」라고 하여 결국 帝國主義의 몰락과 社會主義의 優位性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매우 興味있는 事實은 東獨의 學生들은 그들의 教科書에서 西獨學生들이 東獨에 관하여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더 確實히 西獨에 관한 知識을 얻는다는 것이다. 東獨 教科書의 著者들은 무엇보다도 西獨經濟에 관하여 學生들에게 더 많이 說明

하려고 西独政治家들의 이름보다는 勞動組合과 銀行 그리고 政党的 이름들을 더 많이 拳論시킨다.

拳論된 政治家와 銀行, 政党들의 拳論된 回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 「에어하르트」首相 1번
- 基民党 / 基社同盟 ( CDU / CSU ) 21번
- 社民党 ( SPD ) 40번
- 西独共産党 ( KPD ) 11번
- 自民党 ( FDP ) 1번
- 이-게 염색 공업 주식회사 ( 前에는 独逸最大의 化学工業会社 ) 와 独逸中央銀行 ( IG Farben / Deutsche Bank ) 24번
- 후르시초프 2번
- 코시긴 1번

그러나 西独 教科書에는 東独의 울브리히트外에는 전혀 아무도 그 이름이 拳論되지 않고 있다.

한편 西独에서는 東独의 「国民生活」教科書의 內容을 否定的으로 보는데, 그 理由는 그 教科書는 西独에 관한 바른 知識을 많이 傳達하기도 하지만 어떤 面에서는 党的 思想的 指導路線에 맞추기 위하여 그들의 편의대로 記述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즉 西独에서 税金이 오르거나 物價가 오르는 것은 지적하면서 勞動者의 賃金이 오르는 것은 記述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또한 西独의 教科書 著者들은 計劃經濟는 非人道主義的인 것으로

서 파멸할 것이라고 하고, 西獨의 社會主義에 대한 批判들은 東獨에 대하여 알고 싶은 欲望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한다고 한다.<sup>56)</sup>

흔히 社會主義國家들을 對峙적이라고는 하나 그들도 相互協力機構의 範圍 안에서 國家相互間의 協定 및 會談을 통한 教育·研究分野에서의 學問的 協力關係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西方國家들과 접촉을 하여 왔다. 그러나 東獨은 思想的 差異를 내세워 西獨과의 필요한 機構를 통한 教育制度 및 教育內容에 관한 經驗이나 情報交換은 強力히 拒否하면서도 「UNESCO」를 매체로 하는 각종 國際機構를 통한 協동사업은 강화하려는 努力을 보이고 있다.

「맑스-레닌主義」(Marxismus-Leninismus)의 社會理論과 教育理論의 原理인 「政治와 教育의 一體」(Einheit von Politik und Pädagogik)論에 의하면 全體의 教育 및 教養課程의 意味는 社會主義 社會에서의 全人的, 社會主義的 人格을 暢達하는데 寄與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經濟와 教育의 一體」(Einheit von Ökonomie und Bildung)<sup>57)</sup> 思想에 따라 教育 및 教養涵養의 目標를 勞動社會의 要求이며 技術促進의 方法이라고 보는 것은 그 社會에서는 首肯할 수 있는 理論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靑少年들에게 다만 東獨의 國家觀 및 忠誠心 開發만을 要求하지 않고 새로운 教育理論의 摸索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들의 오랜 教育의 歷史와 政治·文化에서 나온 「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Ⅳ. 맺 음 말

獨逸은 일찌기 다른 나라에 比하여 教育學의 理論面이나 教育制度面에 있어서 先進的 役割을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被壓迫階層의 教育을 역설한 「바이트링」( Wilhelm Weitling )이라던가, 獨逸 教育學의 開拓者( Begründer der dt. Erziehungswissenschaft )인 「허바르트」( Johann Friedrich Herbart, 1776-1841 ), 그리고 幼稚園 創始의 아버지( Vater des Kindergartens )로 불리는 「후뢰벨」( Friedrich Fröbel, 1782-1852 ) 등의 學者들이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第二次 大戰을 유발시켰고, 이 戰爭이 聯合軍의 勝利로 끝나 獨逸이 東·西로 分斷되자 西獨에서는 물론 東獨에서도 그들의 靑少年들을 모든 生活의 範圍內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그들 社會에 統合시키기 위한 理想的인 條件을 創造하는 것을 目標로 靑少年 政策을 樹立하고 靑少年들에게 政治教育을 實施하였다.

東獨에서의 靑少年政策은 하나의 全体政治에 統合된 構成要素이다. 즉 靑少年政策은 全体社會로 부터 解決하려는 하나의 課題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靑少年政策은 항상 全体社會의 目標設定과 一致하였었고 앞으로도 一致할 것이다. 그들의 課題는 靑少年들을 그들의 政治的 目標에 一致시키고 그들 社會에 統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獨에서의 靑少年 政治教育이란

靑少年들을 이에 맞게 組織化하는 것이며, 이들을 社會主義 建設의 前衛隊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도록 教育시키는 것이다.

西獨의 資料에 의하면 東獨에서의 政治教育의 成果에 관한 調査는 별로 없다고 한다. 58)

西獨에서의 政治教育 成果에 관한 調査에 따르면 政治에 관한 學校에서의 授業을 통하여서는 學生들에게 政治的 利害關係를 높여 주고 發展시켜 주기는 하였으나 政治的 無關心은 타파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學校授業만을 통하여는 學生들을 民主的인 市民으로 키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理由는 政治에 관한 授業이란 대부분 政府機構, 機關에 관한 知識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러한 知識의 傳達만으로서는 學生 個個人들의 環境과 狀況 그리고 學生들이 매일매일 겪는 社會와의 갈등 문제를 解決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일찌기 學校範圍內에서 이루어지는 축소판 民主主義의 經驗과 變化된 政治議會와는 Gap이 있어 의문을 提起케 되는데 그것은 行動을 통한 政治學習도 역시 보다 나은 成果를 얻는다고 保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西獨에서는 지난 過去에 學生들의 이러한 政治的 行爲가 넓은 政治授業의 場으로 發展되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경향도 前처럼 西獨社會를 支配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59)

西獨에 있어서 政治教育의 한 批判的 分析은 지금까지 다음 分野에서 만족할만한 解答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過去 「나치」의 청산
- 世代間的 調整
- 抵抗問題의 解明
- 反유대問題
- 政府當局의 思考와 政策에 대한 의문
- 現代의 世界像과 平和研究에 대한 問題등이 그것이다. <sup>60)</sup>

그들은 그러면서 論爭의 여지가 많은 概念들 즉 民族, 國家, 社會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것을 合理的으로 理解시키는 作業을 펴면서 政治教育을 擔當할 學校와 그 밖의 組織에서 무엇을 理論적으로 그리고 實際로 가르칠 것인가를 定하는 作業을 研究하고 있다.

「미켈」(Wolfgang Mickel)은 그의 高校教科課程分析에서 復古的인 경향이 아직도 支配的이라고 풀이 하였다. 즉 대부분의 教科計劃에서는 靜的인 社會모델이 支配的인데 이것은 現狀固定과 現狀強化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自己體制에 대한 갈등이라던가 變化 또는 批判은 전혀 擧論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sup>61)</sup> 특히 이때 우리는 政治教育의 目標樹立이나 教授法에 대한 批判은 時差的 觀念에 예속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기섹케」(Hermann Giesecke)도 政治教育을 說明하면서 더 이상 政治教育의 目標와 成果를 保守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政治的 批判運動의 要求에도 맞춰 後繼世代들을 後期資本主義의 社會體制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한다. <sup>62)</sup>

그러나 批判的 態度에 있어서도 ① 초보적인 共同決定型과 친절한 對話, ② 政治的 集會에의 參與, ③ 活動과 示威, ④ 서로 다른 領域과 우리社會의 組織으로 부터 나온 機能 Elite 構成員들과의 論 爭들 가운데 어떤 行動型이 訓練을 위해 有用한 것들인지는 實驗 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政治教育의 實際에 대한 批判 없이는 그 教育自体 도 非民主的으로 되어지고, 非民主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진 靑少年 政治教育은 아무리 政治教育의 目標가 理想的인 民主型이라고 하더라도 非民主的으로 教育되어 진다고 꼬집는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의 課題와 目標, 內容과 教育方法등은 계속 討 論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 註 釈

- 1) Kurt Sontheimer / Wilhelm Bleek, "Die DDR" Politik Gesellschaft Wirtschaft, Hamburg 1975, S. 177.
- 2) 이 委員會는 1943년 10월 19일 부터 30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聯合國 3個国 外相會議에서 戰後유럽問題의 處理를 위하여 構成한 것이다.
- 3) A. Hartmann / S. Schardt / G. Weiß, "Zur Entwicklung der Spaltung Deutschlands," in : H. Jung / F. Deppe, u. a., BRD-DDR Systemvergleich, Köln 1971, S.33.
- 4) Ebd., S.34.
- 5) Horst Siebert, "Systembedingtheit des Schulbuches, dargestellt anhand der Probleme und Ergebnisse eine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von Schulbüchern der DDR und der BRD," in : E. Horst Schallenberger ( Hrsg. ), "Das Schulbuch - Produkt und Faktor gesellschaftlicher Prozesse," Ratingen, Kastellaun, Düsseldorf 1973, S.74.
- 6)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nd Materialien zur Lage der Nation 1971," Kassel 1971, S.219.
- 7) Ebd., S.210.
- 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

- xte zur Deutschlandpolitik," Band IV, Bonn 1970, SS. 9-40 )
- 9) Erich H. Müller, / Willy Rehm / Rolf Nußbaum, "Politikunterricht und Gesellschaftskunde in der Schule", Ulm ( Donau ) 1971, S.83
  - 10) Armin Hegelheimer, "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 Systemvergleich BRD-DDR, Frankfurt / M. 1972, S.25.
  - 11) Oskar Anweiler u.a., " Bildungssysteme in Europa, Struktur und Entwicklungsprobleme des Bildungswesens," Weinheim und Basel 1976, S.60.
  - 12) Ebd., S.60.
  - 13) Adolf Brock / Manfred Heckenauer, " Berufsausbildung in Schweden und in der DDR," in : Berufsausbildungs-Reformpolitik in der Sackgasse ?, Reinhard Crusius / Wolfgang Lempert / Manfred Wilke ( Hrsg. ), Hamburg 1974, S. 128.
  - 14) 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vom 25. Februar 1965, § 32, Abs.4.
  - 15) Oskar Anweiler, a.a.O., S.62.
  - 16) Christa Mahrada, " Jugendpolitik in der DDR," in: Walter Jaide / Barbara Hille ( Hrsg. ), " Jugend im doppelten Deutschland ", Opladen 1977, S.220.

- 17)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212.
- 18) Vgl. z. B. H. Müller,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Einstellungen im Jugendalter," in : Jugendforschung, 1970, Heft 13, SS.23-27
- 19) Erich H. Müller/Willy Rehm/Rolf Nußbaum, a.a.O., SS. 84-85.
- 20)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219.
- 21) Hans-Georg Wehling, "Einführung : Politische Bildung in emanzipatorischer Absicht," in : Franz Ehrenwirth (Hrsg.), "Unterrichts-praktisches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Modelle für den Sozialkundeunterricht, München 1973, SS. 7-8, 尹謹植, 東西獨統一教育現況分析, 서울 : 国土統一院 (국통정 78-12-1485), 1978, p.20 에서 再引用.
- 22) Erich H. Müller/Willy Rehm/Rolf Nußbaum, a.a.O., S.178.
- 23) Ebd., S.179.
- 24) Ebd., S.181.
- 25) Beck'sche Textausgaben,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 1968, SS.73-74.
- 26) Erich H. Müller/Willy Rehm/Rolf Nußbaum, a.a.O., S.184.

- 27) Ebd., S. 189.
- 28) Ebd., S. 190.
- 29) Ebd., S. 200.
- 30) Horst Siebert, a.a.O., S.72.
- 3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  
a.O., S. 12.
- 32) Friedrich Karl Torges, " Der Jugendclub als Ort und  
Methode Politischer Bildung," Neuwied und Berlin  
1973, S. 48.
- 33)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  
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219.
- 34) Ebd., S.210.
- 35) Christa Mahrad, a.a.O., S.217.
- 36)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  
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210.
- 37) Oskar Anweiler, a.a.O., S. 62.
- 38)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  
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 209.
- 39) Christa Mahrad, a.a.O., S. 199.
- 40) Ebd., S.201.
- 41) Ebd., S.220.
- 42) Oskar Anweiler, a.a.O., S.66.

- 43) Adolf Brock / Manfred Heckenauer, a.a.O., S.128.
- 44) Oskar Anweiler, a.a.O., S.66.
- 45) Ebd.
- 46) Ebd., S.68.
- 47) Ebd., S.71.
- 48) Horst Siebert, a.a.O., S.72.
- 49) 尹謹植, 前掲書, p.54.
- 50) 上掲書, p.55.
- 51) Staatsbürgerkunde, Lehrbuch für Klasse 10, Berlin :  
Volk und Volkseigener Verlag 1970, S.122.
- 52) 尹謹植, 前掲書, p.58.
- 53) 上掲書, p.56.
- 54) 上掲書, p.57.
- 55) Horst Siebert, a.a.O., S.72.
- 56) Ebd.
- 57) Armin Hegelheimer, a.a.O., S.29.
- 58)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a.a.O., S.219.
- 59) Erich H. Müller/Willy Rehm/Rolf Nußbaum, a.a.O., S.83.
- 60) Friedrich Karl Torges, a.a.O., S.9.
- 61) Willy Rehm, "Politikunterricht und Gesellschaftskunde"  
in : Erich H. Müller/Willy Rehm/Rolf Nußbaum, a.a.O.,  
SS. 82-83.
- 62) Ebd., S.8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OLITIC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IN THE DIVIDED COUNTRY

Yong-Kil Chung

After the World War II; Korea, China, Vietnam and Germany became to be the divided countries. I investigate mainly educational policy for young people of the West Germany (BRD-Bundes Republik Deutschland) and the East Germany (DDR-Deutsch Demokratische Republik).

This study is consisted of four chapters.

In Chapter I, I want to investigate what political education means, why each country executes such a kind of political education and what organization takes charge of this kind education. The reunification policy of both Germany related with the Background of the partition of Germany and with educational policy for young people after the partition must be compared with and be examined each other accordingly.

In Chapter II, comparison of the objective of political education of both Germany is investigated into two sections, and compared the objective of politic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of the West Germany with that of the East Germany.

In Chapter III, comparison of contents and methods of political education of both Germany is investigated. I examined contents and methods of political education of the West Germany and that of the East Germany respectively.

In Chapter IV, I integrated the described investigations, and examined critical view which involves problems, purposes, contents and education methods of political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 in political education examined and investigated by the West Germany.

In order to compare the education policy of the Communist East Germany with that of the Capitalist West Germany, we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at there are a lot of limitation such as educational system, purpose and contents of education different from each other, existing in both countries. And yet there is not only insufficient statistical data to be compared in education policy in the East Germany, but also education policy of the East Germany is controlled by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while that of the West Germany is controlled by the State Government.

This summary is composed of "Political education in the

West Germany" and "Political education in the East Germany",  
and "Problems related to Political education."

#### Political education in the West Germany

As for political education, usually we emphasize on observance, priority of public benefit and cooperative spiri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pirits to keep orders in a society because man assembles together and operates society.

And we are given political, economical and legal knowledge to make right judgement and decision in order to keep and enrich "myself", neighbours, society, nation and system. And Those knowledge involve not only informations and knowledges about friendly countries or hostile countries, but also thos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urthermore, the country protects her people by giving help with developing individuality and capacity of people respectively. As a result of it, people can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by accepting the sense of right and responsibility, so that all people will become to be able and good citizen. In the West Germany, where this kind of political education, is executed comparatively similar with these spirits.

Especially in this country, emphasis is given on "The basic



right of people" and reminds and criticizes of "Nazi Regime by Adolf Hitler." They call this era as "Police State" when people were deprived of his basic right, and they awaken people to keep "Constitutional State" and by doing so people can be guaranteed his basic right.

This kind of political education of the West Germany is carried at home, at school and training at works, and that is supported by the organization of younger generation and many other institutes for young people, political parties, churches, labour unions and many other interest-groups. And mass media such as radio and TV takes part in the education too while the actual political education is given to the young people through vigorous group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intercourse.

#### Political education in the East Germany

In 1946, antifascism communist group in the East Germany provided a law called "The law to democratize German school" (Gesetz zur Demokratisierung der deutschen Schule) and attempted so-called "Antifascism democratic school reform" (Antifaschistische demokratische Schulreform). After this movement, finally the ideology is fortified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roduction" (Verbindung der Bildung mit der Produktion) and

"Unified sense of policy education" (Einheit von Politik und Pädagogik) through sovietized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and education system. "Free German Youth Group" (Freie Deutsche Jugend-FDJ) was organized in 1946 and that played a big role in the politic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of the East Germany.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1976" of the East Germany, 96% of students of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joined to FDJ. FDJ took the place in the daily life of young people so deeper that FDJ organization could give a great influence on the whole young people in the East Germany and that young people cannot be freed from its influence. The work of FDJ covers all the field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of young people, since then FDJ is not a reserve corps of "Germany Socialists Reunification Part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SED) any more. The actual fact that FDJ takes charge of political education as a kind of a shall be recognized.

Political education in the East Germany is standardized to be a term of giving a solid class consciousness to young people, and making them think themselves as a body and to do as a part of whole body. Even more, each individual shall be managed as a component of socialists society. They give "Marxist-Leninist

education" to young people along with giving them homeland view to make the situation of the East Germany elevated. Also they give knowledge about socialistic world view comprised with the necessity of defence for his homeland against the enemies of Imperialism. Furthermore, they urge them to complete expansion of production goal which seemed to be their final target.

In the East Germany, young people is organized in order to match to their political and social purpose, and they train young people to play a role of the advanced guard for construction of socialism.

#### Problems related with Political Education

Since "Basic Relation Treaty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Germany" was signed in 1972, in the textbook published for young people in both the West and the East Germany, we hardly find the contents of the book dealt reunification policy. They mainly refer "Inner Germany Relation" (Innerdeutsche Beziehungen) in the West Germany and "Peaceful Co-existence" in the East Germany.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tical education in the West Germany, they pointed out that the students could not be trained well to be a democratic citizen by school

education only. And the reason is that they may teach and give knowledge about government systems organizations, but the individual student will be faced with difficulties in his situation, condition and experience with society through his daily life and that difficulties must be solved by education.

Wolfgang Mickel pointed out that political education tends to reserve and keep its own organization and that refuses to be confused or changed or criticized. Also Hermann Giesecke emphasized that political education must not be too reservative, but to be more progressive to train the coming generation to be adjusted to the social system of post-capitalism to keep pace with the demand of political critic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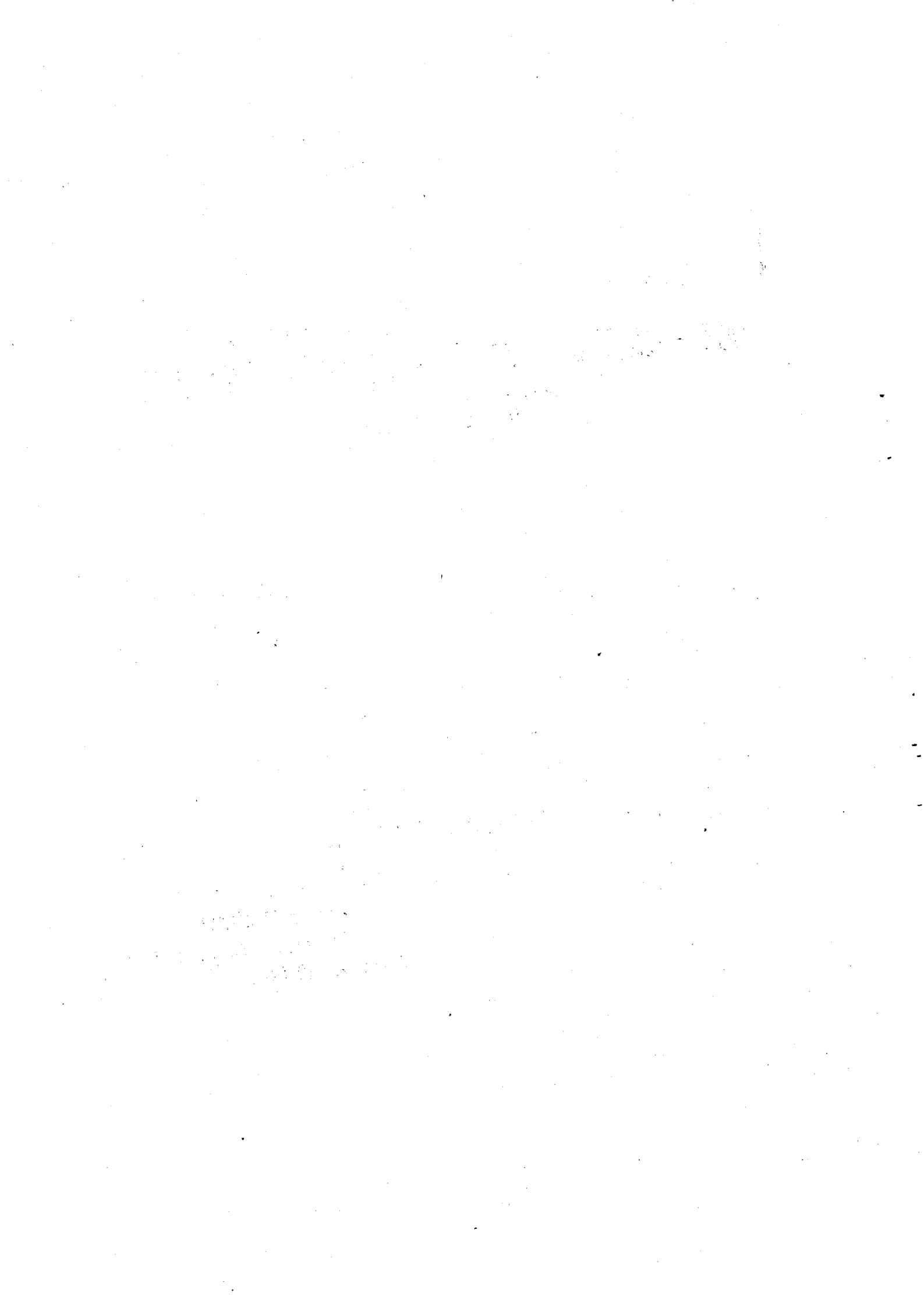
And they said that the political education must be criticized. If political education refuse to be criticized in the course of execution, it will turn out to be non-democratic and political education for young people performed by nondemocratic way will become non-democratic education even if the purpose of political education seeks to be idéal democratic im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objective, task, contents and teaching way of political education still remained as a subject to be discussed and studied.

# 統一後繼世代로서의 南北韓青少年的 諸問題와 展望

研究執筆責任 安 秉 永

(略歷) 延世大 政外科 卒業  
서울大 行政 大學院 卒業  
오스트리아 빈大學 政治學 博士  
現 延世大學校 教授



## 〈 要 約 〉

### 1. 基本的 価値定向

(1) 学校教育에서 社会教育의 次元으로 青少年精神教育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社会教育의 次元으로 展開되어야 하겠다. 이 의미는 日常生活에서 겪는 삶의 過程에서 教育이 이루어지고, 多様な 社会化機關의 教化노력이 学校教育과 軌를 같이 한다는 뜻이다.

(2) 政府에서 政治共同体 ( Political Community ) 에로 忠誠心의 向導

지금까지의 精神教育은 政府 ( authorities ) 에 忠誠하도록 助長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政治共同体에 忠誠하도록 하여 民族的 一体感을 形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확보수단으로 國家는 「주는 者」 「正義로운 者」가 되어 青少年들이 「受惠感」을 느낄 수 있도록 福祉政策 公共意識등의 開發을 이루도록 한다.

(3)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規範들 속에서

民主主義는 우리 社会의 目標이며 이것은 資本主義的 經濟秩序 속에서 추구된다. 우리의 思考 및 行動의 外延을 이 두 概念이 形成하고 있으며 그 本質과 現實態를 청소년교육과정에서 상세하게 傳達할 필요가 있다.

(4) 教育内容의 韓國化

主体的 地平위에서 外来文化를 受容하는 습관을 갖도록 할 것이며 祖国의 狀況認識에 적절한 教育内容을 창조하여 傳統文化와 外来文化의 갈등에서 제 位置를 익히고 未來를 겨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教育内容의 韓國化가 現實情을 正当化하고 호도

하는 手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5) 精神的 潜在力の 形成과 補強의 次元으로

社会化過程에서 開放성과 多樣性を 保障함으로서 精神的 潜在力 形成에 역점을 두는 틀안에서 靑少年精神教育 담당기구들은 政策的 調整과 機能的 協助를 통하여 教育의 補強(reinforcement) 效果를 提高하게 하여야 한다.

(6) 教育投資를 통한 社会的 下部構造의 整備

教育投資는 人的要因의 開發과 精神教育의 实效性을 높이므로 体制發展을 위한 가장 確実한 社会的 下部構造의 整備 노력인 것이다.

## 2. 教育体系

(1) 社会化機關간의 協助와 調整

政治社会化過程의 一貫성과 계속성을 維持 保障하기 위해 精神 教育을 담당하는 여러 社会化機關 간에는 固有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들의 活動과 努力이 效率的으로 조정되고 협조되는 体制로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보다 上位水準의 機關이 필요 하나 자칫 官僚的 統制기구도 전락하기 쉽고 자칫 現實的, 短期的, 政治目的에 잘못 利用되기 쉬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자 靑소년의 教育對策

正常的인 社会化教育의 死角地帶에 있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소외계층으로 생각하여 社会的 不滿계층으로 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政治共同体에 자연스럽게 統合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3. 教育担当者の 質

#### (1) 青少年教育 一線담당자의 문제

青少年 教育現場에 임하는 教育담당자의 質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教育의 成果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에 全体 교사에 해당되는 것과 精神教育担当者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全体교사의 質을 上向시키는 方法은 교사의 처우改善으로 집약되며 부차적으로 再教育 혹은 大学院教育의 機會를 보다 폭넓게 해야한다.

精神교육담당교사가 존경받는 풍토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政策的배려가 先決要件이다.

또 강조할 점은 精神教育은 國民倫理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全体 學校의 共同課題임을 인식하도록 해당과목과 정신교육의 內容의 연계 되도록 교과개편등이 요구된다.

#### (2) 一線교사의 教育담당자 문제

오늘날 한국에서 교사에게 統一教育 共產主義教育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교수의 不足은 매우 심각하다. 보다 有能한 교수교원의 確保는 곧 精神教育내지 統一教育의 成敗와 연결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政策的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大学院教育過程에 보다 적극적인 共產主義理論研究의 機會를 개방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現在의 中高等學校의 國民倫理교사의 水準으로는 說得力있는 精神教育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 4. 教育内容 教育方法

##### (1) 教育内容

青少年精神教育 内容은 우리의 政治共同体에 대한 理解와 신뢰의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目標와 現在의 狀況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共同生活에 필요한 規範과 生活態度를 가르치고, 새로운 變化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들 위해 價值定向에서 논한 内容이 그대로 有用하면서도 몇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 (i) 市民교육의 필요성

「나」와 이웃 사회 및 國家가 平和로이 共存할 수 있는 公共意識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前近代의 小共同体 意識에서 탈피하도록 계몽해야 한다.

##### (ii) 社会的 葛藤에 대한 논의

葛藤은 어느 社會에서나 内在하는 自然的 現象이며, 이 葛藤의 原因, 解決의 方法, 解決의 展望, 葛藤制御의 必要性등을 교육하여 보다 升华된 次元으로 논의를 이끌도록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교육담당자의 能力이 絶실히 要求된다. (例; 世代, 階層, 地域, 政治理想과 現實, 傳統文化와 外来文化, 統一意志와 政治現狀, 第3世界문제등등)

##### (iii) 均衡的 思考의 강조

複合的 社會現象의 여러 단면을 고르게 이해하고 均衡되게 생각하도록 하여 成熟한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均衡된

思考는 인간과 인간간의 合意의 터전을 넓히며 보다, 同質的 정치문화 형성의 바탕이 된다.

(iv) 共産主義의 이론과 實際에 대한 교육

共産主義의 全体主義的 속성과 비인간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北韓 共産主義의 歪曲된 体制과 体制내의 모순, 그들의 統一戰略의 허구성을 知的 分析的으로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反共교육의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v) 교육내용의 비판가능성

精神교육의 內容은 시간과 더불어 그 妥當性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며 계속 補充 修正하여 硬直性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2) 教育方法

지나친 行事爲主의 教育을 지양하고 形式的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래 몇가지 補完策은 다음과 같다.

(i) 自發的 參與유도

대화교육을 기초하여 권위주의적 강요나 획일적 지도는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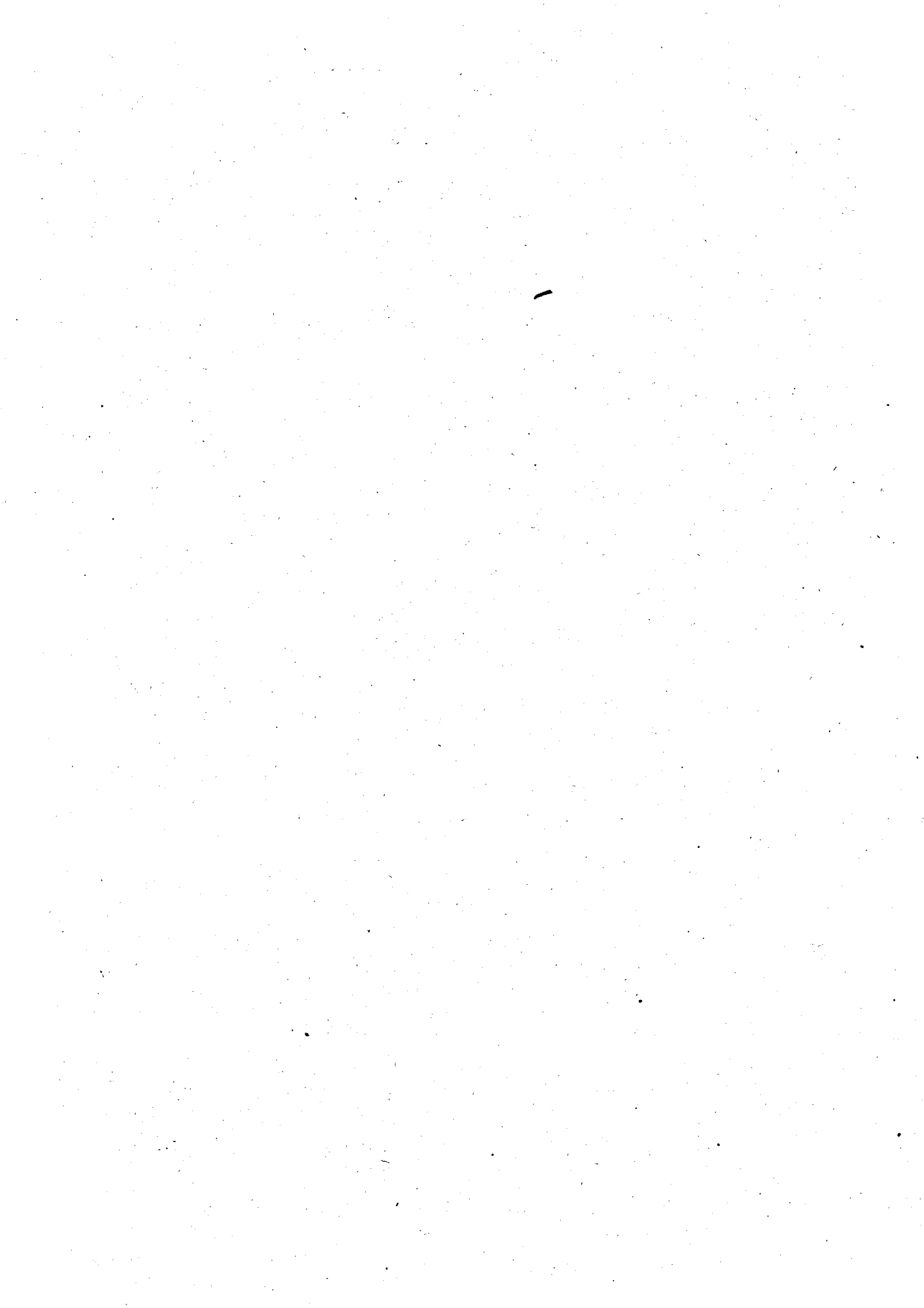
근로청소년의 교육담당자들은 이들의 日常生活의 어려움을 精神的으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

(ii) 教育資料에 의한 論理的 教育

充分한 교육자료는 청소년 교육에 매우 重要하며 담당자의 노력을 크게 덜어준다.

(iii) 實質교육시간의 연장

國民倫理이외에 다른 과목과정에서 精神教育을 분담하며, 이때에 教育方法은 그 科目의 속성을 감안하여 교육담당자의 창의에 따라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目 次

1. 序..... 255

2. 南北韓 青少年問題 學術會議內容 및 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精神教育(統一研究所 課題)에  
대한 一線教師들의 友心分析..... 256

3. 政策提言..... 268

## 1 . 序

統一后繼世代로서 靑少年의 精神教育問題는 現在의 南北對決狀況에 있어서나 혹은 앞으로 도래 되어야 할 統一狀況에 對処하기 위하여나, 우리가 풀어 나아가야 할 가장 主要한 政策課題임에 틀림없다.

本稿에서는 国土統一院이 主催한 南北韓靑少年問題學術會議에서 네 교수님(장일조, 차경수, 김충남, 정용길)이 發表한 論文과 討論過程에서 提起된 問題點, 네 교수님과의 會議結果分析에서 整理된 의견등을 整理하고, 이에 덧붙여 統一研修院 課題報告(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精神教育)를 参照하여 하나의 政策提言을 마련하였다.

우선 위의 네 論文과 課題報告의 主要 論點을 整理한 후 政策提言으로 基本的 價值定向, 教育體系, 教育担当者의 質, 教育內容과 教育方法을 차례로 論議한다.

## 2. 南北韓青少年問題學術會議 內容 및 「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精神教育」(統一研修所 課題) 에 대한 一線教師들의 反應 分析

### ㄱ. 學術會議 內容 (主要論點)

#### (1) 南北韓 青少年의 統一觀 比較 —하나의 理念批判的 課題로서—張日祚

(i) 南北韓 青少年들의 統一觀 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接近을 위하여는 理念批判 (Ideologie Kridik) 의 方法이 不可避하다.

(ii) 韓國의 現在의 分斷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統一意識의 教育은 단순한 學校教育的 性格에만 머무를 수 없고 보다 幅 넓은 社會教育的 性格으로까지 개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社會, 經濟, 政治, 精神, 文化等 삶의 總體的 次元을 통해서 統一問題에 接近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統一觀 主導階層이 特定階層에서 國民全體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知識人들과 大學生들은 韓國統一問題가 第3世界의 제3 이데올로기 即, 政治, 經濟, 社會, 精神, 文化等 全般에 걸친 独自の 路線의 틀속에서 조명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國民들도 分斷現實을 說明하는 오랜 兩面的 黑白論理의 이데올로기적 強要에서 벗어나 多值的 變證법 論理로 解放하고 싶어한다.

(iii) 北韓 青少年들의 統一觀은 共產主義的 社會, 經濟, 政治體系,

精神, 文化理念等の 틀안에서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무장하고 武力暴力 革命의 解放戰爭方式을 통하여 南朝鮮을 赤化統一한다는 것으로 要約 된다. 이러한 統一觀은 주로 잘 짜여진 幼兒教育, 學校教育, 社會, 政治教育을 통하여 주입되고, 社會主義 建設에 必要한 人間의 양성이 그 目標다. 여기에 比하여 南韓靑少年들의 統一意識은 多樣性和 開放性이 그 特徵이다. 이것은 劃一, 廢鎖的인 北韓靑少年들의 統一意識과는 正反對의 性格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각기 強点이면서 同時에 弱点이다. 統一觀의 이러한 兩極的 갈등속에서 第3世界의 新民族主義的 理念은 엘리트靑少年들에게 우리나라의 外勢에의 依存과 종속에 대한 새로운 民族主義的 눈을 뜨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既存 統一理念에 대한 決定的인 새로운 變수가 될 것이다.

(iv) 앞으로 南韓의 統一觀이 反美, 反資本, 反帝國主義등 危險要因을 含縮하는 第3世界의 新民族主義의 道進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克服하고 보다 進步的인 民族國家의 삶의 理念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①社會・經濟에 있어서 平等의 範疇를 積極的으로 수용하고 ②政治的 次元에서 民主主義를 定着시키며 ③精神・文化的 次元에서 世界開放性을 指向하며 아울러 ④自然에 대한 人間의 調和的 均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問題 그 自体는 現實政治의 課題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根拠는 哲學的, 歷史的 存在論의 課題에 까지 延長되는 것이다.



## (2) 南北韓 靑少年의 社会化 比較 (金忠南)

(i) 南北分断以后 南北觀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相互 对立的인 이데올로기와 生活方式을 定着시키는 過程에서 異質的 文化가 形成되었다. 또한 이러한 社会 文化的 環境속에서 社会化되고 있는 南北韓 靑少年들의 特徵 또한 对照的인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ii) 우선 南北觀에 있어서 社会化的 巨視的 環境을 比較하여 보자. 北韓은 代表的인 廢鎖体制인데 反하여 韓國은 典型的인 開放体制(내지 部分的으로 중속체제)이며 따라서 前者는 住民에게 單一모델을 提供하나 后者는 다양한 準拋모델을 提供한다. 北韓의 境遇 既存文化伝統의 徹底한 破壞위에 政治, 經濟, 社会等 모든 것을 統制하는 一元滿的인 共產主義理念이 社会化的 方向을 明白히 해주며 이데올로기면에서 個人이 一体感을 느낄때 經濟, 社会的 一体感을 부수적으로 解決된다. 이에 反하여 韓國의 境遇 西歐理念인 民主主義의 資本主義가 價值準拋로 되어 왔으나 東洋的 내지 韓國的 傳統의 影響力이 아직도 의연하게 남아 있는 狀況下에서 相互 对立的 二重社会化 모델이 靑少年에게 주어지고 있다.

(iii) 社会化者는 日常生活속에서 相互 作用하는 多樣한 社会集團을 통해서 影響받는다. 우선 家庭의 境遇 社会化機關으로서의 韓國家庭의 역할은 予想보다 弱하며 靑少年들의 家庭에 대한 滿足度 또한 높은 편이 아니다. 한편 北韓은 生産의 集團化와 住宅의 集團化를 통하여 家族의 役割을 의도적으로 弱화시켰으며 그 結果 圓滿한 人間性 發達の 障礙가 되고 있다.

南北韓이 모두 傳統的文化體系에서 離脫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므로 社會化機構로서 學校는 새로운 社會化모델을 紹介하는 手段으로 매우 主要하다. 北韓의 學校들은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犧牲할 줄 아는 集團主義精神에 투철한 人間을 養成하고 있다. 反面 韓國의 學校 教育을 보면 우리 體制의 基本理念인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에 關聯된 뚜렷한 教育指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韓國現實에 適切하게 接近시킨 體系的인 教育理念이 제대로 定立되어 있지 못하다. 또 지금껏 國民倫理教育이 強調되어 왔으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政府 (Political authority)에 關聯된 것으로 政體 (regime)나 政治共同體 (Political Community)와는 連結시키지 못했으며 生活에 直接 關聯이 없는 公共論理는 疎忽히 된 느낌이다.

其他 社會化機關들의 社會化役割을 比較하여 보면 韓國의 경우 同僚集團, 宗教集團, 靑少年團體, 메스미디어등을 社會化者가 自律적으로 選擇할 수 있고 政府에 의한 統制도 制限되어 있다. 反面 北韓의 其他 社會化機關들은 모두 共產黨의 公式的 統制를 받고 이데올로기적 目標를 뚜렷이 하고 있는 黨의 外곽단체이며 明白한 政治社會化機關이다. 따라서 이들 團體들은 靑少年들에게 初期社會化에서 習得된 것을 強化하며 理論的인 것을 實踐할 機會를 提供하며, 成年들에게는 再社會化 (resocialization)의 役割을 한다. 따라서 韓國에 比하여 社會化過程의 連續성과 一貫성이 높다.

(iv) 社會化의 結果로 볼 때, 北韓靑少年들은 적어도 겉보기에 體制에 대한 높은 支持도와 一體感을 보이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 教

育程度가 높을수록 政府 및 国家民族에 대한 支持度와 一体感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憂慮하지 않을 수 없는 現象이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自由社会에서는 個人的 社会化結果가 国家的 目的達成에 항상 調和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相互調整하는 過程에서 變動과 發展의 契機가 찾아지는 것이다. 反面 北韓의 体制盲從的인 人間은 短期的으로 党的 目標達成에 도움이 될 지 모르나 長期的 發展의 側面에서 創意性이 欠如된 自動人間을 배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v)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의 社会化는 '自照的' 社会化인데 反하여 北韓의 그것은 強制的이고 選擇의 여지가 없는 計劃된 政治教化이다. 위의 比較를 바탕으로 韓國 社会化의 問題點을 除去하기 위한 政策代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代案들은 항상 民主·資本主義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韓國實情에 맞는 教育理念體系가 樹立되어야 하며 教育의 理論과 實際間의 關聯性을 높이기 위해서 公共倫理, 教育內容의 韓國化, 現場實習機會의 重大等을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學校以外에 메스미디아와 社會團體等에 의한 社會教育和 家庭, 學校, 社會化 經驗間에 連續性和 一貫性을 提高시키는 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靑少年關聯投資를 大幅的으로 늘릴 必要가 있다.

### (3) 靑少年에 대한 南北韓 教育政策 比較(車京守)

(1) 여기서는 靑少年 教育의 理念和 理想的인 靑少年像, 教育制度, 教育內容, 教育方法等 教育運營의 實態, 靑少年團體에 대한 政策等

은 주로 檢討한다. 이 研究는 靑少年들의 意識形成 및 國家觀形成과 關聯된 教育政策上的 要因을 分析・檢討하려는 것이며, 靑少年들의 意識 그 自体를 比較・分析하려는 것은 아니다.

(ii) 우리나라의 靑少年教育政策은 이와 연관된 文獻과 그 解釋을 綜合해 볼 때, 民族主義의 理念아래에 ①人間尊重 ②自我實現의 強調 ③人格의 完成 ④職業準備, 生活能力의 增進, ⑤國家, 社會를 위한 公民의 資質向上等을 通하여 「民主的인 人間」을 形成하려는 것이 基本方向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靑少年의 成長過程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는 國民基礎教育의 義務教育期間은 6年이다.

이에 比하여 北韓의 靑少年教育政策은 共產主義理念 아래에서 ①全人民의 共產主義化, 勞動階級化, 革命化를 教育의 目標로 하고 ②金日成 唯一思想에 立脚한 思想教育 強調 ③勞動과 教育의 結合 ④徹底한 組織속에서의 教育 ⑤11年間の 義務教育 ⑥鬪爭的인 方法에 의한 革命性 強調等으로 「共產主義的 人間」의 形成을 強調하고 있다.

(iii) 北韓教育에서는 黨에서 定하고 있는 教育의 方向에 대한 解釋 以外는 一切 다른 解釋을 許用하지 않고 있음이 特徵이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은 金日成 一黨體制를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國際情勢의 變化나 産業化에 의한 社會變動과 같은 體制内外의 衝擊要因이 作用하는 境遇 그러한 變化에 対応할 수 있는 靑少年들을 形成할 수 있을지 매우 疑心스럽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教育政策은 人間の 尊嚴性, 自由와 平等의 尊重이라는 民主主義的 理念의 테두리에서 教育理念의 해석이 多様하게

論議될 수 있기 때문에 無限한 發展과 創造의 可能性을 갖게 된다.

(iv) 앞으로 우리의 教育이 民主的인 人間의 形成과 國家發展에 貢獻하기 위해서는 個人을 超越하여 자기 自身을 社會와 國家의 一 員으로 생각할 수 있는 市民意識과 國家意識을 確固하게 形成하고 民主的인 理念과 規範을 스스로 人格속에 內面化할 수 있는 靑少年의 形成을 위하여 努力해야 할 것이다. 教育制度面에서는 現代社會의 많은 國家들이 9年 乃至 12年의 義務教育期間을 無料로 教育함은 勿論 學用品과 食事까지 提供하고 있다는 點을 參考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教育過程에서 個人과 家族에 執着하는 意識狀況에서 社會와 國家에 奉仕하는 人間型으로 옮겨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教育方法面에서도 講義에 의하여 學習內容을 暗記하게 하는 授業方法보다 學生들이 學習에 스스로 參與하도록 하는 協同的이고 參與的인 學習方法을 더욱 研究 開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倫理教育에서 매우 時急하다.

#### (4) 分斷國의 靑少年教育政策 比較 (鄭用吉)

(i) 一般的으로 政治教育의 內容에서는 人間의 共同生活에서 主要한 秩序維持를 위한 法の 尊重心과 公益優先精神 그리고 協同精神을 強調하는 한편, 「나」와 이웃, 社會, 國家 또는 體制를 지키거나 豊요하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批判과 決斷에 必要한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인 諸知識들을 심어 준다. 또한 友好的인 國家들과 敵對的인 國家들에 대한 情報과 知識을 비롯하여 國際情勢에 대한 知識들을 傳達하고 더 나아가서 國家는 國民을 保護하고 國民 各自가 그들의 個

성과 資質을 開發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다시 國家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知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어 훌륭한 「市民」으로 教育시키는 것을 주된 內容으로 한다.

또한 政治教育의 이와같은 內容은 學校에서는 물론 家庭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職場에서의 各種 教育이나 研修를 通하여 實施되거나, 新聞, 라디오, TV와 같은 「메스컴」을 通하여 教育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다.

(ii) 西獨에서는 地方分權制에 따라 州(Lander)가 教育行政의 責任을 지고 있다. 靑少年 政治教育의 경우 「政治教育을 위한 聯邦政府 中央機構」( Bundes 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에서 總括하나, 政治教育에 대한 教科書 選択等은 州政府마다 다르다.

西獨에서 政治教育을 하는 目的은 훌륭한 「市民」을 教育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들은 學校教育은 勿論 其他의 靑少年 教育機關들, 政黨, 教會, 勞動組合 그리고 利益集團등의 社会的 구룹들로부터 支援을 받는다. 西獨은 政治教育을 通하여 유토피아적인 目標設定에 맞도록 이 社会的 變化만을 強調하는 것이 아니라, 靑少年 스스로에게 社会變化를 시킬 수 있는 能力을 키워 주어 그들이 追求하는 民主的인 社会的 法治國家를 계속 維持, 發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iii) 戰后 東獨은 教育政策과 教育制度의 소비에르化 過程을 거쳐 「教育과 生産의 關聯論」과 「政治와 教育의 一體論」에 입각하

여 교육에 있어 思想的인 側面을 強調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一環으로 1946年에 組織된 「自由獨逸靑少年團」(FDJ)은 오늘의 東獨政治教育에 대단히 큰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며 따라서 東獨 全體靑少年들의 生活領域에 매우 넓고 깊게 파고 들어 있다.

東獨에서의 政治教育은 靑少年들에게 確固한 階級觀을 傳達하고 모든 靑少年들에게 全體를 위한 思考, 全體를 위한 行爲의 本質을 規定한다. 그들은 또한 「맑스-레닌主義」교육과 併行하여 東獨의 地位向上을 위한 祖國觀의 傳達과 社會主義世界觀을 주지시키고 帝國主義의 敵으로부터 祖國防禦의 內容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iv) 西獨에서의 政治教育의 成果에 關하여는 大體로 肯定的인 反應과 함께 얼마간의 批判의 소리도 일고 있다.

예컨대 「미켈」(Mickel)은 政治教育이란 大部分 自己體制의 擁護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던가 變化 또는 批判은 전혀 擧論되지 않고 있다고 指摘하고 「기섹케」(Giesecke)도 政治教育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政治的 批判運動의 要求에도 맞춰 後繼世代들을 後期資本主義의 社會體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政治教育의 實際에 대한 批判없이 그 教育自体도 非民主的으로 되어지고 非民主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진 靑少年 政治教育은 아무리 그 目標가 理想的인 民主型이라고 하더라도 非民主的으로 教育되어진다고 批判하고 있다.

(v) 1972年 東·西獨間의 基本條約이 調認된 以後에 出版된 兩獨의 靑少年政治教育 教科書들에는 統獨政策에 관한 內容은 거의 사

라지고 西獨에서는 「內獨關係」를, 東獨에서는 「共存關係」에 관하여 紙面이 할애되고 있는 實情이다.

얼마간의 批判에도 不拘하고 西獨의 政治教育의 成果에 대하여 다른 西方國家들의 關心이 무척 높은 것이 事實이다.

ㄴ. 「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精神教育」 - 統一研修所課題-  
에 대한 一線教師들의 反應 分析

中・高等學校에 있어서 精神教育의 現況과 그 發展策을 摸索하기 위한 위의 課題를 分析한 結果 대체로 많은 教師들이 다음과 같은 問題點과 對策을 提示하고 있다.

1) 問題點

i) 入試為主教育

入試爲主의 과중한 教科過程과 과의 등으로 말미암아 教育目標로 내세우는 全人教育은 구호로 그치고 마는 現實이다. 따라서 國民倫理等 精神教育은 極히 疎忽히 다뤄진다.

ii) 社會的 分위기

物質万能主義, 無分別한 外來思潮에의 탐익, 公衆道德의 紊亂, 利己心 및 出世主義등의 범람등 一般的인 社會的 分 위기는 모든 種類의 精神教育의 成果를 減少시킨다. 특히 매스콤의 影響이 크다.

iii) 教師의 質의 低下, 士氣低下, 使命感 欠如

教師의 處遇가 나쁘고 敎職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떨어져 能



力있는 教師가 他職種으로 轉換하려 하며 教職을 志望하는 젊은이들의 質이 크게 低下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教師들의 意慾喪失, 使命感 欠如도 精神教育의 実効性を 떨어지게 하는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特히 英, 數等 俗稱 重要科目에 比해 國民倫理科目의 比重이 낮고 또 担当教師에 대한 一般的 認識이 크게 떨어진다. 以外에도 非伝攻教師들이 이 科目을 맡는 事例가 적지 않아 이러한 要因이 教育成果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 iv) 行事爲主의 形式教育

年中 수십번이나 되는 각종 行事가 形式에만 치우쳐 行事를 위한 行事로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學生들의 권태감과 抵抗意識을 오히려 조장하는 事例가 많다. 特히 地域社会에서 分別없이 學生들을 動員하고 精神教育和 동떨어진 展示效果에만 급급한 境遇가 많다.

#### v) 教師의 過重負擔

過重한 授業時間과 授業外的인 雜多한 業務때문에 教師들은 身體的, 精神的으로 피로해 있다. 이러한 點은 教師들이 學生들을 대하는 態度나 授業等에서 反映되며, 그 結果 師弟間의 不信을 낳고 精神教育 또한 障礙를 받는다.

### 2) 對 策

#### 1) 學校教育의 正常化

教課過程을 正常的으로 運營하고 全人教育의 內實을 期함으로서 教師와 學生들에게 時間的, 精神的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入試制度의 改革이 必要하다.

#### ii) 教師의 社会的 地位向上

精神教育을 現場에서 担当하는 教師들의 処遇를 改善하여 이들의 社会的 認識을 높여 줌으로써 이들의 士氣를 進作시켜 使命感 있는 能動的 자세로 教育에 臨하도록 与件을 造成해 주어야 한다.

#### iii) 教育資料의 扩充

教育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有關機關에서 多様な 教育資料를 製作, 配布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教科書가 새로 改編된 境遇 새로운 指針書를 빨리 配付하여야 하며 統一問題 및 共產主義理論批判等에 관하여는 担当教師들이 別途의 研修過程을 履修할 必要가 있다.

#### iv) 各種 行使教育의 止揚

形式에 치우친 行事教育은 學生들에게 면역성을 심어 주어 精神教育이 갖는 眞지한 霧困氣를 해친다. 따라서 内実追求의 教育이 必要하다. 이와 연관하여 各種 포스터, 표어, 슬로건의 남발 또한 되 썩어 볼 必要가 있다.

#### v) 國民倫理教師의 地位向上

精神教育의 學校라는 教育의 場에서 그 実効性を 높이기 위하여는 國民倫理教師의 相對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 있는 政策的 考慮가 必要하다.

以上이 「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精神教育」을 위한 教師들의 意見을 集約한 것이다. 靑少年의 精神教育의 成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教育現場에서 일하는 一線教師들의 見解가 크게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 3 . 政 策 提 言

위의 論議를 바탕으로 보다 具體적인 政策提言을 하는 것이 本款의 目的이다. 우선 青少年教育政策이 指向해야 할 基本的 價值定向을 다시 한번 確認하고 精神教育의 活性化를 위한 教育体系의 本質을 밝힌 후, 보다 具體적으로 教育担当者的 質과 教育内容 및 教育方法을 詳論하겠다.

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밝힐 것은 本稿에서는 統一教育, 政治教育, 精神教育 등의 概念을 구태여 明確히 分化하지 않고 比較的 自由로 活用했다는 点이다. 그 理由는 青少年의 統一教育이 实效性을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總체적인 國民精神教育의 次元에서 接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自然 그때 그때 文脈에 따라 適合한 用語를 選擇하는 方式을 取했다.

#### 1. 基本的 價值定向

##### (1) 學校教育의 次元에서 社會教育의 次元으로

青少年들의 精神教育이 그 教育成果를 높이기 위하여는 그것이 單純한 學校教育的 性格에 머무르기 보다는 보다 幅넓은 社會教育의 次元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장일조교수 論文參照)

實際로 青少年精神教育問題의 主要한 障礙의 하나가 學校教育의 内容과 社會一般에서 接하게 되는 體驗内容間의 편차가 크다는 것

이다. 여기서 靑少年들의 좌절감이 싹트고 精神的 방향이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特히 学校教育에서 強調되는 規律내용이 社會의 指導層 乃至 既受惠層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을 때 學校에서의 精神教育의 實効性을 크게 期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靑少年들의 精神教育이 그들의 日常的으로 接하는 삶의 총체적 過程속에서 展開되고 또 그 內容이 肯定的 方向에서 서로 補強될 때 靑少年教育은 國民精神教育의 次元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社會全體가 하나의 「教育의 場」이 되는 狀況은 國家政策的인 次元에서 強要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性格의 것이 아니다. 國家는 다만 그 造成을 위해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社會構成員 特히 既存엘리트階層의 生活全般에 걸친 刷新的 努力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靑少年들의 精神教育이 社會教育의 次元에서 展開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意味는 學校以外的 家庭 各種 社會團體 및 메스컴等 多樣한 社會化機關의 교화노력이 學校教育과 軸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靑少年精神教育이 그 實効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모든 國民이 그들의 삶의 총체적 過程속에서 함께 努力해야 한다는 認識에 이르른다.

(2) 政府에의 忠誠心에서 政治共同体에 대한 忠誠心の 次元으로

이제껏 國民倫理教育이 크게 講調되어 왔으나 그 큰 흐름을 보면 政治共同体( Political Community )에 대한 本質的 忠誠心보다

오히려 政府 ( authorities ) 에 대한 忠誠心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誘導된 感이 甚다. ( 金忠男教授 論文參照 )

그러나 國民的 支持 및 忠誠心의 對象이 政府일 때 보다는 政體 ( regime ) 인 境遇가, 또 政體보다는 全國民的 속성의 政治共同體인 境遇가 더욱 바람직하며, 바로 이때 政治的 次元에서 民族的 一體感이 形成되는 것이다. 따라서 靑少年들의 政治的 定向 또한 本源的으로 政治共同體로 向하도록 誘導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社會에 풍미하는 小共同體意識 ( 뒤의 教育內容에서 再論 ) 을 克服하고 國家 및 全體社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氣風을 造成하는데도 必須的인 덕목인 것이다.

그러나 靑少年으로부터 政治共同體에 대한 忠誠心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一方的인 精神教育만으로는 不足하며 그 成果를 또 期待할 수 없다. 여기서 必要한 것은 靑少年들이 國家로부터 「受惠感」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며 이는 國家 ( 政府 ) 의 活潑한 政策產出 ( Policy outputs ) 에 의해서만 保障될 수 있는 것이다. 國家는 特히 靑少年들의 意識속에 「주는 者」, 「正義로운 者」로 부각되어야 하며 여기서 現代國家의 社會福祉政策의 重要性이 再認識되는 것이다.

政治共同體에의 忠誠은 健全한 市民精神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靑少年 精神教育의 主要한 매듭이 公共意識의 開發로 集約되는 것이다.

### (3)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規範的 틀속에서

靑少年精神教育을 위한 政策論議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우리 社會가 겨냥하는 規範的 目標은 民主主義이며 이는 資本主義的 經濟 秩序속에서 追求된다는 點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틀은 우리의 思考 및 行動의 外延을 形成하는 것임이 分明히 認識되어야 할 것이며 靑少年教育過程에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本質과 그 現 實態가 詳細히 傳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나치게 硬直화된 內容을 靑少年들에게 傳達하는 것은 避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古典的 自由主義에 立脚한 資本主義가 오 늘날 어떻게 變化했는지 또 資本主義的 經濟메카니즘의 長點 및 그 취약점은 무엇이며, 이에 對處하기 위한 合理的 經濟人의 態度는 무 엇인지 등이 自由롭게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 (4) 教育內容의 韓國化

精神教育過程에서 자칫 外來的 理論을 아무런 濾過없이 傳達하 므로서 主體的 思考와 韓國的 狀況認識을 무디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國粹主義的 思考는 排擊되어야 하며 우 리의 主體的 地平위에서 問題를 조망하는 習性을 익히도록 誘導되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重要的 것이 教育內容의 韓國化이다. 韓國의 狀況認識에 맞 는 教育內容을 創造하므로써 靑少年들을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의 갈등 에서 스스로의 位置를 익히고 未來를 겨냥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教育內容의 韓國化가 現實態를 正當化하고 호도하는 手段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되며 「韓國的」이란 이름아래 非本質이 本質로 轉化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教育內容의 韓國化는 繼統的인 追求 過程이어야 하며 따라서 研究와 討論의 產物이어야 한다.

(5) 精神的 潛在力의 形成과 補強의 次元으로

自由民主主義體制와 그 社會化過程의 長點은 開放性과 多樣性이다. 또 이들 특징은 共產主義體制의 그것과 比較하면 強點이면서 弱點이기도 하다.

그러나 開放性과 多樣性은 겉보기보다 그 뿌리가 강하며, 多樣한 環境의 刺戟이나 狀況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精神的 潛在力構造를 形成하는데 크게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 民主主義的 社會化過程은 社會化機關 相互間의 연계가 不足하고 綜合的인 社會化政策모델이 없으므로 자칫 社會化過程의 一貫性, 連續性이 欠如되며 補強的 教育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따라서 ①社會化過程의 開放性과 多樣性을 保障하므로서 精神的 潛在的 形成에 力點을 두는 틀안에서 ②靑少年들의 精神教育 担当機關의 政策的 調整과 機能的 協調를 通하여 精神教育의 補強效果를 提高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②는 ①의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官僚的, 權威主義的 干渉은 오히려 ①의 效果를 減退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6) 教育投資를 통한 社会的 下部構造의 整備

精神教育의 実効性を 높이기 위하여는 우선 教育投資를 크게 늘려야 한다. 教育投資는 人間要因의 開發이며 바로 精神能力的 蓄積이므로 体制發展을 위한 가장 確実한 社会的 下部構造의 整備勢力이다.

특히 教育이라는 變數는 現代人の 社会階層的 所屬을 定해 주는 가장 주도적인 要因이며, 따라서 社会的 移動性(Social mobility)의 中心概念이기도 하다. 위에서 詳論되거니와 특히 精神教育分野에서 教育担当者的 質이 낮고 그 教育內容 및 教育方法이 뒤지고 있는 理由도 教育分野에 대한 投資가 過少했음을 알리는 좋은 징표이다.

教育投資는 精神教育의 內容改善의 次元을 넘어 全体教育体系의 活性化 및 教育機會의 普遍化 등의 次元으로 發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靑少年들이 体制로부터 受惠感을 느낄 수 있는 條件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ㄴ. 教育体系

주지되는 바와 같이 北韓의 境遇 「生活에서 유리된, 또 政治에서 유리된 學校—그것은 虛偽이며 偽善이다.」라는 말이 모든 教育体系形成의 根幹이 되고 있다. 우리의 境遇 勿論 北韓과 같이 지나치게 意圖的이고 計劃的인 政治教化를 벌릴 수는 없겠으나, 보다 実効性있는 精神教育을 위한 熟考된 教育体系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



우선 靑少年들의 精神教育 特別히 政治 社会化教育을 担当하게 되는 多様な 社会化機關들의 活動과 努力이 보다 効率的으로 調整되고 서로 協調하는 體制로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靑少年들에 대한 精神教育이 單純한 學校教育의 次元을 벗어나 幅 넓은 社会教育 내지 國民教育의 次元으로 擴大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社会化機關間的 協調가 이루어질때 政治 社会化過程의 一貫성과 連續성은 높아지며 靑少年들 또한 지나치게 多様な 政治 社会化 모델의 洪水 속에서 느끼는 正體性的의 危機 (identity crisis)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다 調整된 教育體系의 形成을 위하여 좋은 指針을 提供하는 것이 西獨의 政治教育體系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西獨의 境遇 「政治教育을 위한 聯邦政府 中央機構」가 있고 개개 州마다 그 支部가 있어 政治 社会化를 위한 教育過程을 綿密히 研究하고 그 橫的 調整에 關心을 쏟고 있는 것이다. 西獨의 境遇 이러한 努力이 實効성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理由는 이 機構와 政治教育이라는 制度 自体가 官이나 執權勢力과 同一視되지 않고 國民的 次元에서 運營, 發展되고 있다는 點이다. 周知되듯이 西獨의 政治教育은 終戰后 이 나라의 主要 政治勢力 (政黨)들의 合意에 의해 靑少年들을 極端的인 社会思想 (화씨즘, 共產主義)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手段으로 考案된 것이며 따라서 超黨的機構이다. 그러므로 官僚的 統制나 強制力을 구사하기 보다 研究와 調整을 통한 教育支援에 專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境遇도 國民的 次元의 政治社會化 教育을 指導할 수 있는 機構가 必要하나, 問題는 그것이 곧 官僚的 統制機構로 전락하기 쉽고 자칫 現實的 短期的 政治目的을 위해 잘못 活用될 수 있다는 點이다.

政治社會化를 위한 努力은 비단 學校뿐만 아니라, 家庭, 各種 社會 團體 및 메스컴등에 의해서 함께 展開된다. 家庭은 보다 순수한 「私的 領域」으로 論議로 하더라도 學校를 비롯하여 教會等 各種 靑少年團體와 메스컴의 活動은 보다 上위의 次元에서 效率的으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政治社會化過程의 一貫性과 連續性을 높이며 態度 및 信念의 補強(reinforcement)을 위해 크게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調整努力이 모든 有關團體에게 똑같은 教育內容의 「패키지」(Package)를 強要하라는 意味는 전혀 아니다. 모든 社會化機關은 一次的으로 自己에게 주어진 固有의 活動에 專念하여야 하며, 다만 그 活動과 有關한 精神教育 내지 政治教育內容에 관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보다 有用한 協調와 調整體系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뒤에 言及하는 教育担当者에 대한 教育 내지 再教育體系가 함께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政治社會化機關들의 活動을 支援, 調整하게 될 機構가 마련되는 境遇 이 機構는 보다 效率的인 政治社會化를 위해 繼續的인 研究와 教育內容의 開發에 앞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多樣한 社會化機關들의 自發的인 協調를 얻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 機構가 支援機

構가 아닌 統制機構로 化할때 자칫 劃一화된 教育内容を 통한 意圖的 政治教化體系로 硬直化될 危險이 있는 것이다. 調整된 教育體系 形成과 關聯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할 問題는 精神教育 내지 政治社會化教育의 死角地帶에 머물고 있는 수 많은 勤勞靑少年들에 대한 教育問題이다. 正規教育의 繼統的인 惠沢을 받지 못하거나 教育과 生計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勤勞靑少年階層은 實際로 正常的인 政治社會化教育의 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다. 이들은 自身을 社會의 疎外階層으로 자각할 개연성이 크며 따라서 자칫 이 社會에 대한 不滿階層으로 成長할 確率이 크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의 政治 共同體에 보다 自然的으로 統合시키기 위하여는 이들의 生活問題에 대한 關心과 함께 精神世界에 대한 理解와 教化에도 政策的으로 關心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斷片化된 精神教育體系를 보다 國民的 次元에서 調整, 開發하고 既存의 教育體系의 網으로 포착되지 못한 教育의 死角地帶를 찾아 이를 補完하는 作業을 繼統하기 위하여는 靑少年問題 全般에 대한 보다 基礎的, 本質的 研究를 進行시킬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 靑少年階層에 대한 充分한 社會統計資料, 이들의 慾求 및 意識 狀況을 理解할 수 있는 基本的 調查研究가 極히 未備한 狀態에 있으며 또 이를 發展시키기 위한 政策研究 또한 極히 未洽한 狀態에 있다.

## ㄷ. 教育担当者的 質

青少年精神教育의 成果를 提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는 教育現場에 臨하는 教育担当者的 水準을 높이는 問題이다. 여기서 教育担当者라 함은 中・高等學校의 一線教師들 뿐만 아니라 各種 青少年團體의 教育担当者 相談役等を 總括해서 말한다.

우선 中・高等學校 教師의 問題로 좁혀 생각할 때, 위의 統一研修所 課題報告書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問題點이 드러난다. 그 중에는 教師全般의 問題가 있는가 하면 特히 國民倫理等 精神教育担当者에게 特有한 問題가 있기도 하다. 대체로 위의 分析에서 教師의 能力, 士氣, 使命感 欠如와 過重負擔等이 指摘되었고 이들 問題가 特히 教師의 社會的 地位의 低下와 關連됨이 論議되었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볼 때, 위의 諸般 問題點의 解決을 위한 가장 主要한 대응은 教師의 処遇改善이다. 무엇보다 俸給水準을 높이고 過重한 負擔을 줄이며 보다 自律的, 創意的으로 教職에 臨할 수 있는 教育環境을 造成하는 일이다. 中・高等學校 教師의 報酬水準이 一般私企業體의 職員들의 그것에 相應할때, 學校가 오히려 뜻있는 젊은이들을 充員하는데 有利한 立場일 수 있다. 優秀하고 使命感있는 教師의 確保는 青少年 精神教育效果의 提高를 위한 첫걸음이다.

다음 이들 優秀한 才木들의 潛在的 發展能力을 보다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再教育 내지 大學院教育의 機會를 最大限으로 提供하며, 必要한 境遇 이를 國家가 物質적으로 뒷받침할 必要가 있다. 教師가 優秀하면 學生들의 信賴가 다르며 이는 教育活性化의 첫번째 要件인 것

이다.

다음 精神教育을 担当하는 教師가 尊敬받는 教育風土를 다질 必要가 있다. 大学入試에의 比重을 따져 科目과 教師의 比重이 定해지는 非理를 拂拭하기 위하여 文教当局은 精神教育担当教師에 대한 政策的 配慮를 制度的으로 考案할 必要가 있다.

이와 아울러 中·高等学校에 있어 精神教育은 国民倫理教師만의 專担일 수 없고, 모든 教師가 이에 協調해야 할 共同의 課題라는 認識을 깊이 심어야 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하여 中·高等学校 教師들의 教育課程(師範大學等의)속에서 모든 学科의 教師들이 精神教育의 바탕을 익히고 아울러 該当科目의 교수과정에서 教育內容과 有關한 精神教育內容을 注入시킬 수 있도록 그 방도를 研究하도록 誘導할 必要가 있다. 다시 말하여 靑少年에 대한 全体教育過程에서 精神教育이 實施, 拡散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할 것이다.

精神教育担当 教師들의 資質向上과 聯關하여 매우 主要한 것은 이들 教師들의 教育내지 再教育問題이다. 實際로 大部分의 国民倫理担当 教師들의 南北韓問題, 統一問題, 共產主義의 理論 및 實際에 대한 知識, 國際情勢에 대한 認識度는 그렇게 滿足하지 못한 편이며, 바로 이 점이 精神教育의 說得力을 弱化시키는 主要한 原因이다. 따라서 師範大學教育課程은 勿論 統一研修教育等 再教育課程에서 密度있는 知識이 전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繼續教育의 問題이다. 이들의 繼續教育을 위하여 最新 情報 및 理論에 대한 冊字가 繼續 配布되어야 하며, 그들의 知識水準을 確認하기 위한 裝置도 境遇에 따

라 必要한 것이다. 冊字以外에 特講이나 세미나參席等 多様な 方法이 考慮될 수 있다. 대체로 情報 및 知識의 不足은 教師의 說得力을 줄이며 이는 곧 教育成果를 低下와 이어지므로 이들에 대한 繼續教育을 可能하게 할 수 있는 教育投資가 매우 重要하다.

따라서 教師의 質的 水準을 維持 내지 提高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들은 教育시킬 教育者의 問題가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境遇 아직도 統一教育 내지 共產主義理論教育等を 專門的으로 敎수할 수 있는 能力있는 敎授要員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教師들의 教育을 担当할 教育担当者가 過不足하다는 事實을 政策當局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大学院教育課程에서 까지 共產主義에 대한 理論的 接近이 制限되어 온 韓國的 現實과 깊이 聯關된다. 共產主義研究가 禁忌처럼 歪曲 認識되어 왔고 大部分의 留學生들이 美國을 찾아 대체로 實用主義的 學問分野에 專念한 것도 主要한 理由로 예거될 수 있다. 여하튼 能力있는 教師들을 輩出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教育, 再教育시킬 수 있는 有能한 敎授要員의 確保 問題를 보다 長期的 眼目에서 논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한 바탕을 다지기 위하여 大学院教育課程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共產主義理論 研究等の 機會를 펼쳐야 할 것이다.

分명한 것은 現在의 中・高等學校의 國民倫理敎師의 水準으로는 說得力있는 精神教育을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이며 이에 대한 政策的 對処는 보다 長期的, 構造的 眼目에서 推進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다음 中・高等學校의 敎師뿐만 아니라 各種 靑少年指導團體 및 指

導官庁과 메스컴의 이 分野担当者等の 資質을 높이고 이들을 繼續教育시키는데도 政策的 配慮를 게으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特히 使命感을 가지고 일하면서 社會로 부터 疎外되었다고 느끼기 쉬운 勤勞靑少年對象의 教育担当者 및 相談者들에 대한 倍前의 關心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亦是 結局은 教育投資의 次元인 것이다.

## ㄹ. 教育內容, 教育方法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問題는 靑少年精神教育의 成果를 具體的인 教育現場에서 가름하게 되는 主要한 關心事이다. 이를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 (1) 教育內容

靑少年들의 精神教育(特히 政治教育)의 內容은 이들에게 우리의 政治共同体에 대한 理解와 信賴를 바탕으로 우리가 追求하는 目標과 現在의 狀況을 바르게 認識시키고 公共生活에 必要한 規範과 生活態度를 教育함과 아울러 새로운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潛在的 對應能力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이미 靑少年精神教育의 價值定向에서 拳論한 內容, 即 政府(authorities)보다는 體制(regime), 體制보다는 政治共同体(Political Community)에 대한 信賴와 一體感을 높일 수 있도록 教育되어야 하며, 아울러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라는 規範的 틀속에서 思考하도록 靑少年들이 教化되어야 겠다는 大前提와 教育內容의

韓國化의 必要性에 대한 論議는 여기서도 그대로 有用하다.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論議가 必要할 줄 안다.

(1) 市民教育의 必要性

靑少年들에게 民主社會의 市民으로서 必要한 倫理를 심어 주는 것이 매우 時急하다. 새로운 世代가 지나치게 利己的인 執着이나 血緣, 地緣 및 其他 同窓緣分等 小共同體意識에 침잠할 때, 보다 큰 共同社會의 基本秩序나 公益은 毀損되고 國民的 一體感은 形成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國民精神教育은 「나」와 이웃, 社會 및 國家가 보다 平和로히 共存할 수 있는 公共意識을 開發하는데 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社會를 아직도 前近代的인 意識狀況에 묶어 두고 있는 各種의 歸屬主義的 紐帶 대신에 成就主義的 普遍主義的 規範을 扞散시키는 데 큰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各種의 緣分으로 얽혀진 粘液性의 人間關係가 支配하는 우리 社會가 얼마나 非人間化된 狀況인가를 보다 呼訴力있게 傳達함으로써, 다음 世代부터는 血緣이나 地域感情 따위에 의하여 國民的 感情共同體가 破壞되는 일이 없도록 意識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모든 共同生活의 秩序를 貴하게 여기는 心性을 開發하여 個人的 利己心의 限界를 分明히 가르치고, 市民으로서 지켜야 할 法과 道德의 內容을 周知시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市民의 養成은 國民倫理와 같은 한 科目의 教育成果에 의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學校教育의 힘만으로도 不可能한 것이다. 모든 科目은 그 科目과 有關한 生活領域에 關하여 市民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規範을 正常教科過程속에서 靑少年들에게 內面化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經濟」에 대한 教育에서는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基本的 理解와 景氣變動에 臨하는 合理的 經濟人의 態度를 바르게 認識시켜야 하며, 「商業」에서는 商道德을, 「音樂」이나 「美術」에서는 文化人의 道道律을 「體育」에서는 스포츠맨십과 競爭의 倫理를 깨우치도록 努力하여 全人的 次元에서 市民을 養成해야 할 것이다.

市民意識의 바탕은 「나」以外的 國民도 나와 同一한 國民으로 여기고 그들의 生活樣式을 尊重하며 그들에 대한 關心을 通하여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努力하는데 있다. 여기서 主要한 것은 「相對方의 立場에서 狀況을 認識해 보려는 努力」이며 이는 感情移入能力「empathy」과 相通한다.

따라서 靑少年 精神教育에서 가장 強調되어야 할 것은, 젊은이들이 利己心과 小共同體意識의 浬에서 벗어나 市民의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共存의 倫理를 터득하도록 誘導하는 것이다. 거듭 強調되거니와 이는 學校教育뿐만 아니라, 家庭, 教會 및 其他 多樣한 靑少年團體와 메스컴等 汎社會的 教育支援속에서 內面的 文化內容으로 定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社会的 葛藤現象에 대한 論議

西独의 Wolfgang Hiligen이 쓴 西独의 政治教育用 著書에는 하나의 章으로, 「葛藤은 到處에」라는 題마가 紹介되고 있다. 葛藤은 어느 社会에나 存在하는 自然的인 現象이며, 人間実存의 主要部分이다. 대체로 西歐에서는 社会變화와 發展의 契機로서의 葛藤現象의 肯定的인 機能을 認定하고 이에 대한 公開的 論議를 通하여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境遇 葛藤을 지나치게 否定視하고 現存하는 葛藤을 애써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內燃化되고 끝내 크게 噴出될 危險을 안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에 대한 教育過程에서 葛藤은 어느 社会에나 存在하는 現象임을 알리고 必要한 경우, 靑少年들이 對面하는 具體的 葛藤狀況과 그속에서 그들이 표출하는 慾求와 理解關係에 대하여 터놓고 얘기할 必要가 있다. 靑少年과 教育担当者間의 격의없는 對話와 진지한 討論은 靑少年의 葛藤意識을 보다 建設的인 승화된 次元으로 옮겨 놓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西独의 政治教育도 1965年以後에 그 焦点이 靑少年의 葛藤意識과 葛藤自制 問題로 맞추고 있는 느낌이다.

靑少年들의 意識狀況에서 葛藤을 느낄 수 있는 여러 問題들, 卽 世代間의 葛藤, 階層間의 葛藤, 地域間의 葛藤, 政治的 理想과 現實間의 葛藤, 傳統文化와 外来文化間의 葛藤, 統一意志와 政治現狀間의 葛藤, 第3世界에 대한 理解의 葛藤等을 必要한 境遇 精神教育過程의 主要 争点으로 挙論하고 이들 葛藤의 原因, 解決의 方法, 解決의 展望

및 葛藤自體의 必要性等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主要한 것은 教育担当者의 對話主宰能力이며 이들 諸問題에 대한 그의 價值定向, 眺望, 知識等이다. 教育擔當者가 합당한 能力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히려 靑少年들의 葛藤意識이 深化될 危險이 없지 않다.

위에서 例示한 葛藤의 素材에 대해 參考로 簡略히 再論해 보자.

① 世代 : 既成世代와 젊은 世代間의 慾求 및 社會觀의 差異는 그들이 채득한 삶의 經驗과 密接하게 연관됨을 밝혀 줄 必要가 있다. 既成世代의 安定慾求는 戰爭을 直接 經驗한 生活共同體의 體驗의 產物임을 周知시키고, 世代間의 慾求의 差異는 民族共同體라는 보다 큰 터전위에서 調整, 調和되어야 함을 強調할 必要가 있다.

② 階層 : 階層間의 差異 내지 위화감을 解消시키기 위한 現代國家의 政策的 努力을 紹介하며, 教育機會의 均等化等を 通하여 社會的 移動性이 높아지는 경우 階層間의 間隔은 克服될 수 있음을 알려줄 必要가 있다. 아울러 受惠階層의 지나친 特權意識이나 浮華가 얼마나 큰 社會的 惡德인가를 周知시킨다.

③ 地域 : 우리나라에 있어 地域感情이 民族的 一體感을 破壞하는 主犯임을 認識시키고, 靑少年 모두가 地域感情의 世代的 擴散을 防止해야 할 主役임을 強調한다.

④ 政治理想과 政治現實 : 教育担当者의 一方的 說得보다 政治生活이란 基本的으로 論爭의 余地가 있는 것임을 理解시키면서, 自由, 民主主義의 理念的 本質을 韓國이라는 特殊狀況에 適用시키기를 問題에 관하여 서로 意見을 나눈다. 또한 「既存體制가 提供하는 可能性들의

範圍內에서 政治的 決斷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方法」( Hans- Georg Wehling 이 分析한 西獨 政治教育의 主要한 焦點 )을 周知시키며 民主的 政治改革의 要諦가 漸進的 改善임을 強調한다.

⑤ 傳統文化와 外來文化 : 지나친 傳統文化의 崇尚이나 過渡한 外來文化에의 耽溺이 모두 問題가 있음을 알리고, 「오늘」에 알맞는 「우리」文化의 內容은 새로운 創造임을 알린다. 아울러 靑少年文化의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을 함께 論議한다.

⑥ 統一意志와 政治現狀 : 南北韓問題 내지 統一問題는 두가지 次元을 同時에 갖고 있다. 그 하나는 民族的 내지 民族主義的 次元이며, 다른 하나는 政治現實的 次元이다. 前者는 다분히 명분 또는 理想追求의이며 따라서 다분히 感性的인 次元인데 反하여, 后者는 보다 實利追求의이며 冷酷한 政治現實을 투영하므로 自然 非情誼的 屬性이 강하다.

들이켜 볼 때 1972年의 南北共同聲明은 다분히 民族主義的 次元이 強調된 政治的 合意였고, 이는 그간 동면하던 統一意志의 暴發的인 噴出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主義的 意志도 끝내 冷嚴한 政治現實에 의해 遮斷, 霧散되고 對話斷絶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反面 지나치게 政治現實的 次元에 집착하는 境遇 民族統一이라는 當爲的 命題는 退色하고, 따라서 南北間의 對話를 進行시킬 동기 自体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統一이라는 概念自体가 民族主義的 欲求 내지 生命力的 表現이므로 靑少年의 意識속에 이러한 意志를 繼續 注入시키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民族主義的 次元이 지

나치게 強調되는 境遇, 冷嚴한 政治現實이 外面되고 「一挙」에 만사를 解決하여 보려는 비약된 論理로 發展하게 될 危險이 없지 않다. 따라서 靑少年들의 教育担当者들은 위의 두가지 側面을 適切한 水準에서 調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統一接近에 있어서도 우리의 基本的인 立場은 反外勢의 民族主義的 政治決斷의 立場이며, 따라서 韓國問題가 東西列強들의 政治的 去來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점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問題가 有関國들의 政治的 利害關係와 密接히 연관되어 있음을 否定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國際的 環境에 보다 主体的으로 適應하며 이를 우리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할 必要性을 아울러 強調해야 할 것이다.

⑦ 第3世界의 이데올로기 :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모든 方面에서 主体的 自主性を 強調하는 第3世界의 이데올로기가 靑少年들에게 크게 호소력을 가지며 教育의 韓國化를 強調하는 理念的 立場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第3世界의 많은 나라는 그 나라마다의 具體的 歷史的 狀況에 있어서 크게 差異가 있으며 따라서 第3世界에 속하는 어떤 나라나 혹은 일정 群集의 나라들의 理念的 立場이나 主張이 一般性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境遇에도 바로 適用될 수 없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特히 最近 非同盟運動이 당초의 目標와는 달리 크게 變質되어 그 一部는 오히려 蘇聯等의 走拘가 되고 있음을 分明히 알려 줘야 할 것이다.

特히 第3世界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反美, 反植民, 反資本主義的

理念에 크게 집착하고 있고, 新植民主義理論等を 앞세워 反美運動에 熱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하여, 靑少年들의 意識이 第3世界의 이데올로기의 否定的 側面과 結緣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第3世界의 바른 理解를 위하여는 이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研究없이는 不可能한 것임이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靑少年들의 意識속에서 葛藤을 誘發할 수 있는 主要한 대담들은 一瞥하여 보았다. 葛藤問題에 대해 보다 公開的이며 문제포출적 接近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 葛藤의 深化를 앞당겨 制御하는 機能을 遂行할 것으로 判斷된다. 다만 여기서 教育担当者가 지나치게 現狀을 美化하거나 엄연한 葛藤狀況을 糊塗하기 보다는 葛藤이 슬기롭게 克服될 때 새로운 發展이 約束될 수 있음을 알리며, 葛藤解決의 可能性을 함께 論議하는 過程속에서 靑少年들의 歪曲된 現狀認識이나 偏見을 고쳐 줘야 할 것이다.

葛藤克服 내지 葛藤自體의 必要性은 公共性을 貴히 여기는 市民意識과 歷史的 生活共同体로서의 民族의 紐帶를 바탕으로 強調되어야 하며 또한 漸進的 改善과 異見의 調和를 指向하는 民主的 生活態度속에서 問題解決을 꾀하도록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葛藤現象과의 對決속에서 靑少年의 健全한 批判意識이 自然스럽게 표출되며, 民主市民으로서의 潛在能力이 키워진다는 事實이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 (iii) 均衡的 思考의 強調

위의 葛藤論議에서 이미 밝혀졌거니와 대체로 많은 社会現象은 順機能的 側面과 逆機能的 側面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兩面性을 띠고 있다. 그러나 靑少年들은 대체로 동전의 한 면만을 알고 다른 한 면을 外面하는 境遇가 많으며 이 때문에 兩面的 黑白論理에 빠지고 편견의 노예가 되기 쉽다.

따라서 靑少年教育에서 複合的 社会現象의 여러 断面을 고르게 理解하고 均衡되게 생각하도록 誘導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成熟한 思考能力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均衡있는 思考는 人間과 人間間的 合意의 터전을 넓히고 보다 同質的인 政治文化形成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精神教育의 主要 力点이 여기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지금껏 여러 政權이 지나치게 安保를 내세웠고 또 이를 權力保衛의 方便으로 利用한 面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韓國의 狀況에서 安保의 重要性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 必要性조차 否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릇 變形된 思考를 통하여 問題의 核心을 理解하고 바른 狀況認識에 到達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極端的인 사고나 편향된 認識은 排除될 수 있는 것이다.

### (iv)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教育

南北韓이 숨가쁜 對決狀況에 머무르고 있는 한 우리로서는 北韓이 표방하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北韓政治의 實相을 깊이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敵은 모르고 그와 對敵하는 것은 無謀할 뿐

더러, 無知는 狀況에 대한 그릇된 判斷을 낳고 歪曲된 意識을 培養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共產主義에 대한 知識을 禁忌로 묶어 놓았고 論理的 說得過程을 매개하지 않고 共產主義는 惡이라는 單純圖式을 注入시켰다. 40代以後의 体險的 反共世代에게는 그것이 쉽게 수용되나 靑少年들에게는 그것이 内面化된 意識內容으로 용해되기 어렵지 않을까

共產主義에 대한 無知는 자칫 그에 대한 그릇된 幻想으로 連結되며 이렇게 되면 幼兒時부터 政治思想教育으로 단련된 北韓의 靑少年과의 精神的 對決에서 이겨나기 어렵다. 따라서 共產主義 理論을 批判的인 視角에서 解明하여 그 虛構性을 밝히고 무엇보다 現存 共產主義体制의 全体主義的 속성과 非人間化된 狀況을 照明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提起되는 主要한 問題는 (「教育担当者的 質」에서도 言及되었거니와) 우리나라에 共產主義 理論의 專門家가 極히 적고 有用한 教育資料가 거의 없다는 遺憾스러운 狀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共產主義理論에 대한 禁忌一辺倒 내지 無關心政策의 당연한 所産이다. 적어도 大学院水準의 研究目的을 위하여는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관한 原資料를 公開하여 學門的 研究意慾을 刺戟하고 이 方面의 專門家養成의 契機를 삼아야 될 것이다.

周知되듯이 北韓 共產主義는 共產主義의 一般模型과도 거리가 먼 歪曲型이며, 술한 体制內的인 矛盾을 안고 있는 實体이다. 따라서 北



韓社会에 대한 知的, 分析的 解明은 보다 自然스럽게 反共教育의 実効를 거둘 수 있는 매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有能한 教育担当者가 적다는 現實的 障壁에 또 한번 부딪힌다.

北韓共産党은 그동안 民族主義的 名分과 象徴을 부단히 利用하며 마치 民族主義的 主体性的 化身인듯 宣傳을 일삼았다. 특히 그들은 赤化統一을 겨냥한 高麗聯邦制等 各種의 統一方案을 위장 내지 오도하기 위하여 「民族」을 앞세웠고, 같은 맥락에서 「先政治協商」을 主張하며 韓國의 「先平和 后統一」政策 및 이에 根拠한 유엔同時加入 提案等を 「두개의 朝鮮策動」으로 매도했다. 따라서 靑少年中에는 北韓이 진실로 民族的 主体性を 理念化하고 있는 것으로 그릇 認識하고 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지난번 學術會議에서 高等学校 國民倫理教師가 그같은 생각을 피력한 바 있음) 이는 金日成의 이른바 主体思想과 결부되어 더욱 우려되는 바 크다.

그러나 만약 「北韓의 共産化過程」에 특히 「쏘비엔化 過程」에 대해 바른 教育이 實施된다면 北韓共産政權이 蘇聯의 支援에 의한 괴뢰정권이며, 스탈린격하 이후 까지도 가장 充實한 蘇聯의 主君이었음이 밝혀진다. 또 主体思想이 中·蘇紛争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生存手段으로 안출되었다는 事實과 그 內容이 金日成偶像化 以外에 다른 哲學的 깊이가 없음이 判明될 수 있다. 이 모든 論理的 說得이 北韓에 대한 充分한 知識과 研究를 바탕으로 可能的 것이며 黑白論理的 反共教育으로는 이제 限界가 도래했음을 政策的으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v) 教育内容에 대한 批判可能性

아무리 熟考된 精神教育内容도 時間과 더불어 그 妥當性에 대한 檢討가 必要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教育内容이 硬直性을 띄어 당초의 精神教育目標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教育方法

이미 위의 統一研修所 課題報告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체로 精神教育이 지나치게 行事為主로 運營되며 形式的 注入式 教育의 폐단이 크고, 充分한 教育資料가 갖춰지지 않아 精神教育의 實効性이 우려되는 狀況임이 드러났다. 이들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補完策을 생각할 수 있다.

(i) 自發的 參與의 誘導

精神教育의 實効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自發的 參與를 誘導하는 對話教育이어야 하며 一方的 注入式教育은 靑少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官이 주도하는 各種 行事에 學生들을 動員하고 이를 精神教育의 일환으로 호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러한 誤謬는 精神教育 自体에 대한 學生들의 不信을 조장할 危險이 크다. 學校教育以外에 다른 教育過程도 自發的 參與를 土臺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強要나 劃一的 指導는 禁物이다.

勤勞靑少年에 대한 教育担当者는 特히 이들 不遇한 階層의 靑少年을 위한 特殊한 教育프로그램을 開發하여야 하며, 이들의 日常生活속의 어려움을 精神的으로 함께 體驗할 수 있는 熱意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勤勞靑少年에 대한 惡德企業主의 精神的 暴力

은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青少年教育에 대한 前記 學術大會에서 한 勤勞青少年 指導者의 現場報告에 의하면 勤勞青少年들이 企業체에 대해 조그마한 不滿을 토로하기만해도 곧 「너 빨갱이 아니냐?」는 精神的 危脅이 뒤 따르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러한 反應은 이들 青少年의 精神世界를 혼돈시키며 적지 않은 反教育的 效果를 隨伴할 수 있는 것이다.

(ii) 教育資料에 의한 論理的 教育

일정 現象이나 対象에 대한 人間의 定向(Orientation)은 흔히 認知的(cognitive), 情緒的(affective) 내지 評價的(evaluative) 定向으로 나뉘어 진다. 이때 情緒的 定向은 比較的 어린 나이에 그 씨앗이 뿌려지나 其他 認知的 定向과 特別히 評價的 定向은 比較的 나이가 들면서 論理的 理解를 通하여 形成된다. 따라서 青少年教育을 위한 充分한 教育資料는 매우 요긴한 것이며 可能하면 現場實習機會 등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教育担当者의 努力을 덜어 준다.

(iii) 實質教育時間의 延長

이미 別途로 強調한 바와 같이 國民倫理以外的 모든 科目이 그 科目의 教育過程속에서 充分的 精神教育의 分担者로 登場하는 境遇, 國民倫理時間은 그 實質에 있어 몇 배로 늘어 날 것이다. 이 경우 教育方法은 教育担当者의 創意에 따라 그 科目의 屬性을 감안하여 開發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 지원은 國民倫理時間에 依存하던 精神教育의 저변을 크게 擴大할 것이다.

ABSTRACT

PROPOSALS FOR MORAL EDUCATION

Byung Young Ahn

I. Installation of Basic Evaluation

A. Education from School to Society

The level of contemporary school education needs to be elevated to the level of social educ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is means that learning should be not only in school but also in every aspect of life.

More than that every enlightening effort of social institutions should be in line with those of schools.

B. From forced Loyalty to the Government to voluntary integration in the Political Community

Up to now, school education has carried out the role of producing loyalty to the government. Now it needs to change its directions so as to induce the younger generation to voluntarily integrate themselves and become loyal to the political community.

A nation should stand as "the Benefactor" and "the Righteous" so that the younger generation feels itself to be "the Beneficiary". From here homogeneity should be set off.

C. Within Democracy and Capitalism

What our society is sailing for is democracy. Democracy can be pursued and reached with the capitalistic order. These two fundamental concepts are the foundation on which our history should grow.

Democracy and capitalism should be taught to the younger generation from their origins and realities.

D. Koreanization of curriculum

No one can deny that we must view and evaluate the inflow of western culture from our peculiar barometer.

The contents of a curriculum should be recreated so a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se newly-organized contents aim at helping adolescents to develop a new identity out of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and at serving them to cope with the future confidently.

Koreanization of the curriculum, however, should not be abused to defend or gloss over the administrative errors of government.

E. How to bring out the latent mental ability of the youths  
openness and variety should be ensured in the proceedings of socialization.

The concerned authorities should be cooperative and mediate in consolidating the development of the latent power of the youths.

F. Enriching the social substructure through the investment in education

Investment in education plays the most efficient role in developing manpower and in enriching ethos.

Investmen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nourish the social substructure.

## II. EDUCATION SYSTEM

A. Necessity of arrangements and mediation among the concerned organizations.

One lineage and continuity in the proceedings of political socialization can be maintained only when the operations and efforts of the social organiza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oral education are arranged and cooperated.

The super structure which will supervise these activities needs to be organized also. But such an organization is liable to be reduced to a bureaucratic puppet or to be abused to satisfy temporary administrative purposes.

B. How to cope with the working adolescents

Laboring adolescents, separated from educational benefits,

are liable to complain about their being neglected as banished sons; They must be taken good care of in the implementation of an educational policy.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to practice immediately so that the working adolescent may be persuaded to Symphasize with the political community.

### III. Quality of the teacher in charge

#### A. Teachers in charge of moral education

Achivements in education are best fostered by upgrading the quality of the teachers in charge. Teacher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pertains to all the teachers, the other to those who are working mainly with ethic.

Better treatment, including a larger paycheck, is prerequisite to upgrading the quality of teachers. In addition, reeducational opportunity, graduate school for example, should be owned to them with the help of government.

Teachers in charge of moral education should be respected by students themselves as well as the rest of society.

More than that, we have to be convinced that moral education is the responsibility not only of teachers but of the whole

society.

Relating moral education with the other subjects can be made through the complete arrangement of the whole curriculum.

#### B. Scarcity of qualified instructors

Scarcity of qualified instructors who specialized in Communism and Unification is really a serious problem.

Maintaining efficient teacher, in quality and quantity, decides whether unification lessons will fail or succeed.

Administrative plans should be concentrated on training more efficient teachers majoring in Unification. As a practical method, the specified study of communism should be added to the curriculum of graduate school.

#### IV. Contents and Method of Teaching

The essential contents of moral education should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s.

- a. To make the students understand where we are now and where we are heading
- b. To teach and train morals and rules
- c. To develop the potential of students to adapt themselves



to the unexpected with confidence

A. Necessity of civil educa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eaching how you and I, society and nation can coexist together peacefully, and on how to get rid of old fashioned conceptions.

B. Solving discord in society

Discord is a natural social phenomenon which happens in every society regardless of age and location.

Teachers should be persuasive enough to convince the students into taking discord for granted by elucidating why discord is oriented, how it develops, and finally how it can be solved.

(ex. problems between generation, social status, local sectionism, political ideology, tradition versus western culture, and unification versus political development)

C. Balanced thinking ability

Contemplative capability should be improved in juvenile education so that the youths may accept the heterogenous social phenomenon without prejudice.

Balanced thinking power plays an essential role in shortening the gap between human beings and in building up a homegenious

political community.

D. Education in the theory and realities of communism

The attributes of communistic totalitarianism and the realities of an inhumanized communistic society should be elucidated in every detail, expatiating from the distorted political system to the state-oriented contradictions in the North Korea.

Therefore the intellectual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society passes naturally to the practical study of communism.

- a. The propriety of the contents of moral education should be questioned, corrected, and supplemented without let up.
- b. Excessive formalities and a cramming teaching method should be removed.

The following proposals should be considered in setting up a policy for moral education.

- a. Inducing voluntary participation.
- b. Logical instructions on the basis of scholarly reports.
- c. Prolongation of practical study hours.